

#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2011.10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b>연구수행기관</b>	한국사회학회
<b>연구 책임자</b>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공동 연구자</b>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희길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사무관
	박주언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주무관

본 보고서는 한국사회학회가 통계개발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목적 .....	2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사례 검토 .....	4
제1절 개념적 논의 .....	4
1. 개념의 역사와 역사적 배경 .....	4
2.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	7
3.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 .....	14
제2절 삶의 질 지수 작성 사례 .....	18
1. 국가 단위의 연구 .....	18
2. 국제비교 목적의 연구 .....	29
3. 사례검토 결과 .....	30
제3장 삶의 질 지수 구성 체계 및 산출 방법 .....	32
제1절 영역구성 .....	32
1. 삶의 질 측정 영역 .....	32
2. 개별 영역들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 .....	34
제2절 영역별 지표선정 .....	39
1. 지표 선정 기준 .....	39
2. 영역별 세부 주제 및 지표 선정 .....	41
참고문헌 .....	91

<부록1> 해외사례 검토 전문	93	
I. 일본 사회지표의 변천 및 현황		93
1. 일본 사회지표 작성의 배경 및 변천과정	93	
2. 사회지표들의 특성과 내용 요약	94	
3. 신국민생활지표(PLI)의 특성과 생활개혁지수(LRI)의 특성 비교	99	
4. 생활개혁지수의 작성과정 및 결과	101	
II. 캐나다 웰빙 지수		111
1. 생활수준영역	113	
2. 건강인구 영역	115	
3. 공동체 활력	119	
4. 민주적 참여 영역	121	
5. 여가와 문화 영역	124	
6. 시간사용 영역	128	
7. 교육 영역	130	
8. 환경 영역	132	
III.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134
1. 개요	134	
2. 국민총행복지수의 구성	134	
3. GNH Index variables	142	
4. 부탄의 GNH지수 결과	146	
IV. 1974년 이후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LIS)		150
1.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	151	
2. 사회지표와 삶의 질 지표의 역사적 배경	152	
3. ‘삶의 질’과 기타 개념들	153	
4. LSI의 영역과 지표	155	
5. LSI의 개념틀	160	
6. LSI의 지표항목	163	
7. 30년간 네덜란드의 삶의 질 평가 결과	166	
8. 안정성과 민감성	170	
9. 결론	172	

## <표 차례>

<표 1> 알라트의 삶의 질 정의 .....	11
<표 2> 빈호벤의 삶의 질 정의 .....	11
<표 3> 잡프의 삶의 질 정의 .....	12
<표 4> 일본의 생활개혁 지수 .....	19
<표 5> 캐나다 웰빙 지수의 영역 및 측정 내용 .....	23
<표 6> GNH의 영역별 세부내용 .....	25
<표 7> 인간개발지수의 구성 지표 .....	29
<표 8> OECD How's Life .....	30
<표 9> 삶의 질 영역 구분의 비교: 통계청 기준 삶의 질 지수 및 OECD How's Life .....	33
<표 10> 삶의 질 지수 지표 구성안 .....	41
<표 11> 통계개발원 '삶의 질 지수'와 OECD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	42
<표 12> 삶의 질 세부지표: 경제적 조건 .....	47
<표 13> 삶의 질 세부지표: 교육 .....	54
<표 14> 삶의 질 세부지표: 건강 .....	59
<표 15> 삶의 질 세부지표: 문화와 여가 .....	63
<표 16> 삶의 질 세부지표: 가족과 공동체 .....	68
<표 17> 삶의 질 세부지표: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	74
<표 18> 삶의 질 세부지표: 환경 .....	81
<표 19> 삶의 질 세부지표: 안전 .....	85

## <그림 차례>

[그림 1]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 .....	23
[그림 2]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	30
[그림 3] 삶의 질의 만다라(본 연구) .....	34
[그림 4] 삶의 질 영역 간의 영향관계 .....	35
[그림 5] 물질적 조건의 중범위 분류간 관계 .....	47
[그림 6] 교육의 중범위 범주간 관계 .....	53
[그림 7] 건강 영역 삶의 질 모형 .....	58
[그림 8] 여가와 문화 관련 삶의 질 모형 .....	63
[그림 9] 가족과 공동체 .....	66
[그림 10]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	71
[그림 11] 환경 영역 체계도 .....	80
[그림 12] 안전 영역 체계도 .....	85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우리사회는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인당 GDP가 1970년 793\$에서 2007년에 24,801\$로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의 성취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제적 생활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발표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위치는 경제성장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래전부터 GDP는 사회발전 측정에 있어서 핵심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각 국에서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당연히 국민의 웰빙이나 삶의 질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구심을 받고 있다. 먼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 범죄, 환경오염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GDP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지표를 넘어서는 삶의 질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Stigliz et al., 2009).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발전의 측정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 틀을 바탕으로 OECD에서도 2011년 50주년을 맞아 Better Life Initiative를 시작하면서 How's Life Index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이 경험한 역사적 경로를 짧은 시간에 급속히 겪으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 전반의 활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또한 이념적 갈등, 상대적 빈곤,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첨예하게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정

책적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기본적 임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 데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GDP를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주로 사회지표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사회보고서(social reports)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환경은 우리의 경우도 유사한데,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지표」는 480여개의 지표가 통계표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 너무 기술적이며, 한국인의 삶의 질을 한 눈에 보여주지는 못한다.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삶의 질이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과 당면한 해결과제 문제인지를 요약하여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삶의 질을 종합하여, 우리가 처한 상태를 집약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측정틀’ 작성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목적

삶의 질을 집약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monitoring)하고자 하는 것이다. 1979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기존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방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삶의 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풍부한 자료를 간결한 방법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간명한 삶의 질 측정체계가 작성된다면 정책적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의 현주소와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정책적 해결과제를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평가 도구로써도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근거 기반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될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지수화 방법에 대해 실제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적, 이론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먼저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념적 논의와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과 함께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국내외 선행 사례 검토를 통해 가능한 요약적 측정방법을 탐색해 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측정을 추진을 위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 구성방안, 실제 세부 관심영역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 영역 내에서 지표 선정, 결측 자료에 대한 보정 등 세부적인 기술적 쟁점들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측정 노력의 진척 정도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의 해결방법도 모색해 볼 것이다.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사례 검토

### 제1절 개념적 논의

#### 1. 개념의 역사와 역사적 배경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후생경제학자인 피구(Pigou, 1929)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하층계급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공 및 그것이 노동에 의해 받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첫째, 비경제적 복지는 소득 획득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왜냐하면 근로환경이 삶의 질에 부작용을 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다(Pigou 1929: 14).

이후로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거의 20여 년 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다시 등장한다. 당시 이 용어는 주택 및 소비재, 자동차의 소유로 대표되는 좋은 삶 혹은 물질적 부를 함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Fallowfield, 1990). 1950년대 국가목표에 대한 아이젠하워 위원회는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상이한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 등장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그에 앞서 등장한 ‘사회지표’의 배경 및 ‘삶의 질’ 개념과의 관련성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의 연구 분야로서 사회지표는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 시작되었다. 그 출발점은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에서 미국의 우주계획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해 시작한 연구였다<sup>1)</sup>.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바우어(Bauer, 1966)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우리의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의 위치와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 통계 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이다.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스웨덴에서도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1965년부터 스웨덴 저임금위원회에서 시작한 스웨덴 생활수준 조사(Swedish levels of living survey)에서는 1968년도 조사부터 이전의 임금수준이나 소비수준에서 더 확장해서 다양한 사회분야의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조

1) 1960년대의 사회지표 연구 이전에도 이러한 시도는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933년 당시 대통령 후버의 사회동향위원회가 출간한 <미국의 최근 사회동향>으로 출간된 사회학자 오그번(Ogburn)이 수행했던 연구이다.

사향목의 확장이 시장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집단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한 기술경제적 발전이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미국이 사회지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물질적 영역 대 비물질적 영역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스웨덴에서는 시장 영역 대 비시장적 영역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표 연구는 곧 유럽 및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었으며 머지않아 국제기구들에 의해 채택되기 시작했다. OECD에서는 1970년에 사회지표 작업을 시작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UN 사회경제위원회에서도 <사회 및 인구 통계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의 학술적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시작되었기에 ‘사회지표운동’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이처럼 운동의 형태로 등장하고 급속히 확산된 배경에는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 초반의 사회적 분위기가 한 몫을 했다. 당시는 번영의 시기였으며 처음으로 서구 선진국에서 사회진보의 주요한 목표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Mishan 1967)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더 많은 것(more)”이 계속 “더 좋은 것(better)”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양보다 질을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한편으로 이러한 경향은 물질적 부의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탈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는 유럽의 사회경제적 통합 정책이 발전하면서 삶과 사회의 질이라는 쟁점이 새로운 동력을 받게 되었다. 1988년 유럽연합은 통합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조화로운 유럽 공통시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재분배정책을 채택했으며, 1989년에는 사회헌장이, 1992년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사회 프로토콜이 채택되어 빈곤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적극적 행동의 채택을 가져왔다. 2000년대에 이르러 유럽은 리스본 전략에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함께 대처할 것을 협의하면서 라에켄(Laeken) 지표로 불리게 되는 일련의 지표들- 소득, 고용, 교육과 건강 영역으로 나뉘는 -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2003년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조건 통계 프로젝트(EU-SILC) 및 생활 및 근로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이 시작한 유럽 삶의 질 조사로 구체화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GDP의 한계를 극복한 보다 포괄적인 사회의 발전 지표를 모색하려는 관심도 많았다. 2007년에는 유럽위원회, OECD, UN, 세계은행이 함께 글로벌

리제이션 시대의 사회의 진보 측정에 대한 국제회의를 가졌으며, 2008년에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민 웰빙을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Stiglitz)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고 2009년도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010년에 UN은 과거부터 작성해왔던 인간발전지표(human development indicators)를 재검토하는 한편 젠더 불평등과 빈곤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들을 도입했다. UN에서는 OECD 및 Eurostat와 협력하여 인간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OECD 역시 2007년도에 시작한 사회 진보의 측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2011년 5월 OECD 50주년 기념으로 ‘보다 나은 삶 계획’(Better Life initiative)을 발족하는 한편 OECD의 웰빙 관련 지표들의 개요인 ‘삶이 어떤가요?’(How's Life?)를 공표하고 웹 기반으로 “당신의 보다 나은 삶 지수”(Your Better Life Index: [www.oecdbetterlifeindex.org](http://www.oecdbetterlifeindex.org))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진보 및 웰빙 측정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에 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회 진보 및 웰빙 관련 계획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형태는 국가 컨설팅(영국), 의회 위원회(독일, 노르웨이), 국가적 라운드테이블(이태리, 스페인, 슬로베니아), 경제, 사회, 환경 조건 관련 통계의 통합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미국), 통계보고서(호주, 아일랜드) 그리고 그 밖의 계획(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 등 다양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사회지표운동 형태로 등장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이들 두 시기 간에는 국민들의 웰빙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측정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책 형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당한 차이도 보인다(Vesan and Bizzotto, 2011). 1960년대에는 풍요의 시대에 산업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모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 측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일종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해 고무되었다. 반면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나는 불평등과 불안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위기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최근의 관점에 의하면 보다 나은 삶의 추구는 미래 세대의 질 좋은 삶에 대한 권리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삶의 질 개념은 과거 인류 문명의 부단한 진보의 결과라는 낙관적 의미로부터 최근 정책

적 선택이 사회 및 환경 영역에 대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유(sharing)와 균형(balancing)의 신중한 의미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 2.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개념적 정의나 이론적 설명을 갖고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용어가 사용된 학문적, 정책적 맥락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종종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와 논란이 과거로부터 최근까지도 계속되어왔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삶의 양(quantity of lif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삶의 양이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 GDP 등으로 대변되는 물질적 삶의 조건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서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일반화되고 물질적 삶이 풍요로워진 1950~6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삶의 질 개념은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값지고 좋은 삶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질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행복한 삶에 대한 철학적 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것에 비해 값진 삶(virtuous life)과 좋은 삶(good life) 그리고 행복한 삶(happy life)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는 오래된 것이다. 기원적 35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imonia*)이야말로 인생에서 그 자체로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이 부나 명예, 건강 혹은 친구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만 행복은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것이며, 이때 행복은 “이성과 일치하는 정신의 가치있는 활동,” 즉 가치의 실천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즐거움이나 기쁨) 혹은 객관적 상태(물질적 풍요)가 아닌 가치로운 주체적 행동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적 사고는 훗날 칸트에게 이어져 칸트 역시 개개인의 행동이 보편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에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가치의 실천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을 얻은 상태(*ataraxia*)야말로 행복한 삶의 본보기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좋은 것은 기쁜 것이고 나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행복한 삶을 즐거움(pleasure)에서 찾고자 하는 훗날의 시도들로 이어졌다. 특히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쾌락 즉 고통이 없는 상태의 추구로 정의했던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utilitarian) 사상은 에피쿠로스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Brock, 1993). 첫 번째 접근은 좋은 삶의 특성이 종교적, 철학적 혹은 기타의 체계에 기반한 규범적 이상들(normative idelas)을 따른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의 입장이 이러한 접근이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행동과 좋은 삶은 합리적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규범에서 정한 바 옳은 일을 행해야만 한다. 좋은 삶과 행복을 가치의 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분별있는 행복(prudential happiness)으로 불리기도 한다(Haybron, 2000).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선호의 충족(satisfaction of preferences)에 기초한다. 사람들이나 사회가 지닌 자원의 제약 내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에서 볼 때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욕구하는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쾌락주의적 행복(hedonistic happiness)이라고 불리기도 하는(Scanlon, 1993; Jennings, 2000)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종종 이러한 접근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enviable) 삶을 좋은 삶으로 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세 번째 접근은 개인의 경험(experience)을 중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경험한다면 그의 삶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단지 가치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스스로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과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happiness: Haybron, 2000) 혹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Diener)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을 매우 중요시하며,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이 반드시 외적 조건에 의해 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 삶의 질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

행복과 웰빙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삶의 질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쟁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쟁점들을 둘러싼 입장과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쟁점: 삶의 질에서 삶은 개인의 삶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집합적 삶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쟁점: 삶의 질은 삶의 주체인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관찰 주체인 연구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외적 조건을 평가하는 것인가?

세 번째 쟁점: 삶의 질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인가?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기회가 충분한 상태인가?

네 번째 쟁점: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개인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른가? 아니면 인간 공통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주로 심리학이나 보건학, 간호학, 정신의학 등의 분야이다. 반면에 사회의 집합적 삶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다루는 분야는 사회학, 정책학, 경제학 등의 분야이다. 삶의 질 문제를 개개인 간의 비교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회의 격차 혹은 시점 간의 변화의 문제로 볼 것인가는 어느 정도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문제는 단지 분야 간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 사회 내 개인 간 삶의 질 격차가 사회 간 삶의 질 격차보다 더 크다면 사회의 집합적 삶의 질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학자 거슨(Gerson, 1976)은 전자의 경향을 개인주의적, 후자의 경향을 초월주의적이라고 부르며 이 두 입장이 모두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두 입장에 대한 대안으로 거슨은 상호작용적 입장에 서서 개인과 사회의 교섭(negotiation) 과정의 산물로 삶의 질이 나타나며, 개인이 사회에 대해 얼마나 몰입(commitment)을 하며 동시에 사회가 개인을 얼마나 활성화시켜 주는가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주로 집합적 수준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지만 그 이론적 전제는 삶의 질이 개인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삶의 질과 관련되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Walker and Maeson,

2003; Wallace and Abbott, 2009). 사회의 질 개념은 삶의 질에 비해 좀 더 최근 등장한 개념으로 집합적 수준에서의 삶의 질이 아닌 사회적 결속(cohesion), 통합(inclusion), 역능(empowerment),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전(security)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삶의 질이 사회 내에서 격차가 클 경우 평균적 삶의 질 수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의 질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앞서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대로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의 질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약화되거나 상실된 ‘사회 (the social)’의 의미를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회의 질과 삶의 질 개념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양자가 대등하며 상호보완적이라는 입장(Walker and Maeson, 2003)과 사회의 질이 삶의 질에 비해 더 큰 개념이라는 입장(Wallace and Abbott, 2009)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쟁점은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와도 관련이 깊지만 이론적으로도 중요하다.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 조건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판단을 중시하는 전통은 주로 경제학적 전통을 따른다. 하지만 이 입장 내에서도 크게 공리주의 입장에 충실한 북유럽의 자원(resource) 중심의 생활수준 접근(Erikson, 1974, 1993)과 자유주의 입장에 충실한 경제학자 센(Sen, 1985, 1992)의 역량(capability)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삶의 질에 대해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을 중시하는 입장은 주로 심리학적 전통을 따른다. 이러한 입장은 대변해온 캠벨(Cambell, 1972; 1974)에 따르면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웰빙의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물질적 조건을 넘어서서, 삶의 질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훨씬 측정이 어려운 느낌과 감정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1974: 11)”이며, 따라서 “삶의 질은 그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어야 한다(1972: 442).” 보다 최근에 주관적 웰빙의 입장을 대변하는 디너(Diener and Suh, 1997)는 자료분석을 통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 조건이 좋을수록 주관적 만족이 떨어지는 부정적 관계도 있다는 점을 보이며 주관적 느낌과 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회의 집합적 수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분석하면서 전적으로 주관적 느낌과 만족도에만 의존하는 것도 무리이다. 결국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지표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주관적 느낌과 만족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는 입장을 택한다(Schneider, 1976; Cummins, 2000). 또한 주관적 개념과 객관적 개념의 상호보완성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관적 느낌과 객관적 조건의 관계를 교차시켜 다차원적인 개념화 및 분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다(Allardt, 1976; Veenhoven, 2000; Zapf, 1984).

핀란드의 사회학자 알라트(Allardt, 1976)는 삶의 질이 소유(having), 사랑(loving), 존재(being)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맨 앞의 소유는 경제적 자원, 주택 조건, 고용, 근로조건, 건강, 교육 등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수준과 관련되는 반면, 사랑은 이웃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접촉, 가족과 친척에 대한 애착, 적극적 우애, 결사체 성원들과의 애착 및 접촉,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고, 존재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활동에의 참여, 정치적 활동, 여가활동 기회와 의미있는 직업활동의 기회 그리고 자연을 즐길 기회 등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 차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인지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표 1> 알라트의 삶의 질 정의

	Welfare	Happiness
Level of living	Needs for which satisfaction is defined by having or mastering material and impersonal resources	Subjective evaluations and perceptions of how satisfied an individual feels himself as regards his material living conditions
Quality of life	Needs for which satisfaction is defined by human relations or by how the individual relates to other people and to society	Subjective evaluations and perceptions of how satisfied an individual feels himself as regards his human and social relations

출처: Allardt (1976)

네덜란드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빈호벤(Veenhoven, 2000)은 삶의 기회와 삶의 결과를 구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해 내면적 질과 외면적 질을 구분하여 환경의 질, 삶의 효용, 사람의 생활능력, 삶에 대한 가치평가 등으로 나누고 있다.

<표 2> 빈호벤의 삶의 질 정의

	Outer qualities	Inner qualities
Life chances	Livability of environment	Life-ability of the person
Life results	Utility of life	Appreciation of life

출처: Veenhoven (2000)

마지막으로 독일 출신으로 유럽 삶의 질 연구 권위자인 잡프(Zapf, 1984)는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웰빙이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교차하여 양자 모두가 좋은 경우 '웰빙'으로, 양자 모두가 나쁜 경우는 '박탈'로 규정하는 한편,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쁜 조건이지만 주관적으로 좋게 느끼는 '적응'과 좋은 조건임에도 나쁘게 느끼는 '불일치'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삶의 질이라는 관념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태도나 느낌이 불일치하는 적응(만족의 패러독스) 혹은 불일치(불만족의 딜레마)의 경우에는 잘 적용되기 어렵다고 한다.

<표 3> 잡프의 삶의 질 정의

		Subjective Well-Being	
		good	bad
Objective Living Conditions	Good	Well-Being	Dissonance
	Bad	Adaptation	Deprivation

Source: Zapf 1984, p. 25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객관적 조건의 측면과 주관적 느낌과 만족이 삶의 질을 함께 구성한다는 전제 위에서 삶의 질 측정의 틀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쟁점은 개인간 비교의 경우 주관적 만족이나 느낌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며 심리학적 설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개인별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나 문화 간 비교 혹은 동일 사회에서의 시점 간 비교에서 비교의 기준이 서로 동일하거나 안정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주관적 만족이나 느낌은 물론이고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물질적 풍요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의 한계효용이 낮아지고, 또한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인한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이나 분야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마다 각자 고유한 기준과 영역별 비중을 갖고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시기별로 사람들에 중요시하는 영역이나 분야가 바뀐다고 해서 그 비중을 변화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거나 악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 혹은 방법론적으로 상대주의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문제는 삶의 질을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갖고 모든 사회와 모든 시대에 걸쳐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를 염두에 두고 삶의 질 측정틀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삶의 질 측정틀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적 상황과 관심을 고려하고자 한다. 하지만 시기별 비교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을 다루지 않는 한 안정적인 시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잠정적 결론

위에서 살펴본 삶의 질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을 통해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삶의 질’ 개념은 GNP 등 기존의 경제지표 중심의 생활여건이나 삶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개념이다. 경제적 여건만으로 새로운 사회의 흐름과 개인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증대하면서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삶의 질’ 개념은 포괄성을 지님과 동시에 개념적 모호성을 동시에 수반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회지표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측정내용에 대해 삶의 질, 복지,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다양한 유사개념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 개념은 상대적으로 주관적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주의적 경향이 일반적이다.

셋째, 삶의 질 및 사회지표 개념은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이 개념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이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관적

이고 규범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삶의 질과 관계된 요인들도 객관적 차원뿐 아니라 목표, 열망, 성격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질(societal quality)과도 관계된다. 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평(equality), 형평(equity), 자유, 유대감 등과 같은 전체사회적 특성이나 질도 ‘삶의 질’과 관계된다. 특히, 최근에 복지의 배분 및 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서 증가하고 있다. 사회응집력(social cohesion)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전체사회의 질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개념이다.

### 3.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

사회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내용인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스칸디나비언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접근법이다.

스칸디나비언 접근법은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의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 한다(Noll, 2004).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측정값이다.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스칸디나비언 전통에서, 복지<sup>2)</sup>(혹은 삶의 질)는, ‘가용한 결정요인 자원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통제하고 의식적으로 방향지울 수 있는 장악력’으로 정의된다(Erikson, 1993, Noll,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복지 관념은 개별 시민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과는 구별된다. 여기서 자원은 돈, 재산, 지식, 육체적 및 심리적 에너지, 사회적 관계, 안전 등을 가리킨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주어지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삶의 질에 대한 이런 접근은 센(Sen, 1993)의 ‘능력(capabilities)’ 개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삶의 질은 가치 있는 기능(functioning)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기능은 자신이 꾸려가고 삶의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개인적 상황의 부분들을 표상한다. 어떤 기능은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건강,

---

2) 스칸디나비언 접근에서 ‘복지(welfare)’는 ‘삶의 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좋은 영양 상태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성취, 자존감, 사회적 통합 등과 같이 보다 복잡한 것들이다. 삶의 질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인간발달 접근(Human Development Approach)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객관적 지표의 옹호자들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안내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하고, 이런 과학적 진실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주관적 지표는 정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Veenhoven, 2002).

가치나 목적과 같은 규범적 기준으로 실제 조건을 비교하여 삶의 조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객관적 지표 활용이 출발했다. 이러한 가정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사회 전체적이고 정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선결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복지 고려사항으로 적합한 차원들이 무엇이고, 둘째 어떤 조건이 나쁘고 좋은 것인지, 셋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합의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어떤 경우에는 명료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컨대 형평과 효율성, 공정성과 경제성장은 때때로 양립하기 어렵다.

미국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이 전통은 공리주의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사람들이 상황을 실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재한다”는 금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전통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한다. 삶의 질은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 시민의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되고, 이것이 삶의 질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보통 사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질 평가의 가장 적합한 전문가이다. 가장 중요한 주관적 웰빙의 지표는 만족감과 행복감의 측정이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관적 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Veenhoven, 2002). 첫째, 사회정책은 단순히 물질적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목표로 하는데, 주관적 목표는 주관적 지표를 필요로 한다. 둘째, 물질적 목표에서 성취도 항상 객관적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 지표가 더 낫다. 셋째, 측정의 포괄성에 있어서 현재의 종합척도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주관적 만족 지표의 활용으로 포괄성이 보다 잘

확보된다. 넷째, 객관적 지표로 정책결정자는 공중의 선호(preferences)를 잘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는 여론으로부터 확보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는 결핍(wants)과 욕구(needs)를 구분해야 한다. 욕구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관적 지표의 강조는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개인 시민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하고, 바로 그들에 의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삶의 질 측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스칸디나비언들은 주관적 지표 사용에 대해, 만족의 정도는 부분적으로 열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비판한다. 또한, 주관적 지표 사용과 관련해서 정보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sup>3)</sup>.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논쟁에는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는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례를 들면, 호주는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주관적 측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Trewin, 2001). 독일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의 시각에서 인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와 '사회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개념적 논의(임희섭, 1996)에서도 삶의 질을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객관적 차원은 '특수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관적 차원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내면적인 기준(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객관적 차원은 생활수준, 평균수명, 직업기회, 범죄율, 교육기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으로 삶의 질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의 관계가 항상 일정한 관계를 지니지 않고 가변성을 갖는 것은 내면적인 기대수준과 외재적인 준거로 설명한다. 즉, 객관적 조건의 향상이 기대수준을 높여서 두 관계가 가변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의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동시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3) 주관적 지표가 충분한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Cobb, 2000). 사람들이 느낌의 뉘앙스를 의식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임시적인 느낌이 지속적인 조건을 반영하며, 그 느낌이 가치와 등가물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척도로 느낌을 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인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 측정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Stiglitz et al., 2009). 첫 번째 접근은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주관적 웰빙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주관적 웰빙은 심리학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개발된 것으로, 개인을 그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로서 간주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목적이라고 가정한다. 주관적 웰빙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의 간편함(simplicity)에 있다. 즉 개인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은 개인들의 선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모을 수 있으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삶의 질 측정에서의 능력(capabilities) 개념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인간의 삶을 다양한 ‘행위와 존재(doing and being)’, 즉 기능의 결합 및 이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기능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나 행동으로 건강, 지식, 직업과 같은 개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삶의 질 측정 뿐 아니라 정책평가에도 활용가능하다. 이 접근방식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몇 개의 단계를 요구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용가능성, 사람들의 가치, 정치적 목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능력, 즉 지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평가는 기능과 능력의 방향성을 웰빙의 수치로 변환시켜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사람들마다 기능과 능력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기초로 작성된 연구로는 UNDP의 HDI가 있다.

세 번째 접근방식은 경제적 접근방식으로 경제복지와 분배의 측면에 근거한 개념이다. 이 접근의 기본개념은 삶의 질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와 관련되어, 삶의 질의 다양한 비화폐적 측면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비화폐적 차원에 대한 특정한 선호도와 함께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과, 개인들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 등이 요구된다. 이 접근방식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만을 불균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제2절 삶의 질 지수 작성 사례

1960년대부터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지표 운동이 미국에서 초기에 개발, 논의되어 오다 유럽과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곧 국제기구에 의해 채택되었다. 사회지표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계열적인 자료의 축적, 다양한 지표의 개발, 패널자료 축적, 반복조사 실시 등으로 이들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Hagerty et al., 2001). 측정 결과를 모델로 분석하려는 노력 등이 진척되고 있으나, 아직은 사회보고서 발간이 주된 활용분야로 머물러 있다. 현재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단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체적인 종합지수로 산출하려는 노력은 민간 및 연구소 수준에서는 시도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수행은 아직은 시범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국가 단위의 ‘삶의 질’, 혹은 행복, 웰빙을 측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역구분, 측정 지표 선정, 지수 산출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되어온 연구들로써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국가 단위의 연구

#### 1) 일본의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LRI 일본 내각부 국민생활심의회, 2005)

- 작성기관: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본부 조사위원회  
(담당부서는 내각부 국민생활국 총무과 조사실)
- 개시시기: 2002년 11월 (제1회 검토)
- 공표시기: 2002년 12월
- 배경: 풍요를 실현한 국민의 시점에 서서 구조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목적: 구조개혁의 성과를 국민생활의 시점에서 여유와 안심 등의 비화폐적 측면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생활개혁의 진척의 정도를 분명히 하기 위함
- 유형: 특정목적의 생활수준 측정형 (종합지수 있음)
- 생활영역 등의 설정: 구조개혁의 여러 정책 중에서 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대

한 정리를 하여, 구조개혁이 목표로 하는 9개 측면-거주하기 좋은 사회, 일하기 좋은 사회, 배우기 좋은 사회, 자녀키우기 좋은 사회,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 사회, 고령자가 활기있는 사회, 정보와 사람이 교류하기 좋은 사회, 환경이 좋은 사회,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 걸쳐 정리하였음 (PLI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를 (1) 1990년 기준(1990년부터 2001년까지) 및 (2) 1980년 기준(1980년부터 2001년 까지)으로 계산하여 새로운 활동영역별 PLI를 종합화한 생활종합지수로 공표하고 있음

- 지역별 지표: 없음
- 지표의 종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지표임
- 규범적 의미: 9개 측면별 지표는 규범적 의미를 지님
- 개별 지표수: 거주하기 편한 사회 4개, 일하기 편한 사회 5개를 필두로, 환경이 좋은 사회 4개까지 총 41개.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신국민생활지표(PLI) 생활평가축의 안전, 안심을 활용하여 지표수는 총 61개
- 지수화: PLI와 마찬가지로 변화율표준화지수를 사용. 1990년부터 2001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의 각 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여 기준년(1990년)이 100이 되도록 지수화함
- 종합화 · 가중치 부여: 9개 측면별 지표를 하나의 수치로 종합화하지는 않음.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제외한 8개 측면 각각에 대해서 개별지표의 표준화지수를 단순평균하여 측면지표를 작성함.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PLI 방식으로 함(개별지표의 가중평균)
- 의식조사와의 관계: 생활의 안심감에 대해서 내각부 정부공보실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생활의 만족감이 국민생활선호도의 충족도를 기초로 PLI의 8개 활동영역에 대하여 추계하여 검토하고 있음

<표 4> 일본의 생활개혁 지수

구조 개혁의 측면	개별 지표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쓰레기 배출량, 화재사고 발생건수, 공원 면적, 재해피해액, 형법범 검거율, 거주실의 면적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플렉스타임제 채용기업비율, 자발적 실업자수, 경영상 이유 이직자 비율, 이직자 중 전직자 비율,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취업건수, 노동 손실일수, 유급 휴가율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저축제도 세대비율, 소비자 물가지수 절대 변화율, 실질연간수입, 공적연금 납부율, 파트타임 노동자 단위시간당 임금, 탈세처리건수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관리직 전문직 취업자비율, 고졸임금 신장율, 여성 관리직 비율, 여성 단위노동당 임금, 장애자 실고용율, 고령자(60~69세)취업율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사회교육 학급, 강좌수, 공민관에서 여러 집회의 실시건수, 사회적 활동시간, 관광여행인수, 체육시설 이용자수
항상심과 항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교원 일인당 아동학생 수, 특별비상근 강사수, 해외체재하는 유학생, 연구자, 교사수, 연장보육실시 시설수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식료품 소비자위험 정보건수, 소비자 행정담당 직원수, 기분장애 실진료일수, 체력조사 평균득점, 의료관계 소송 신규건수, 건강진단 인원수, 보험 의료비 지출비율

2004년도에 개정된 지표 체계임

## 2) 캐나다의 웰빙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 웰빙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건강(Health),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Time Us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다시 수십 개의 변수들로 측정된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작성주체

- ◊ 주체: 캐나다 웰빙지수(CIW)는 Waterloo 대학의 Applied Health Sciences 교수들과 관련 분야의 캐나다 및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CIW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재원: 초기에는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ACF)에서 지원하였으나, 이후에는 RBC Foundation, Province of Ontario, The Lawson Foundation, The J.W. McConnell Family Foundation, Canadian Council on Learning, University of Waterloo에서도 지원

### ○ 목적

◇ CIW는 GDP와 같은 협의적 수준의 경제적 척도를 넘어서 다차원적인 새로운 지표의 구성을 통해 캐나다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과 관련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 미디어, 지역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캐나다인의 웰빙에 대한 현재의 경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둠

### ○ 지표 특징

◇ 기존의 이론적 논의나 지표구성 연구들을 토대로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들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단, 객관적 지표가 주관적 지표보다 반드시 과학적이거나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

◇ 각 지표별로 방향성(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단일 지표인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산출함에 있어 이를 반영

### ○ 영역 구분

◇ CIW는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여러 개의 변수들로 측정

◇ CIW는 소위 “웰빙의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라고 불리우는 영역별 구성체계에 기반

- 중심: 웰빙이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사회와 캐나다인들이 진보하고 있는 양상을 측정하려는 CIW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

- 동심원: 인간이 웰빙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을 의미

▪ 중심의 1번째 동심원: 인간이 개인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으로 건강, 교육, 시간사용 포함

- 중심의 2번째 동심원: 지역공동체에서 전체 사회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 영역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는 공적 자원 (public resources)을 나타내며 생활수준, 공동체 활력, 여가 및 문화, 민주적 참여 등을 포함
- 중심의 3번째 동심원: 웰빙을 위한 생태체계자원(ecosystem resources)을 나타내며, 다른 원들과 영역들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

#### ○ 종합지수

- ◊ CIW는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등 8개의 영역들은 다시 8-10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이것들은 다시 핵심지표와 부가지표로 구성됨
- ◊ 각 하위영역의 핵심지표들을 이용하여 8개의 영역별로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의 전반적 추세뿐만 아니라 영역별 웰빙의 현상도 동시에 파악하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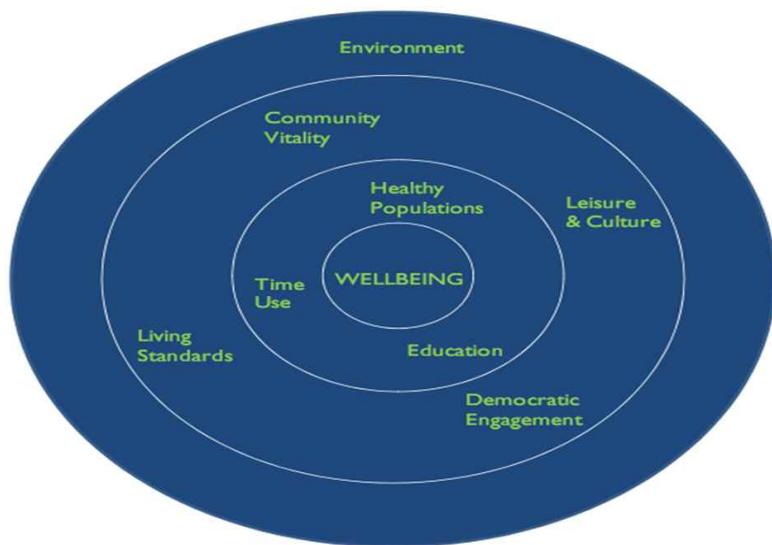
#### ○ 접근방식

- ◊ 웰빙에 대한 개념적 틀에 기반하는 Top-down 방식(이론적 접근)과 다양한 가용 자료들을 탐색한 후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Bottom-up(경험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는 Bi-directional 또는 실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영역구분 및 지표선정을 실시
- ◊ 이를 통해 이론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자료의 가용성 등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적인 지표를 구성코자 노력

[그림 1]은 웰빙의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로 불리며, CIW의 구성 영역들과 그 관계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만다라의 중심을 웰빙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사회와 캐나다인들이 진보하고 있는 양상을 측정하려는 CIW 프로젝트팀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가운데에 있는 웰빙은 세 개의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은 인간이 웰빙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한 가운데에 있는 원에서 첫 번째 원은 웰빙을 위한 개인적 자원 - 인간이 개인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 - 을 나타내는데 건강, 교육, 시간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은 지역공동체에서 전체 사회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 영역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는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을 나타내며 생활수준, 공동체 활력, 여가 및 문화, 민주적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원은 환경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웰빙을 위한 생태체계자원(ecosystem resources)을 나타낸다. 이 세 번째 원은 생태체계자원이 다른 원들과 영역들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기도 하다. 종합해서 보면, 만다라를 구성하는 전체 체계의 모든 구성요소들과 결정요인들을 알 수는 없지만 만다라의 모든 원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림 1]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



<표 5> 캐나다 웰빙 지수의 영역 및 측정 내용

영역	측정내용
생활수준	소득과 부의 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 안정, 직업안정성
시간사용	시간 사용과 통제 정도, 시간활용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건강	신체적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 접근가능성과 질 등의 환경
환경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교육	교육수준,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의 능력, 발전가능성
공동체 활력	이웃과의 관계와 활동, 소속감, 자원봉사 조직
시민참여	정치와 공공영역에서 시민참여,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공정성, 공평성 및 접근성,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 여부
문화와 여가	문화활동, 예술활동(행위, 시간, 영상 예술), 여가 활동

출처: Institute of Wellbeing, 2009,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First Report of The Institute of wellbeing([www.ciwb.ca](http://www.ciwb.ca))

### 3)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개관

- 작성주체: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평가함
- 목적: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은 문화적 전통과 환경 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부탄의 국정 운영철학으로 1998년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Sigme Singye Wangchuck) 부탄 국왕이 도입함. 물질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함. 동지표를 통해 지역별, 계층별, 성별로 부탄국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각종 정부 정책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사전평가를 실시함
- 지표 특징: 대부분의 항목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각 항목들의 기준선을 정하고 동 기준선을 넘으면 각 항목에서의 행복지수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며, 기준선에 미달하는 양으로 평가함(이러한 미달부분이 적으면 행복하다고 인식함)
- 영역 구분: △경제 △문화 △환경 △정부의 4개의 대 항목에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태계 △지역사회의 생명력 △생활수준 등 9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다시 72개의 하부 항목으로 분류함
- 종합지수: 각 항목별로 기준선을 정하고 동 기준선에 미달되는 비율(기준선 대비 현재 상황의 기준선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거리제곱. 제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부분에 대하여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을 합산함. 이렇게 합산된 값을 1에서 빼주면 총행복지수가 산출됨. 세부지표의 경우에도 각 지표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함.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행복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행복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됨.
- 접근방식(연역/귀납): 국민들의 정신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수를 계산함.
- 기타 시사점: 모든 항목이 설문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인식을 주로 조사하고 있으며, 설문항목들도 일반적인 정신건강 상태, 기도 횟수, 명상시간, 이기심을 느끼는 횟수, 질투를 느끼는 횟수, 마을전통에 대한 이해 등 매우 주관적인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2005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9년에 최초

## 의 국민총행복지수가 산출되었음

동 지표는 단지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만 사용하지 않고 실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부탄정부는 국민총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수립하고 집행함. CBS는 GNH의 작성에 집중하고 있고, GNH위원회는 정부의 기획 부서로 GNH지수에 기초하여 GNH를 증진시키는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있음. GNH위원회는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나 이슈에 대하여 자원배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GNH지수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정책을 개발함. 실제로 GNH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이며, 재무성장관이 부위원장과 맡고 있고, 10명의 장관과 국립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구성원임

부탄은 ‘통제’가 쉬운 작은 나라일 뿐 아니라, 외부와도 고립되어 1998년에야 TV 방영이 시작됐을 정도이고 민간 신문사도 두 곳뿐인 국가임. 이로 인해 부탄의 행복은 ‘무균(無菌) 상태의 행복일 뿐’이란 평가도 있음

<표 6> GNH의 영역별 세부내용

영역	세부내용	주요지표
심리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과 주관적 웰빙을 의미	스트레스 지표, 영성지표, 감정균형지표
시간활용	일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파악	총 근로시간 지표, 수면시간 지표
지역사회 생명력	지역사회 및 개인 간의 상호관계 파악	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 지표, 사회화 지표, 친족 친밀도 지표
문화	문화 전통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중점	방언사용 지표, 기초 인식 지표, 가치전달 지표, 장인 기술 지표, 전통스포츠 지표, 지역사회 축제 지표
보건	국민의 건강상태와 결정요인, 의료시스템	건강상태, 건강지식 지표, 보건장벽 지표
교육	교육성과 및 교육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웰빙 측면의 영향력과 효과 평가	교육달성을 지표, 지역 언어 지표, 민속 및 역사적 문헌 해독 지표
생태계	국내의 수요와 공급이 부탄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생태환경 악화지표, 생태환경 지식지표, 조림지표
생활수준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 상태 평가	소득지표, 주택지표, 식량 안보 지표, 곤궁 지표
좋은 거버넌스	정부의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평가	정부성과 지표, 제도에 대한 신뢰 지표

자료: 통계청, 2009, 「OECD 세계포럼의 이해 - 제 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pp. 50.

#### 4) 네덜란드의 웰빙지수(Wellbeing in Netherlands):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개관

- 작성주체: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LSI)는 1974년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CP)에서 개발, 네덜란드 통계청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축적
- 목적: 네덜란드 국민들이 삶 속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나아가 사회가 안고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설명하고자 함. 보다 구체적으로,
  - 첫째, 전반적인 삶의 질을 설명
  - 둘째,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평가
  - 셋째, 시계열 변화를 관찰
  - 넷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세부 하위지표들의 발전과정을 추적
  - 다섯째, 더 넓은 개념들 안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설명을 시도
- 지표 특징: 상황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만족의 정도는 의도적으로 제외 시켰으며, 주관적인 판단이 제외되어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함
- 영역 구분: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LSI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8개의 영역, 즉,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 참여, 스포츠로 구분하였음. 각 영역별로 세부 지표항목이 존재하며, 총 19개에 달함
- 종합지수: 비선형정준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지표 간 가중치를 설정하여 종합지수로서의 LSI를 도출하고 개별 영역이 LSI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갖는가를 분석함. 이렇게 도출된 LSI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19개의 지표가 통합된 하나의 종합적인 지수임. 이러한 종합지수는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 주며, 누적된 결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영역 간 상호 보완작용도 파악할 수 있게 함
- 접근방식(연역/귀납): 삶의 질과 상관성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원, 환경, 공공서비스, 주관적 행복과 같은 부문들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제반 영역들과 함께 하나의 개념틀로 설명됨. top down 방식의 접근
- 기타 시사점: 주관적 지표로서의 평가지표를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로

서의 설명지표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 지향적 지표체계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종합지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계열적 변화를 관찰하고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각종 통계분석 가능  
지표 선정 및 단일 지수화와 관련하여 LSI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논쟁에 대해 열린 자세 견지

### 5) 호주진보척도(MAP: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개관

○ 작성 주체와 목적: 국민들의 삶이 진보하고 있는지(progress), 그리고 삶의 수준의 발전이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sustainability)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2000년에 처음으로 호주진보척도(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음. 2002년에 그 결과를 담은 첫 보고서를 출판. 뒤이어 2004년과 2006년에 주요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05년부터는 매년 호주 통계청 웹 사이트를 통해 현황 보고서를 올리고 있음

진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 호주의 특징이며,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지역공동체에서 입안된 정책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지지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장려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함

○ 영역: 본질적으로 세 영역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구도를 체택하고 있으나, 이 중 사회적 영역을 1)개인에 직접적 초점을 두는 측면과 2) 함께 사는 것과 관련된 측면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평가의 편리성 때문에 이 세 영역을 임의적으로 나누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영역간의 상호 영향력(transaction)을 강조하는 입장. 진보와 관련된 표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사회: 건강, 교육과 훈련, 일, 범죄, 가족/지역사회/사회적 결속력, 민주주의 /국정운영/시민권

경제: 국민소득, 국부, 세대별 경제적 안녕, 주택, 생산성

환경: 생물 다양성, 땅, 육수, 바다/하구 퇴적지, 대기, 폐기물

○ 표준화/종합지수: 호주진보척도는 종합지수 대신 지표묶음법 (suite-of-indicators approach)을 채택. 지표 묶음 접근법은 삶이 더 좋아지는지, 혹은 나빠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으며, 각 통계적 자

료를 개인의 가치와 선호들과 융합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국가의 진보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는 입장. 세 영역(사회, 경제, 환경)별로 진보에 대한 일련의 표제 지표(headline indicators)들을 제공. 지표묶음법이 단일 종합지수(one-number approach)의 단순성과 통합적 계산 접근법(integrated accounting approach)의 복잡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 줄 수 있다고 봄

- top-down vs. bottom-up : 호주진보척도는 다음의 4단계를 걸친 top-down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첫 번째 단계: 세 가지 넓은 범위의 진보를 정의(사회, 경제, 환경)

두 번째 단계: 각각의 세 범위 안에서 잠재적인 진보 차원 목록 작성

세 번째 단계: 차원들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고 각각이 표제(headline) 차원 인지 보충 차원인지를 결정

네 번째 단계: 각각의 차원들에 통계적 수식을 주는 지표들을 선택

참고적으로, 호주 통계청은 사회 진보와 관련해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여론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자문, 호주 통계청의 정규 토의, 기타 회담 등을 통해 무엇이 측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

- 기타: “Outcome” 중심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예, 건강 영역의 대표 지표는 질병발병률). 하지만 process나 performance 관련 지표들도 영역에 따라 보안(예, 교육 영역에서는 학업지속률 참고)

객관적인 측정치(예컨대, 기대수명과 학력)를 바탕으로 한 진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행복)이나, 측정하는 데 있어 현재 일반적으로 합의된 척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정치적 자유)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피하려고 함.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

진보(progress)의 최종적 의미와 정의를 내리는 주체가 호주 통계청이 아닌 호주 국민이라는 열린 입장. 진보가 호주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multidimensional)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삶의 영역간의 복잡한 상호작용(transactions)을 강조

## 2. 국제비교 목적의 연구

### 1)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UNDP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에서는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은 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다. 인간개발지수의 구성은 세 가지 차원의 산술평균으로 세 가지 지수를 더한 뒤, 3으로 나누어 산출된다<sup>4)</sup>.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177개국 중 1위는 노르웨이(0.965)가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26위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캐나다 등의 나라들이 높게 나타났다(UNDP, 2006).

인간개발지수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측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비교가 용이하다. 그러나 지표수가 적고 단순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표 7> 인간개발지수의 구성 지표

차원	지표	차원지수
A long and healthy life	Life expectancy at birth	평균수명 지수
Knowledge	Adult literacy rate 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 교육기회	교육지수 = 2/3(Adult literacy index) + 1/3(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GDP per capita	GDP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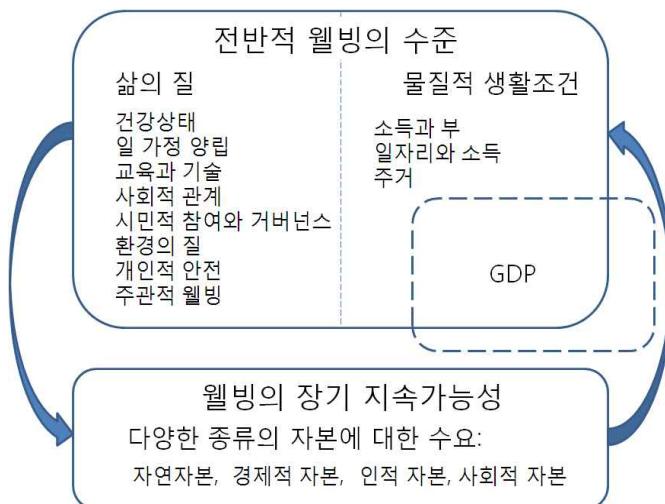
### 2) OECD의 삶의 질 지수(How's Life Index)

OECD에서는 2011년 50주년을 맞이해서 Better Life Initiative를 시작하면서 웹기반으로 How's Life Index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망라한 11개 분야에 걸쳐 작성되며, OECD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웹페이지 방문자가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역별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OECD의 How's Life에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물질적 생활조건,

4)  $HDI = \frac{1}{3}(\text{life expectancy index}) + \frac{1}{3}(\text{educational index}) + \frac{1}{3}(\text{GDP index})$ .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세 축으로 하는 틀을 따르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적 변화와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하는 자료와 지표를 제공한다. 한국은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그림 2]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표 8> OECD How's Life 영역 및 지표

영역	지표
주택	사람별 방수, 기초설비를 결여한 가구들
소득	가구가처분소득, 가구 금융재산
일자리	고용율, 장기실업률
공동체	지원네트워크의 질
교육	교육성취, 학생들의 독서능력
환경	대기오염
거버넌스	투표율, 법제정시 차문
건강	기대여명, 자기보고식 건강수준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안전	살인율, 강도피해
일-생활 균형	장시간노동자비율, 자녀가진 여성의 고용율, 여가 및 개인시간

### 3. 사례검토 결과

'삶의 질' 지수 관련 연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는 있으나, 국가단위로 '삶의 질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 통계기관에서는 종합지수가 아닌 사회지표나 사회보고서의 형태로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 및 지표들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캐나다에서는 몇 년 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캐나다 또한 국가 통계 기관이 아닌 관련 연구소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일본 「신국민생활지표」의 경우는 국가단위의 삶의 질에 대한 시계별/지역별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된 지수로써 현재 우리의 연구목적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1999년 이후는 작성이 중단된 상태이다.

국제비교 연구들의 경우는 매년 지속적으로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비교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이 국가 간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서 지표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간의 순위나 점수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간 비교를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일부 지표만으로는 한 사회의 전체 영역에 걸친 삶의 질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삶의 질 지수를 목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작성되는 사례들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역 및 지표 구성에 있어서 삶의 질 산출 사례 뿐 아니라 각 국의 사회지표를 포괄하여 ‘삶의 질’을 보여주는 관련 연구들의 측정사례를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종합지수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자료의 지수산출방법을 참고로 하여 검토하였다.

# 제3장 삶의 질 지수 구성 체계 및 산출 방법

## 제1절 영역구성

### 1. 삶의 질 측정 영역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지 경제적 생산이나 생활수준보다는 광의적 개념으로, 우리 생활을 구성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물질적 차원이 아닌 생활환경이라는 점에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Stiglitz et al., 2009). 따라서 삶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관심영역 구성에서 고려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1960~70년대 진행된 UN, OECD 등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였다. 1970년 구축된 개별 국가의 사회지표 체계가 이들 국제기구의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영역 구성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선행사례로 검토한 국가적 차원의 삶의 질 측정사례의 관심 영역 구분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자료들의 영역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13개 영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준 「국민 삶의 질 측정」의 10개 영역을 참고하였으며, 국외에서는 2011년도 5월에 공표된 OECD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Better Life Initiative의 How's Life의 11개 영역 구분을 참고하였다.

기존 삶의 질 지수나 웰빙지수를 산출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이들 지표와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은 경제적 조건, 교육, 건강, 환경, 안전, 여가, 사회관계(공동체) 등이다. 통계청의 기존 삶의 질 지수에서 제시된 10개의 관심영역은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 안전, 가족, 환경, 사회통합, 문화/여가 영역이다. OECD의 How's Life 에서는 여기에서 가족과 문화/여가가 빠지고, 일-생활 양립 (work-life balance), 거버넌스(governance),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 추가되어 11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최근 발간된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8가지 요인, 즉 보건, 교육, 시간활용, 정치 참여와 지배구조, 사회적 연결, 환경, 개인의 안전, 경제적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영역구분을 종합하여 경제적 조건,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가족과 공동체, 시민적 참여, 환경, 안전, 주관적 웰빙의 9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기존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측정’ 및 OECD의 How’s Life 지수에서는 경제적 조건을 주거, 소득, 노동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영역을 경제적 조건 하나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것은 경제적 안정을 단일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와 같다. 기존 통계청 삶의 질 지수와 본 지수의 영역 구분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주관적 만족을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많은 삶의 질 측정에서는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웰빙 지표를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OECD의 How’s Lif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ECD의 How’s Life에서 일-생활 균형은 가족 및 공동체의 가족생활 및 여가 및 문화의 여가로 나뉘었다. 또한 기존 삶의 질 지수에서 가족을 따로 구분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공동체로 통합하였다.

<표 9> 삶의 질 영역 구분의 비교: 통계청 기준 삶의 질 지수 및 OECD How's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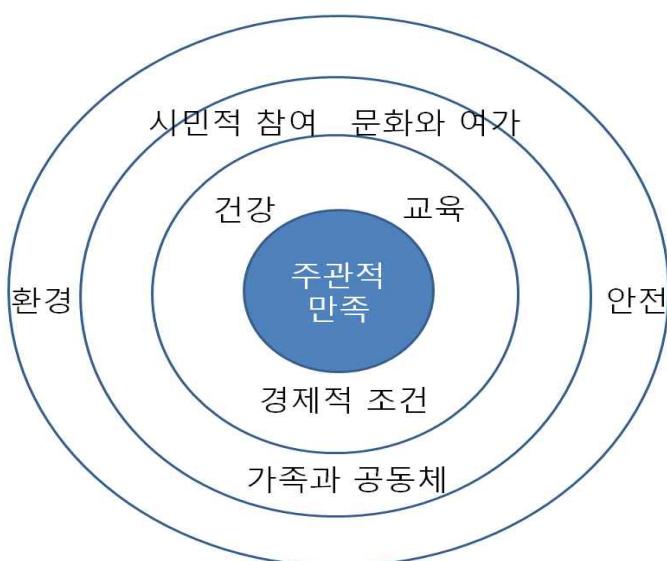
통계청 삶의 질 영역	본 연구의 영역구분	OECD How's Life
	주관적 웰빙	life satisfaction
주거/교통		housing
소득/소비	물질적 조건	income
노동		jobs
건강	건강	health
교육	교육	education
사회통합		community
가족	가족과 공동체	
문화/여가	문화와 여가	work-life balance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governance
안전	안전	safety
환경	환경	environment

본 연구의 9개 영역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동심원적 모형은 캐나다의 CIW 지수에서 사용하는 만다라(madala) 모형을 채택한 것이며, 동심원의 안에 개인이 그리고 중간에 사회적 관계가 그리고 맨 바깥쪽에 환경적 조건들이 위치한다.

이 동심원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해 단계별로 우리는 바람직하고 좋은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경우 “역량 있는 개

인” 즉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와 집단의 경우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즉 사회적 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적 참여가 활발하며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즉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림 3] 삶의 질의 만다라(본 연구)



## 2. 개별 영역들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

삶의 질 측정을 위한 9개의 각 영역들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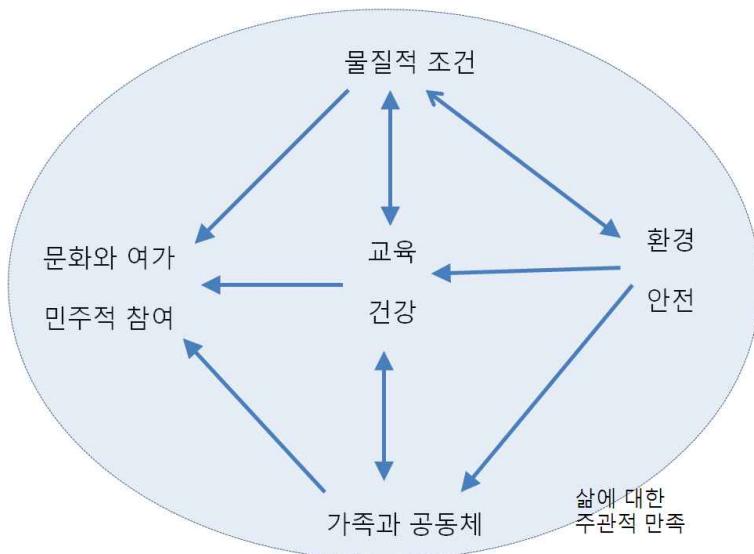
우선 삶의 질에 대한 각 영역의 관계는 심리학자 셀리그만의 행복한 삶에 대한 다음의 주장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셀리그만(Seligman, 2002)은 행복한 삶이란 다음의 다섯 가지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 즐거움(pleasure): 맛난 음식과 쾌적한 휴식 등
- 몰입(engagement 혹은 flow): 즐거우면서도 도전적인 활동에 대한 몰입
- 관계(relationship): 행복이나 삶의 질의 매우 신뢰할만한 지표로서 사회적 연계
- 의미(meaning): 자신에 비해 더 거대한 무언가에 대한 추구나 소속감의 인지

- 성취(accomplishment): 뚜렷한 목표의 실현

이러한 다섯 가지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는 9개의 영역들이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외적 환경으로서 환경과 안전, 그리고 자원으로서 물질적 조건 그리고 건강은 모두 즐거움의 경험을 제공한다. 만약 환경이 훼손되거나 안전이 위협받고 물질적 자원이 결핍되거나 건강이 손상되면 즐거움은 사라지게 된다. 몰입과 의미는 문화와 여가 및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경험에 주어진다. 민주적 참여를 통해 개인을 넘어선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또한 문화와 여가를 통해서 도전적 경험을 갖고 몰입을 하게 된다. 관계의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가족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과 경제적 활동을 통한 소득과 부는 성취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4] 삶의 질 영역 간의 영향관계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위의 그림은 이러한 영역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물질적 조건에서는 경제적 활동 및 자원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연결망 및 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Trewin, 2001). 일자리가 없는 개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여부

와 아울러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Trewin, 2001). 소득과 부와 같은 경제적 자원이 없으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개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빈곤 계층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은 복지의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 중에서 소득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주거는 단순히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는 안전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공동체 소속, 투자의 수단 등으로도 기능하고 있다(Trewin, 2001). 주택의 소유는 거주공간의 확보 뿐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서 재산의 가치를 가지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주거공간에 대한 비용(월세, 전세금 이자 등)이 수반되므로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주택의 소유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이나 주거환경, 주택가격 등은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영역에서 삶의 질 측정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교통시설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건강은 보통 질병이나 장애의 유무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육체적인 것 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도 포함된다. 질병이나 장애는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며 개인의 자유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함 및 경제적 손실까지도 수반하게 된다(Trewin, 2001).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구성원들의 건강악화나 전염병의 발생 등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건강 영역에서는 얼마나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그 기반이 잘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건강상태와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나 정부정책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및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며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성취는 좋은 직업과 고소득, 사회적 계층의 상승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성취는 직접적으로 직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며,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기회와 교육의 성과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은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의 삶의 질 측정은 사회의 교육정도가 어떠한지,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한지, 교육성취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통해서 측정가능하다.

가족은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으로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및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며(Trewin, 2001)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connection)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돌봄 정도, 화목한 가족관계의 유지는 개인이나 사회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가족 이외에도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웰빙 측정(Trewin, 2001)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은 공동체의 연결망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즉 공정한 분배, 질서와 정의가 구현되는 제도적 토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존재하는 사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사회자본’<sup>5)</sup>이라고 한다(Trewin, 2001).

따라서 가족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정부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서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질과 그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

시민적 참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이다.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참여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민적 참여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을 통해서 주관적 만족이 높아진다.

5) 사회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호주통계청에서는 사회자본을 “개인들의 행동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의 웰빙에 향상을 가져오는 상호작용들을 촉진시키는 공유된 사회적 가치와 신념들 및 태도들의 위계적 구성체”로 지칭한다(Trewin, 2001).

문화와 여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가의 개념은 산업화 이후 집을 떠나 휴식이 없는 노동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발생하였다. 즉 여가는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활동이 아닌 그 외의 자유시간 활동과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Trewin, 2001). 문화와 여가 생활은 직업적인 문화활동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는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개인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생활 또는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안전 영역은 사회가 범죄와 재해,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범죄나 전쟁, 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불안감은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안전한 사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 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여부는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사회의 안전하거나 또는 위험한 정도,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환경 등을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사회지표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그 중요도가 높아져 환경 지표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후변화나 생태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자연자원의 고갈 등이 문제시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정도와 자연자원의 보호, 생태계 유지 등이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환경은 환경 관련 질병발생 등으로 건강과도 관련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발생, 자연자원의 감소, 생태환경 유지 등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환경은 단순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적절한 기후와 쾌적함 뿐 아니라 자연자원의 생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 측정은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지, 정부나 개인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만족은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 지표들과 달리 각 개인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나타내며 평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의미한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지표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객관적 지표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적 측면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이외에도 주관적 측면에서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아울러 각 영역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주관적 측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 제2절 영역별 지표선정

### 1. 지표 선정 기준

삶의 질 측정을 위해 먼저 삶의 질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9개 영역을 선정한 다음, 실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에 앞서 각 영역별로 측정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세부 주제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내용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삶의 질 측정에 포함될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지표는 작성되는 형식에 따라서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된다. 객관적 지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지표, 그리고 태도나 가치가 아닌 현재의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예를 들면, 흡연율, 문화활동 참가율 등)이며,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객관적 지표는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나 상황,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수치를 보여주며, 주관적 지표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평가, 태도 등을 보여준다.

객관적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토대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지표의 선정 기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각 영역의 세부 주제별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relevancy)을 고려하였다. 즉 지표의 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지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과의 관련성 혹은 영향의 정도는 삶의 질 측정에서 지표의 타당성(validity)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지표의 삶의 질에 대해 영향이 분명한 방향을 보이는 즉 지표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 혹은 악화되는 명확한 관계를 갖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삶의 질에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지표의 경우에는 지표에 포함시켰다.

둘째, 삶의 질 영역별로 지표를 선정하면서 이 지표들의 신뢰성(reliability)을 고려하였다. 지표들이 경험적 현실을 대변하는 측정치인 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바로 측정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질 측정에서 아무리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면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삶의 질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때 지표가 신뢰성이 낮다면 시계열적 비교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지표의 방향성에 있어서 규범적인 지수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 공통된 목적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셋째, 남녀차별의 측정이나 고령사회 측정과 관련된 일부지표를 제외하고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자료보다는 포괄범위가 넓은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표를 선정할 때에 가능한 한 한국적 현실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국제 비교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려는 삶의 질이 국제적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종종 국제비교 가능성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비교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국적 현실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절충하여 선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가득성 역시 지표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지만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못하였다. 만약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라면 향후 국가통계 체계에 추가해서라도 타당성 높은 지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 단계를 통해서 선정된 지표들은 최종적으로 각 영역 내에서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는 가능하면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대비해서 최종 목표보다 좀 더 많은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주관적 지표는 각 영역별로 또한 전반적인 삶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사회지표에 추가하였다.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 영역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이상 포함하였다.

## 2. 영역별 세부 주제 및 지표 선정

본 연구진은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이 경제적 조건, 교육, 건강, 가족과 공동체,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문화와 여가, 안전, 환경 등의 여덟 가지 영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주관적 만족감은 아홉 번째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질에서는 본 연구팀이 각 영역별로 선정한 세부지표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팀이 선정한 영역별 세부 지표는 아래 <표 10>과 같다. 이어지는 <표 11>은 통계개발원과 OECD가 개발한 삶의 질 지표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삶의 질 측정 지표 구성안

대분류	중분류(29)	객관적 지표(55)	주관적 지표(28)
소득/ 소비 (15, 4)	소득, 소비 및 자산	1인당 GNI(+), 균등화된 가구중위소득(+), 균등화된 가구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균등화된 가구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고용 및 임금 복지	고용률(+), 실업률(-), 균로자평균근로소득(+) 공적연금가입률(+), 실업급여 수혜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일자리만족도(+)
	주거	1인당주거면적(+), 주거빈곤가구비율(-), 통근/통학소요시간(-)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
교육 (8, 2)	교육기회	유치원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학업 중단율(-)	
	교육자원	교원1인당 학생수(-), GDP대비정부부담공교육비비중(+), 학생1인당 사교육비지출액(-)	
	교육성과	PISA 백분위 순위(+)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만족도(+)
건강 (6, 2)	건강상태	기대수명(+), 건강보정수명(+),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소득계층별)건강집중(불평등)지수(-)	주관적 건강(+), 스트레스인식정도(-)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문화/ 여가 (4, 2)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여가시간(+)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1인당평균국내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률(+), 독서인구비율(+)	
가족/ 공동체 (5, 4)	가족관계		가족집총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수(+),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앞의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29)	객관적 지표(55)	주관적 지표(28)
민주적 참여 (2, 8)	정치참여	선거참여율(+)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시민적 의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시민적 덕목(+)
	시민적 권리		부패인식지수(+), 시민적 권리인식(+)
	관용 신뢰		이민에 대한 태도(+) 일반신뢰(+), 제도신뢰(+)
환경 (9, 2)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대기 물	미세먼지 농도(-),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 수질 오염도(-), 상수도 보급률 지역별 격차(-)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비율(+)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의 질	1인당 도시공원/녹지면적(+)	체감환경 만족도(+), 환경문제불안도(+)
안전 (7, 2)	범죄	강력범죄발생률(-), 범죄피해가구(-)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도로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건수(-), 재해율(-), 화재발생건수(-)	
주관적 만족 (0, 2)			주관적 만족감(+), 긍정 부정 정서 경험의 균형(+)

<표 11> 통계개발원 ‘삶의 질 측정’과 OECD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통계개발원 “삶의 질 측정”				NIW 지표: 범주(세부지표)
대분류	중분류 (27)	객관적 /주관적	세부지표	
소득/ 소비	소득수준	객관적	1인당 GNI, 가계부채비율, 월평균 흑자율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국민순생산, 가구가처분소득)
		주관적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객관적	소비자물가지수	
		주관적	소비생활만족도	
건강	소득분배	객관적	소득집중도, 노동소득분배율, 상대적 빈곤율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균등소득분배) 사회적 요인-형평성(Gini 계수,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객관적	건강검진수검률, 생활체육참여비율, 흡연율, 1인당 주류소비량	
	의료서비스	객관적	천명당 의사수, 십만명당 의료시설 병상 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객관적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암사망률	
노동	건강상태	객관적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암사망률	사회적 요인-건강(출생시 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잠재적 수명손실)
		주관적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고용상태	객관적	비농가실업률,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실업급여 수혜율	사회적 요인-자립(고용율, 미취업가구율 비율)
		객관적	주당근로시간, 실질임금총액, 성별임금 격차, 산업재해율	
	근무환경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	사회적 요인-형평성(성별임금격차)

<앞의 표 계속>

통계개발원 “삶의 질 측정”				NIW 지표: 범주(세부지표)	
대분류	중분류 (27)	객관적 /주관적	세부지표		
교육	교육기회	객관적	고등교육기관 이수율, 유치원 취학률,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및 취업률, 평생교육 참여율	사회적 요인-자립(평균교육년수, 평균 학업성취도)	
		주관적	교육기회 만족도		
	교육자원	객관적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장서수,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주관적	교육비 부담		
	교육효과	주관적	학교생활 만족도		
	주거/교통	객관적	주택전세가격지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자가거주비율, 주택보급률		
주거/교통		객관적	노후주택비율,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공원 및 녹지면적		
		주관적	주택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교통의 질	객관적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관적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안전	안전상태	객관적	강력범죄발생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고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집단식 중독 발생 환자수, 화재발생건수	사회적 요인-사회적 연대(감옥수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주관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두려움		
	안전 인프라	객관적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주관적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야간보행 두려움		
	가족형성	객관적	조혼인율, 합계출산율, 조이혼율		
	가족형태	객관적	소년소녀가장 가구비율, 한부모 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가족	아동양육	객관적	보육시설 정원(인구비), 보호시설 아동비율		
	가족관계	주관적	가족관계 만족도		
환경	환경상태	객관적	수질오염도, 소음공해도, 미세먼지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농약사용량	사회적 요인-사회적 연대(자살률)	
		주관적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환경관리	객관적	자원 재활용비율, 환경보호지출액		
	사회적 배제	객관적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자살률, 공공연금 수급자 비율		
		주관적	사회이동 가능성,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자살충동 경험		
사회 통합	사회자본	객관적	사회단체 참여율, 헌혈자 비율, 자원봉사자 비율, 민간 기부자 비율	사회적 요인-사회적 연대(지역사회활동 참여)	
		주관적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부패인식지수		
	문화기반시설	객관적	문화예술 시설수, 도서관 열람석수, 공공체육시설 면적, 예술행사수		
	문화/여가 자원	객관적	평균 여가시간, 문화여가서비스 지출비율		
		주관적	생활시간 부족 정도		
	문화여가활동	객관적	문화활동 참가율, 국내여행일수		
		주관적	여가활용만족도	주관적 생활만족도(생활만족도)	

## 1) 물질적 조건

### (1) 개요

물질적 조건은 1차적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생물체로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며, 2차적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독자적으로 생존하다가 소멸되어 가는 단순생명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회적 존재, 즉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과 생활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물질적 조건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이나 교육, 문화, 건강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 등은 모두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 적절한 물질적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현대적 의미에서의 삶의 질에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되는 대부분의 국가나 사회에서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물질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증대할수록 삶의 질도 올라갈 개연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이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에 관한 기존 논의 중 대표적인 논의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득은 물질적 조건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행복은 삶의 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보다 광의로 해석할 때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사이에는 광의의 이스털린의 역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질적 조건은 최저한의 충족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 고려 대상이 되며, 최저한이 충족된 이후에는 절대적인 물질적 수준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최저한의 물질적 조건의 충족여부는 시기와 공간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것이다.

물질적 조건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한으로 사용 및 배분, 처분이 가능한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의 보유량과 물질적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의 보유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적 자원의 보유는 절대적인 기준의 보유량과 상대적인 기준의 보유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절대수준으로서 물질적 자원의 보유량은 흔히 소득수준 및 자산보

유량으로 표현되며,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량은 물질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량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소비라는 과정을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중에서 소득은 물질적 자원의 보유량에 대한 핵심지표로서 소비 행위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소비를 위한 자산축적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은 금융자산, 주거용 실물자산, 비주거용 실물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주거용 실물자산은 주거서비스의 소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자산과 비주거용 실물자산은 일반적으로 추후 소득으로의 변환과정을 거쳐서 소비경로를 통해 삶의 질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적 자원의 보유량은 흔히 소득분배 또는 자산분배로 표현된다. 소득분배는 소비역량을 나타내는 소득이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득분배 상태는 개인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므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항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한국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질은 자기 자신의 소비수준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인들의 소비역량을 나타내는 소득의 분배를 물질적 조건 항목에 포함하였다<sup>6)</sup>.

소득이나 자산의 물질적 자원보유량은 최종산출물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흔히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 줄여서 경제활동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기회유무, 경제활동에서의 정당한 보수 수급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질 등이 궁극적으로는 소득이라는 최종 산출물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은 각각 경제활동 기회유무,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 수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질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들이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한 경제활동의 질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의 개념을 포함할 때 물질적 자원의 창출과정은 물질적 자원의 창출

---

6) 자산분배는 데이터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지속능력과도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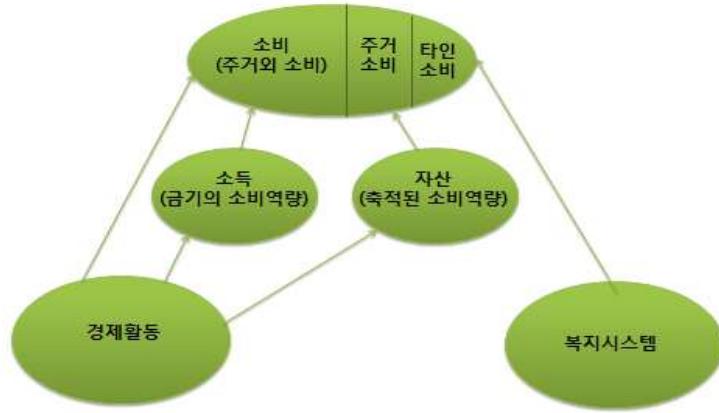
주거는 거주하는 공간에서 향유하는 주거서비스를 의미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 소비 및 자산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한국 상황에서 주거서비스의 확보여부와 안정성 그리고 크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를 별도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개인들이 향유하는 삶의 질은 현재의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은 보유한 자산의 축적수준이나 경제활동의 수준 또는 질 등에 의존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복지시스템의 구축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지시스템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힘으로 물질적 조건을 창출하기 어려워 물질적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이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복지시스템은 물질적 조건 중에서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중간영역별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소득 및 소비, 자산 변수와 소득분배 변수,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 주거서비스 수준 및 복지시스템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들 사이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개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 다음의 [그림 5]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소비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소비수준에는 자신의 소비(주거소비와 주거외소비로 구분)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비도 포함된다. 소득은 금기의 소비역량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자산은 축적된 소비역량을 의미한다. 고용은 소득 및 자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한편 복지시스템은 개인의 소비역량이 소진되었을 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의미하는 바, 이는 다시 소비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5] 물질적 조건의 중범위 분류간 관계



## (2) 세부지표의 설명

개인들의 삶의 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물질적 역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삶의 질과 관련된 물질적 조건 지표는 양자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2>는 물질적 조건에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2> 물질적 조건의 세부지표

중분류	객주관적 지표	지표명	지표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소득, 소비 및 자산	객관적 지표	1인당 GN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li> <li>- GNI(국민총소득)를 총인구로 나눈 값</li> <li>* 명목GNI/연장인구</li> <li>* 명목 GNI : 그 해 생산물에 그해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li> </ul>	한국은행, 국민계정
		균등화된 가구 중위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구당 중위소득</li> <li>* 소득균등화 : 가구원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다른점을 반영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표준화하기 위해 소득을 조정, 방법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눔</li> <li>* 도시가구(2인이상 비농가) 대상</li> </ul>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균등화된 가구 중위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구당 중위소비</li> <li>* 도시가구(2인이상 비농가) 대상</li> </ul>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 평균 순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당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가구평균을 계산</li> </ul>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균등화된 가구가처 분소득 지니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구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li> <li>* 지니계수 : 전체가구(인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li> <li>* 도시가구(2인이상 비농가) 대상</li> </ul>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상대적 빈곤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OECD 기준)의 인구 비중</li> <li>-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부의 불균형정도를 추산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가능할 수 있는 주요 소득분배지표</li> <li>* 도시가구(2인이상 비농가) 대상</li> </ul>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앞의 표 계속>

종분류	거주관적 지표	지표명	지표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소득, 소비 및 자산	주관적 지표	소득 만족도	+	-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소비생활 만족도	+	-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고용, 임금	객관적 지표	고용률	+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취업자/ 15세 이상 인구)×100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실업률	-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100 * 실업자 : 구직기간 4주 기준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복지	객관적 지표	일자리 만족도	+	-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공적연금 가입률	+	- 18세 이상 취업자 중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율 · (공적연금가입자수/18세이상 취업자수)×100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실업급여 수혜율	+	-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의 비율 · (실업급여 수급자수/실업자수)×1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금지급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거	객관적 지표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 OECD 요구기준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지출: 사회적 위험에 직면에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보건복지부, 행정통계
		1인당 주거면적	+	- 가구원수 대비 주택의 거주공간이 적절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총주거면적/총인구 * 주거면적 : 사용면적(전용면적) 기준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주거 빈곤가구 비율	+	- 국토해양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총가구수)×100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개정된 기준('11.5.27)을 적용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통근/통학 소요시간	-	- 통근과 통학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여 주거환경 및 교통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통근/통학시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관적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	+	- 현재 살고계신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해당없음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각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소비 및 자산 항목은 1인당 GNI, 균등화된 가구 중위 소득, 균등화된 가구 중위 소비, 가구 평균 순자산, 균등화된 가구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상대빈곤 비율로 구성된다. 아울러 주관적 지표로서 소득 및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된다.

1인당 GNI는 국민계정에서 산출되는 1인당 국민소득(GNI)을 의미하며, 원화표시

실질가격 기준 또는 달리표시 명목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균등화된 가구 중위 소득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산출된 가구 가치분소득의 중위값을 의미 한다. 이 지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격기준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국민계정의 국민소득이외에 가구가처분소득도 사용하는 이유는 국민계정의 1인당 소득과 가구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최근에 와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국민계정의 소득이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균등화된 가구 중위소비는 OECD의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산출된 가구의 소비지출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가구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것이다. 가구 평균 소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격기준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가구 소득은 금기의 소비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가구 자산은 축적된 소비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가구 평균 순자산은 가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금액의 평균을 의미하며,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때 자산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바, 가구의 소비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광의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의 소비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비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소득분배상태를 고려한다. 이론적으로는 소비분포상태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소비의 경우에는 소득 이외에 부채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역량을 나타내는 소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균등화된 가구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의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산출된 가구의 가치분소득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역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다.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계층을 상대로 한 소득분배지수인 반면 빈곤층의 비율도 중요하다. 상대빈곤 비율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산출된 가구의 가치분소득의 중앙값 50%미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것 역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다.

객관적 조건 뿐 아니라 주관적 삶의 만족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도 주관적 만족도를 지표에 포함하였다. 소득 및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질문한 통계청 사회조사의 항목에 대한 응답 중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물질적 조건의 창출과정은 경제활동으로 측정한다. 경제활동은 그 자체로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다. 고용률은 15~64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높은 노인고용률임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 15~64세 인구로 한정한다.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즉 15~64세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노력을 하였으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를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실업률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비농가실업률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되는데 산업별 실업률이 개념적으로 정의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실업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비농가실업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삶의 질 지표 작성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바, 국제비교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 비농가실업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양적인 지표인 반면,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은 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실질화하여 사용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전 취업자(근로자, 비근로자 포함)의 평균소득이 더욱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지만, 현재 동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평균소득으로 한정하였다. 향후 자료가 가용해 지는 경우 전 취업자의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역시 고용 및 임금 관련 주관적 지표로서 포함되는데,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5점 척도로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 중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비율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 부분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1인당 주거면적과 주거 빈곤가구의 비율, 그리고 통근 및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용한다. 가구원 1인당 평

군주거면적은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패널조사(2년 주기)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다. 주거의 경우에도 다른 가구들의 주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거 빈곤가구 비율을 정의할 수 있는데, 현재 동 분야에서는 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주거 빈곤가구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최저주거수준 미만가구의 비율 역시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가능하다. 통근과 통학 소요시간은 통근과 통학시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주거환경 및 교통의 질을 파악한다. 이것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항목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득 및 자산이 개인적 차원에서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때, 사회적 차원에서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은 각종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 가입률은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가입대상자 대비 실제 가입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 연금은 가입률이 100%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가입률을 측정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률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전체 실업자 중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인 실업급여의 수혜율이다. 물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이나, 실업급여의 수준을 나타내는 실업급여의 대체율 등의 지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수혜율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것이다. 동 지표는 전체실업자 대비 실업급여수혜자의 비율로 정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통계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결합하여 산출한다.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복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연금과 실업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고령자관련 복지, 아동관련 복지, 장애인관련 복지, 여성관련 복지 등의 제 분야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으로 측정한다. 동 지표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준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을 의미하며, 기획재정부의 예·결산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2) 교육

### (1) 개요

개인들이 향유하게 되는 삶의 질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바, 교육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원리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교육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정 중에서 인간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과 동시에 게임의 룰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여건인 물질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안정성과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발전을 통한 사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다시 개인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교육은 개별 구성원의 삶의 질과 사회전체의 양적, 질적 여건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기제임과 동시에 각 구성원간 삶의 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교육은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대분류 영역으로서 교육은 다른 대분류 지표, 예를 들면 물질적 조건이나 문화와 여가 등의 지표보다 상당히 동질적인 중분류 항목을 갖는다. 이는 교육이라는 지표가 포괄하는 영역이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각국에서 사용하는 교육시스템이 약간의 제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질 제고를 통한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 제고를 견인하면서, 또한 개인 간, 계층 간 삶의 질 격차를 축소하는 기제로 작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단계에서의 교육 기회가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 자체에 대한 적절한 자원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육기회의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확충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자원투입의 확대가 동반되어야만, 교육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회의 확충과 교육재원의 투입확대는 결국 교육성과의 제고라는 경로를 통해 삶의 질 제고와 삶의 질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문의 중분류는 삶의 질과 연관되어 교육기회가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가(교육기회), 교육의 삶의 질 제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가(교육자원) 그리고 기회의 확충과 재원투입의 확충을 통해 실시된 교육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가(교육성과)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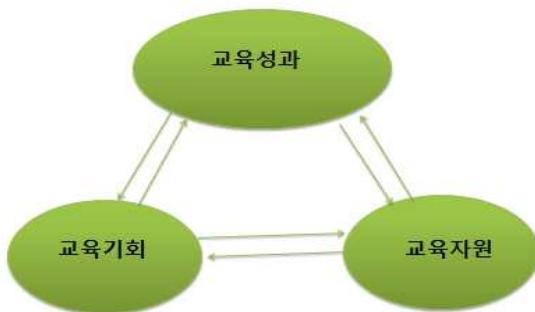
교육기회와 교육자원 그리고 교육성과는 각각 일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것이다.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경우 이는 교육자원의 투입증대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교육자원의 투입증대는 다시 교육기회의 확충을 유발할 것이다.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경우 전반적인 교육성과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교육기회의 확충이 사장되어 있는 일부 사회구성원의 잠재 능력개발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이는 대폭적인 교육성과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교육성과의 제고는 다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인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교육자원과 교육성과도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진다. 교육자원의 투입이 많아지고 적절히 활용되는 경우, 이는 교육성과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성과의 제고는 다시 교육자원에 대한 투입증대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중분류 항목간의 상호작용 관계는 다음의 [그림 6]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림 6] 교육의 중범위 범주간 관계



## (2) 세부지표의 설명

<표 13> 교육의 세부 지표

종분 류	객/주관 적 지표	지표명	지표 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교육 기회	객관적 지표	유치원 취학률	+	- 유치원 취학적령(3~5세) 인구 중 유치원(국/공/시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비율 · (유치원 취학적령 재적 학생수/취학적령 인구수)×10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고등교육 기관 이수율	+	-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 · (고등교육기관 이수자/25~64세 인구)×10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평생교육 참여율	+	- 평생교육은 지식과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삶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임 · 25~64세의 성인이 지난 1년간 평생학습에 참여한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학업 중단율	-	-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질병,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례에 의한 제적, 중퇴 및 휴학자)의 비율 · (중,고 학업중단자 수/중,고 재적 학생수)×10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교육 자원	객관적 지표	교원 1인당 학생수	-	- 전임교사 이상인 재직교원수 대비 재적학생수 · 초,중,고 및 대학 재적학생수/초,중,고 및 대학 교원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중	+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중 민간부담을 제외한 정부부담 공교육비 총액의 GDP 대비 비중 · (정부부담 공교육비 총액/GDP)×100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통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 전체 초중등교육 관련 사교육비 총액을 초중등학생수로 나눈 금액 · 초,중,고 사교육비총액/초,중,고 총학생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교육 성과	객관적 지표	PISA 과목별 점수 순위	+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 수학, 읽기, 과학 각 과목별 점수순위 백분율의 합산 (단, 2000년 1회부터 2009년 4회까지 모두 참여한 국가 내 순위임) * PISA : OECD에서 주관하는 각국의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기능력을 측정 시험	OECD
		학교교육의 효과	+	- 귀하는 현재 학교교육의 생활취업 및 직업에 활용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여부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표시합니다.) ① 매우 효과있다 ② 약간 효과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효과없다 ⑤ 전혀 효과없다 ⑥ 모르겠다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적 지표	학교생활 만족도	+	- 귀하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기회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교육 기회가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한국 상황에서 초중등단계의 교육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등이전의 교육기회, 즉 유치원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등이 기타 단계에서의 학교교육의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통상적인 정규학

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평생교육의 참여율도 정규학교 교육기회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기회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기회는 초기 단계의 교육기회 제공여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존재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동 중분류 항목에 포함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취학률은 유치원 취학 연령 아동수 대비 실제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을 의미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을 의미한다. 역시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정규교육 이외에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학위과정, 비학위 과정 포함)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각급 학교 중단율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로부터 재적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의 비율을 구한다.

교육을 통한 삶의 질 제고는 교육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적절한 교육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다. 교육자원의 투입은 이론적으로 고려할 때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부분만 고려한다. 향후에 질적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자원을 양적 지표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상정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공적 부담 및 사적 부담의 분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바 이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의 GDP대비 비중, 그리고 사교육비 금액을 포함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단순 평균 또는 가중 평균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GDP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중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특히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적 부담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만,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추계는 부족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구의 평균사교육비 지출액을 의미하는 데 역시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사교육 비의 단순 평균 또는 가중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 결

과를 활용한다.

교육기회의 확충과 교육재원의 투입확대의 최종 목표는 교육성과의 제고이다. 특히 교육부분에 대한 지표는 기회와 자원이라는 투입지표보다 교육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의 활용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객관적 지표로서 국제적 학력 테스트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과목별 점수순위를 사용하고, 주관적 지표로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한다. PISA에서의 과목별 성과는 수학, 읽기, 과학 과목별 순위순위 백분율을 합산하여 활용한다. 학교 교육의 효과 및 학교생활 만족도는 모두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 중 매우 효과(만족) 및 약간 효과(만족)의 비율을 합한다.

### 3) 건강

#### (1) 개요

건강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삶의 양 혹은 길이)와 더불어 얼마나 잘 사는가(삶의 질)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스티글리츠 위원회, 2009). 건강은 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즉 삶의 질이 어떠한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울러 다른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 다양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복지(welfare)와 안녕(wellbeing) 모두에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포함되어 왔다.

사회의 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난치병들이 의약의 발달로 치료의 희망이 보이게 되었고 아울러 다양한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 결과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강의 위험요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비만과 스트레스는 선진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또한 개별 사회 차원에서 건강 불평등의 문제 또한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상황이다.

건강에 대한 정의 또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건강은 흔히 질병, 부상이나 장애가 없는 즉 건강의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세계가정의학회에서도 건강을 신체적 기능과 관련시켜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주관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행, 적응 및 대처 능력”을 지닌 것을 정의한다(신호철, 1999).

결국 건강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즉 생존의 측면에서 이해 하던 것이 질병이나 장애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또 다시 일상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온 것이다. 긍정적인 능력으로 본 건강은 신체적 능력 외에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사회적 지지의 확보, 지역사회에의 참여, 정신적 건강과 안녕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의 개념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바꾸고 광의로 확대하면 그만큼 건강의 포괄범위가 넓고 모호해지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 상태가 좋은 개인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활발히 하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을 받아 물질적 삶이 곤란해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리한 물질적, 사회적 환경은 또 다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면 치료비용과 소득의 손실로 인해 커다란 재정적 손해가 발생한다. 질병이나 장애가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만큼 개인의 자유와 삶의 방식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만큼 여러 영역에서의 삶의 질 역시 악화될 것이다.

사회적 수준에서도 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돋기 때문에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건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낙관적 인생관과 성취감은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공동체 역시 활성화될 것이며, 반대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체는 침체될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 수준이 악화되면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공동체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타고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며 또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건강에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일한 결정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노력,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보건 서비스의 접근가능성과 질에 따라서 건강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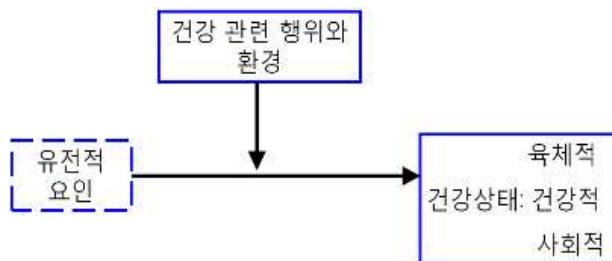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체계가 전문화되며 정부의 의료정책 또한 발전함에 따라 전반적인 보건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은 높아져왔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건강에 대한 접근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으로부터 적극적인 신체, 정신, 사회적 능력으로 바뀌어왔다.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대응 역시 사후적 치료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피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건강관련 인식과 행위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비만, 스트레스, 흡연이나 약물 등 건강의 유해요인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행위 및 환경과 전반적 건강상태로 건강 영역의 삶의 질 하위 영역을 구성하고자 한다. 건강 관련 행위 및 환경이 건강에 대한 투입측면이라면,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및 그 사회적 수준은 산출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건강 상태의 다른 영역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7] 건강 영역 삶의 질 모형



## (2) 세부지표의 설명

<표 14> 건강의 세부 지표

종분 류	객/주관 적 지표	지표명	지표 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건강 상태	객관적 지표	기대수명	+	- 연령대별로 이후 몇 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 그 해에 태어난 사람(0세)의 기대여명	통계청, 생명표
		건강보정수명	+	- 전체 평균수명(0세의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	-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연간 의사진단유병률(인구 천명당)(만 30세 이상) · 주요 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천식, 알레르기 성비염, 아토피피부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소득계층별) 건강집중 (불 평등) 지수	-	- 사회경제적인 순위 인구누적백분율에 대한 건강상태의 누적 백분율 · 소득4분위인구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삶의 질 지표 EQ-5D의 소득4분위집단별 평균 건강지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얻은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 * EQ-5D :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의 기술체계를 종합 한 지표로 질병관리본부(2007) 질 가중치 사용	별도논문참조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 생산
	주관적 지표	주관적 건강	+	- 귀하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적 지표	스트레스 인식정도	-	-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정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느꼈다 ② 많이 느낀 편이다 ③ 조금 느낀 편이다 ④ 거의 느끼지 않았다	통계청, 사회조사
건강 행위 및 환경	객관적 지표	비만율	-	- 체질량지수(BMI, kg/m <sup>2</sup> ) 기준 25이상인 분율(만 19세 이상)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 최근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만 19세 이상)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상태에는 주로 사망률과 관련하여 기대수명이 포함되었으며, 기대수명에 건강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한 건강수명이 추가되었다. 또한 건강이 위협받는 정도로서 만성질환 유병률을 포함한다.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평균 생존 연수이므로 생명을 다해 살다가 죽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생존 기간은 평균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통계청의 생명표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건강수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종래 발표하던 '평균수명'에 '수명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수명에서 병이나 부상 등의 '평균장애

'기간'을 뺀 것으로 사망시까지 순수하게 건강한 삶을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 중요한 지표로 인용된다. 그밖에 객관적 지표로서 심각한 질병인 암과 심장마비의 발생비율을 포함시켰다. 이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의 계산 결과를 활용한다.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만성질환의 인구 천명당 유병률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건강상태의 격차나 불평등 역시 건강 측면에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불평등은 다양한 측정방법이 있는데 그 중 경사지수를 활용한다. 경사지수는 소득 4분위 인구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 영역 삶의 질 지표인 EQ-5D의 소득집단 별 평균 건강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얻은 회귀계수 값으로 소득불평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계산을 위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주관적 지표로서 주관적 건강평가와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인식정도 역시 포함시켰다. 주관적 건강평가(self-assessment of health)는 응답자가 자신의 연령 수준을 감안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된 상태(Social Wellbeing State)라는 의미의 지표이다. 주관적 스트레스의 인식정도는 자기진단표를 이용한 방법에 의해 구하는 방법과 스스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지를 기입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두 지표 모두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 중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주관적 건강) 그리고 매우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낀 편이다(스트레스 인식 정도)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건강관련 행위 및 환경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행위 및 사회 주거환경을 포괄하며, 비만율과 신체활동 실천율을 하위 지표로 포함한다.

비만은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비만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해서 25 이상으로 비만여부를 결정한다. 인구 중 비만인구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식생활변화 및 운동부족의 결과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의 자료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다.

현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육체활동의 필요와 기회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육체활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심폐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신체 운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줌으로써 정신건강에도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 전체 인구 중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 특히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로 계산한다. 이를 위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다.

#### 4) 문화와 여가

##### (1) 개요

문화는 한 집단의 성원들의 집합적 행동양태, 즉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이해된다. 이때 문화는 상대주의적이며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문화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예술적 활동 및 그 산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경우 문화는 민속문화와 대중문화, 고급문화로 구성된다.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사회의 다른 영역들 즉 정치, 경제, 사회와 달리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또한 정신적 고양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활동 및 산물 역시도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것은 문화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문화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욕구의 면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한다고 한다. 매슬로우는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보다 고차원적인 자기실현의 욕구가 중요시된다고 하였으며, 잉글하트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가치가 정치와 경제 중심의 물질주의적 가치로부터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로 바뀌어간다고 지적하였다. 국민들의 자기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자기표현 중심의 탈물질주의 가치가 늘어날수록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화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엄격히 구분하고 인간의 정신가치를 높이는 것은 고급문화이기 때문에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사회학자인 부르뒤에는 이러한 고급문화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문화자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인식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결국 문화자본은 고급문화자본으로부터 다문화자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여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여가 활동은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가에 대한 주관적 접근이며 객관적 관점에서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 즉 일하는 시간이나 삶에 필수적인 시간(예컨대 가사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유시간으로서 여가는 사회 성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주로 즐거운이나 휴식, 활력의 공급, 재충전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양적 측면에서 여가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확보된 여가시간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은 모든 수준에서 문화적 요인에 영향받는다. 문화적 요인은 또한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의미의 체계와 전통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의 문화평론가인 매튜 아놀드가 지적하였듯이 문화예술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uplift)하는 작용을 하며 인간의 가장 고결한 면을 포함하고 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예술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표현 형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창의적 능력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성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시간을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잘 활용하면 일이나 그밖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과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수준에서 볼 때 예술 및 문화적 산물은 사회적 상황과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을 비판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와 여가는 사회적 성찰의 거울인 동시에 사회적 비전을 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문화와 여가에 관련된 활동은 일종의 성장산업이다. 물질적 생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된 상징적 생산의 분야로서 문화예술은 정신적 가치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결국 여가

및 문화는 다른 영역 특히 경제적 생산의 영역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소극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여가활동은 또한 국가적 정체감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핵심적인 공동체 연결망과 유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과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조화와 통합을 이루려면 문화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문화적 감수성에 입각한 문화적 소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문화와 여가 측면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관련 요인들은 다음 그림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8] 여가와 문화 관련 삶의 질 모형



문화 및 여가 영역에서 삶의 질 지표는 아래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 삶의 질 세부지표: 문화와 여가

종분류	객/주관적 지표	지표명	지표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여가 시간 및 활용	객관적 지표	평균 여가시간	+	- 하루 평균 소비하는 여가시간(만 10세 이상 인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관적 지표	여가활용 만족도	+	-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항상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문화 활동	객관적 지표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	- 지난 1년간 1인당 국내여행(숙박 및 당일여행)의 평균 참가일수(만 15세 이상 인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률	+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공연장,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 공연장 : 음악, 연극, 무용, 영화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통계청, 사회조사
		독서인구 비율	+	- 조사시점기준 지난해 1년간 독서(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 포함, 교과서 및 참고서 제외)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 (2) 세부지표의 설명

문화와 여가와 관련해서는 여가시간 및 활용과 문화활동의 양으로 나누어 지표

화할 수 있다.

여가시간의 절대량 및 여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하루 평균 여가시간과 주관적인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여가활용 만족도를 지표로 포함시켰다.

여간시간의 절대량은 하루 중 일하는 시간과 가사활동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 여가시간의 규모는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여가시간에 대한 측정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간을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주관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주관적 시간부족은 마음의 여유 및 여가에 대한 욕구 및 그에 대한 충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느냐고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에 대해 항상 그렇다 혹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또한 여가 활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활용한다.

문화활동은 여가 시간 활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였는가와 관련하여 여행, 독서, 관람 등의 면에서 얼마나 자주, 많이 향유하였는가 즉 그 내용의 양적 측면을 주로 포함하였다. 1인당 국내 여행일수는 1년간 1인 평균 국내 여행에 참가한 일수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실태조사를 활용한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율은 1년간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에서 관람한 사람들의 비율이며, 독서인구 비율은 1년간 학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독서를 수행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들 모두 통계청 사회조사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5) 가족과 공동체

### (1) 개요

가족 및 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정서적 만족을 삶의 질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국내외 연구들이 가족과 공동체는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박대식·마상진·신은정, 2005; 심수진·이희길, 2010; 이희길·신지성, 2009;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1999; 장영식 외, 2007;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7;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그러나 기존 연구

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가족가치를 중시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을 삶의 질 영역의 독립적인 하위영역으로 두지 않고 다른 하위 영역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아예 삶의 질과 무관한 것으로 제외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부차적인 것으로만 다루는 것이다. 가령 OECD의 “How's life”는 주거와 일·생활 균형 영역에 그리고 캐나다 웰빙 지수(CIW)는 공동체 활력 영역에 독거여부나 가까운 친척의 수 등 몇몇 가족 관련 지표들을 포함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홍콩의 삶의 질 지수(Chnan, Kwan, Shek, 2005)에도 가족이 하위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 관련 지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시정개발연구원, 2006)도 복지영역에 양육 시설 수준을 하나 넣었을 뿐이다.

둘째, 가족과 공동체를 분리하여 이들 각각의 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있는데, 이 연구는 이혼율로 가족생활, 교회참석으로 공동체 생활을 각각 측정하고 있다. 일본의 신생활국민지표(1999)는 양육, 교제/관계 영역을 따로 두고 각각의 영역에서 육아와 교육 그리고 지역교류와 사회활동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과 공동체를 구분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문화권마다 가족과 공동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두 영역을 굳이 하나로 통합해 다룰 필요가 없는 사회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화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보살핌의 기능이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보완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두 영역 간 중첩과 교차가 빈번한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둘을 분리해 한국인의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은 불완전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가족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한국문화에 비추어보았을 때, 두 영역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를 간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통계개발원의 삶의 질 지수 작성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과 사회통합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두 영역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심수진·이희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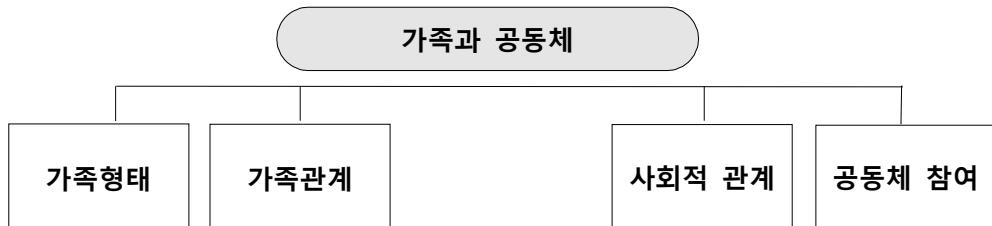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 논의에서 가족과 공동체는 하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가족과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구성원들 간 관계에 기초하며

돌봄 서비스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해 살펴보자 한다. 즉 한국인의 삶의 질은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적 및 심리적 지원에 의해 영향 받으며, 두 영역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 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이 기관들을 통해 재생산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7).

본 연구의 “가족과 공동체” 영역은 “가족형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등 네 가지 중분류 범주로 구성된다. 먼저, 가족형태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형태의 두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 소년소녀가 장가구, 한 부모 가족, 독거노인 가족보다 보살핌과 정서적 만족이라는 기능을 더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혜영 외, 2008; 이민아 외, 2011). 가령 IMF 외환위기로 대량 해고 및 실직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한 부모 가족의 경우, 그 구성원들은 불리한 조건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크며, 빈곤 속에서 살거나 정부지원에 의존해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한 부모는 직장과 부양 의무라는 두 가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홍식, 2003, 김혜영 외, 2008).

가족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및 친족과의 활발한 접촉, 즉 가족 내 상호작용은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 및 물질적 지원의 교환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가족관계는 공동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둘러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는 가족 및 친족과의 접촉 정도와 이들로부터 받는 지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등으로 측정되곤 한다(정기선, 2009).

[그림 9] 가족과 공동체



다음으로 가족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물질적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받는 돌봄이나 양육과 같은 지원들의 원천을 사회적 관

계와 공동체 참여로 규정한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애정이나 호의, 소속감, 지지에 대한 접근, 관심, 확신, 도움 등과 같은 개인 간의 실질적인 거래를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포함한다(Lin, Ye, and Ensel, 1999). 선행연구들은 아동, 가족, 노인 부양, 장애인 등을 위한 물질적 및 심리적 지원의 원천으로 공식적 제도, 비공식적 관계 그리고 공식적 관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개인들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역공동체 등으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 즉 사회적 지지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도구적 지지는 실질적인 원조를, 정보적 지지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친밀감, 밀착, 동정, 관심이나 배려 등을 포함한다(Helgeson, 1993). 개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 비공식적 및 공식적 관계를 활용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의 수준을 관찰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결혼, 우정, 가족, 친구 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타인이나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서비스의 원천이다. 공동체 참여는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객관적 및 주관적 결속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과 공동체” 영역의 지원 관련 중범위 요인들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를 선정하였다.

## (2) 세부지표의 설명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공동체의 지표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정의 및 그 범위 설정이다. 본 연구는 가족을 “혈연이나 결혼, 입양, 계부모 관계 또는 대리양육을 통해 관계를 맺고 통상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로 정의하며, 공동체의 범위를 일차적 애착 관계를 포함하는 핵심 공동체와 이차적 애착관계를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로 구분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는 공식 공동체와 비공식적 공동체로 분류된다. 사실 공동체의 개념과 측정에 있어서 모호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적 단위인 시·군·구 내에서 형성되는 공식 및 비공식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규정한다.

“가족형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등 네 가지 중분류 범주로 구성된 “가족과 공동체” 영역은 총 9개의 하위 세부지표들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가족과 공동체” 영역의 중분류 및 세부지표는 통계청 지표체계의 가족과 사회 통합 영역과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가족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파악되어야 삶의 질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즉 가족문제와 공동체의 맥락적 요인 간의 통합을 시도해 공동체 참여가 지역사회 내 가족 및 친족집단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의 독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6>은 “가족과 공동체” 영역의 세부 지표들을 보여준다.

<표 16> 삶의 질 세부지표: 가족과 공동체

중분류	객/주관적 지표	지표명	지표 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가족 관계	주관적 지표	가족접촉 빈도	+	-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과의 평균 접촉 정도 * 형제자매, 자녀, 부친, 모친과의 접촉 정도 평균으로 계산 (7점 만점)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	- 만족한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15세 이상) ◦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 형태	객관적 지표	한부모 가구비율	-	-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한부모와 자녀 가구수/전체가구수)×100	통계청 추계가구
		독거노인 비율	-	-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 비율 *(65세이상 1인가구/65세이상노인수)×100	통계청, 추계인구 및 가구
사회적 관계	객관적 지표	가까운 친구수	+	- 직장, 이웃, 모임(단체)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주관적 지표	사회적 관계망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5세 이상)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각각의 경우) 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②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통계청 사회조사
	객관적 지표	자살률	-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공동체 참여	객관적 지표	사회단체 참여율	+	- 단체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15세 이상) ◦ 지난 1년 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 단체 :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 종교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등), 취미, 스포츠 및 레져단체,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학술단체,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정치단체, 기타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적 지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	-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 ◦ 귀하는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가깝게 ② 다소 가깝게 ③ 별로 가깝지 않게 ④ 전혀 가깝지 않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먼저 가족형태에 포함된 지표들은 한 부모 가구 비율과 독거노인비율이다. 한 부모 가구가 선정된 것은 가족해체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 부모 가구가 형성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해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해체는 사회적 불안감의 증대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증대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족원의 불행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결손은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 결손 가정의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등으로 대개의 경우 구성원들은 생계, 가사, 정서적 지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욱모 외, 2002). 특히 이러한 구조적 결손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다. 빈곤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생존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빈곤은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게 한다. 또한 부적절한 영양상태와 의료혜택의 부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항상 굴욕과 열등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사회의 도덕과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김혜란 외, 2004).

동거형태에 따라 사회적지지 수준이 다를 수 있다(Dean et al., 1992). 특히 독거는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은 우울, 고독, 스트레스 정도는 물론, 자살 충동도 상대적으로 높다(Klinenberg, 2001; 이봉재·오윤지, 2008; 최영, 2005; 한혜경·이유리, 2009). 이러한 정신건강의 측면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하지 못하고, 음주·흡연 등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족성원의 부재로 인해 신체건강이 악화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는 가족 및 친족과 접촉하는 빈도와 같은 객관적 지표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주관적 만족감<sup>7)</sup>이 본 연구의 “가족과 공동체”의 세부지표로 포함되었다. 가족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

7) 이미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전체 생애과정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대가족 문화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이민아 외, 2011). 비록 과거에 비해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노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태현 외, 1998).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및 친족과의 활발한 접촉은 심리적 및 물질적 자원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좋은 가족관계는 공동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가족, 친구, 친인척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Cohen & Syme, 1985; Murell, Morris, and Chipley, 1992).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친인척과 얼마나 접촉하고 있으며, 그 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장, 이웃, 모임 등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의 수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삶의 질의 향상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지표라고 판단하였다.

최근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다(Walker and Van der Maesen, 2003: 16). 여기서 사회의 질이란 ‘시민들이 그들의 복지와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며, 공식적 및 비공식적 단체/모임에서 형성된 관계들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본 연구는 공동체 참여가 지역사회 내 가족 및 친족집단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의 독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교, 친족 또는 지역 등과 관련된 연고집단 참여정도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참여 비율이 주요 지표로 고려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이 지역사회를 가깝게 느끼는 정도 즉 소속감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되었다.

## 6)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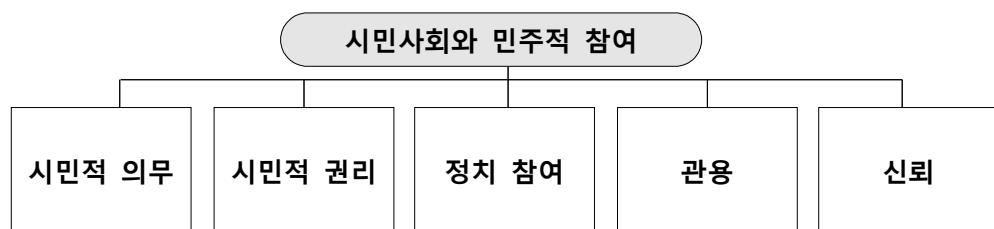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가 한국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하부 요인으로 선택된 이유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GDP가 사회와 개인의 삶의 조건과 수준을 포괄하기에는 불충분한 지표라는 공감대가 삶을 질 개념에 주목하게 만든 것처럼,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시도 역시 기존 삶의 질 논의가 지나치게 경제적, 물질적, 환경적 조건 등 눈에 보이는 여건의 개선에 편중되어 진행된 경향이 있다는

자성에서 출발한다. 실제 삶의 질을 객관적 조건들로만 보려는 시도들은 그 성과의 이면에 개인들 간, 집단들 간 불평등의 심화를 은폐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간 차이 또는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및 시장의 작동논리와 시민사회의 논리가 균형을 유지케 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개선된 여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제로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 및 만족도를 드러내는 영역으로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를 선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수준과 민주적 참여”의 정도는 사회의 전반적 진보와 이에 대한 다수의 향유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의 질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로 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시민사회의 수준과 민주적 참여”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사회적 분위기(social climate)이고, 이는 개인들이 사회에 대해 갖게 되는 신뢰, 자긍심, 결속감 등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와 자발적인 민주적 참여의 달성을 기여한다는 선순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수준과 민주적 참여”의 중간수준의 범주들로 “시민적 의무,” “시민적 권리,” “정치참여,” “관용,” “신뢰” 등 다섯 가지 요인들을 규정한다. 앞의 세 가지는 시민사회를 시민사회답게 만들어 주는 핵심 개념들이다. 즉 양극화, 불평등, 집단 간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론의장을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구체적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들로 “시민적 의무,” “시민적 권리,” “정치 참여”를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의무, 권리, 참여의 세 요소가 적절한 균형 아래 작동한 결과로서 정치적 및 사회적 “관용”과 제도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두도록 한다. 물론 “관용”과 “신뢰”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베풀 목의 역할을 한다. [그림 10]은 “시민사회의 수준과 민주적 참여”를 구성하는 충분히 영역들을 보여준다.

[그림 10]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그림 10]의 다섯 가지 범주들 중 정치참여는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가 삶의 질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는 기능들 중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람직한 시민성(civility)과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인들 또는 집단들이 정치참여를 통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정치참여란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거나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를 지닌 행위나 실제 효과를 가져 온 행위를 말한다(Verba et al., 1995). 주로 정치참여는 공공 관료들과 정치엘리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행동과 관련되며,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와 정치엘리트들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킴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다(이숙중·유희정, 2010). 정치참여는 개인의 웰빙(well-being)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행복한 사람은 하고자 하는 바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Brickman과 Coates(1987)의 주장처럼, 정치참여는 일상생활에서의 구조와 의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수준에서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는 타자와의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는데, 이는 웰빙의 중요 요소인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Baumeister and Leary, 1995). 기존 연구들은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정치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는 더 높은 웰빙의 수준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정치참여가 행복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Helliwell & Putnam, 2004; Paxton, 1998).

다음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작동을 위해 정치참여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시민적 덕목(의무)과 시민적 권리라는 두 요인들이 가진 상동성을 고려할 때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적 덕목과 시민적 권리 어느 한 쪽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건강한 시민사회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시민으로서의 의무만 충실히 따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건강한 시민사회라 할 수 없다(Adorno, et al., 1950; Baars & Scheepers, 1993). 시민적 의무와 권리라는 우선 주관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좋은 시민’과 ‘바람직한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시민적 의무를 나타내는 시민성 또는 시민의식은 정치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이를 일상생활에서 공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규범적 역량으로 정의

될 수 있다. 한편 시민적 권리는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지위 규정과 그와 관련된 제도로 정의된다. 시민적 권리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세 가지 축들 중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및 관행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포함한다(장미경, 2001; 최현, 2006).

시민적 덕목 또는 시민성은 시민사회의 발전정도와 선진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해당 국가의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원미순·박혜숙, 2010). 즉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시민성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등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은 시민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도 또한 시민사회의 질을 가늠하는데 유용하다(Petersson et al., 1989; Andersen, 2000).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로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시민사회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의 결과로 파악될 수 있는 관용과 신뢰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사회적 및 정치적 관용은 시민들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다. 특히 관용은 최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적과 거주국의 분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적에 근거한 시민권에서 탈피하여 시민권의 범위와 기준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국제인구이동으로 인해 변화한 상황을 충실히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외국인의 시민권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공동체 성원 자격뿐 아니라, 생명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유권, 의료보장 등의 사회권, 심지어는 선거권 등의 정치권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설동훈, 2007). 한편, 일반신뢰 및 제도신뢰가 한 사회의 집합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조차도 개인의 행위와 태도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 세부지표의 설명

지금까지 본 연구는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영역을 구성하는 5개의 하위영역들은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7>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의 5개 중분류들과 각각에 대한 측정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과 OECD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사회적 배제와 사회자본을 통한 사회통합이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청과 OECD의 지표체계의 함의를 확장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통합과 삶의 질은 시민사회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치참여 요인에서는 투표율과 정치관심 및 정치효능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모두는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시민적 의무 요인에서는 객관적 지표로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선정하였으며, 주관적 지표로는 민주社会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의식인 시민적 덕목을 택하였다. 여기에서 포함된 모든 지표들은 삶의 질과 긍정적 관계에 있다. 시민적 권리 요인에서는 부패인식 정도와 개인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들만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관용 요인에서는 이민에 대한 태도라는 주관적 지표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신뢰 요인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주관적 지표를 포함시켰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영역”은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총 10개의 하위 세부지표들을 가지고 있다.

<표 17> 삶의 질 세부지표: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중분류	객/주관적 지표	지표명	지표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정치 참여	객관적 지표	선거 참여율	+	대통령선거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정치 관심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귀하는 정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약간 관심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 없다    ⑤ 전혀 관심 없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주관적 지표	정치적 효능감	+	개인의 행위가 지역의 정치·행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꼭 준다고 믿는 정도 (5점 척도 6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귀하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발언권도 없다 2)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4)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나 정부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5)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선거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6)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시민적 의무	객관적 지표	자원봉사 활동참여율	+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앞의 표 계속>

증분류	객/주관적 지표	지표명	지표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시민적 의무	주관적 지표	시민적 덕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의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7점 척도 10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li> <li>◦ 좋은 국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한 정도(각각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터 매우 중요 하다 까지 1~ 7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li> <li>1)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2)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li> <li>3) 법과 규칙을 항상 지킨다</li> <li>4)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li> <li>5)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li> <li>6)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li> <li>7)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li> <li>8) 나보다 못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돋는다</li> <li>9) 나보다 못사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돋는다</li> <li>10) 언제든 국가가 필요로 하면 기꺼이 군대에 간다</li> </ul>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시민적 권리	주관적 지표	부패 인식지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1회씩 산출(10점 만점)</li> <li>* 부패를 사적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li> </ul>	국제투명성기구
		시민의 권리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7점 척도 6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li> <li>◦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 정도(각각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터 매우 중요 하다 까지 1~ 7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li> <li>1) 모든 국민이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li> <li>2) 정부가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li> <li>3) 정부가 모든 사람을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li> <li>4)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li> <li>5)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많은 참여기회를 주는 것</li> <li>6)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할 경우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것</li> </ul>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관용	주관적 지표	이민에 대한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살거나 일하려고 온 이민자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 정도 1~5)</li> <li>1) 한국경제에 도움 2) 한국인의 일자리 빼앗아간다(역코딩)</li> <li>3) 인력부족 직종 매워준다</li> <li>4) 일반적으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피해준다(역코딩)</li> <li>5) 새로운 문화와 아이디어로 한국사회 좋게한다</li> <li>6) 이민자 들면 우리 고유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 낮아짐</li> <li>7) 우리의 전통과 풍습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li> <li>8) 사회갈등 심화(역코딩)</li> <li>9) 정부가 노력해도 갈등은 증가(역코딩)</li> <li>10) 인구감소를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li> <li>11) 그들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늘어남(역코딩)</li> </ul>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신뢰	주관적 지표	일반 신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li> <li>◦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① 항상 조심해야 ② 대체로 조심해야 ③ 대체로 신뢰 ④ 항상 신뢰</li> </ul>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기관 신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 정도</li> <li>* 3점 척도 16개 문항(기관) 각각에 대한 평균 점수</li> <li>◦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li> <li>(대기업, 종교계, 교육계, 노동조합, 신문사, TV방송국, 의료계,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정부, 국회, 대법원, 학계, 군대, 금융기관, 청와대, 시민운동단체)</li> </ul>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영역의 다섯 개 중분류에 포함된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정치참여는 일반적으로 관례적(conventional) 정치 참여와 항의성이 짙은 시위나 집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비관례적(unconventional) 정치참여로 구분된다. 특히 관례적 정치참여는 투표를 포함한 합법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형태로 진정 서 서명, 정치토론 참가, 캠페인 참여, 정치관료 접촉, 기부, 정당가입 등을 일컫는다. 일부에서는 법적 주기에 따라 몇 번 안 되는 기회에 공직 후보자나 정당을 뽑는 선거 참여는 소극적 참여로 분류하기도 한다(이숙종 · 이희정, 2010). 본 연구는 정치참여를 대변하는 지표로 객관적 차원에서는 선거 참여율을, 주관적 차원에서는 정치관심과 정치효능감을 포함시켰다. 주관적 차원의 지표들로 정치관심과 정치효능감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 두 변수가 기존 연구에서 정치참여의 원인이자 결과, 그리고 동시에 다른 변수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McLeod et al., 1999; Brady et al., 1995; Verba et al., 1995).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도 관례적 및 비관례적 정치참여의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유형에 대한 축적된 결과가 부족해, 이를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대신 정치참여의 시작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 측정도구를 설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참여 유형을 지수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Conway, 2003; Kim, 2011; 가상준, 2007).

시민적 의무를 객관적 수준에서 살펴보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들로는 자원봉사 활동, 기부, 일상생활 도움행위 등이 있다. 반면 시민적 권리의 객관적 지표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 지표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적 의무의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를 고려하고, 시민적 권리의 경우에는 주관적 지표들만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가 자원봉사 활동을 시민적 의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사실 시민적 의무의 발현만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민적 의무와 권리 의식에 바탕을 둔 사회참여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들 자체가 시민사회의 질을 평가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건설은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의 기초가 된다.<sup>8)</sup> 일부에서 시민사회는 자

8)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는 자발성, 비정부성, 비영리성, 공익성의 측면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는 그 기본정신이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째, 시민사회는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이며 자원봉사 또한 정부로부터 자율적인 시민들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둘의 특성이 일치한다. 셋째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모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통하여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원봉사자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없는 시민사회는 의미가 없으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까지 주장하기도 한다(원미순, 박혜숙, 2010).<sup>9)</sup>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결속력의 촉발 및 계발 기제로 기능하는 것이 시민적 덕목이며 이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강철희, 2007). 본 연구는 주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과 균형을 꾀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적 덕목을 포함시켰다. 시민적 덕목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Cohen & Rogers, 1995; ME Warren, 2001). 시민적 덕목은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적 자원(civic resources)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선정된 것이다.

시민적 권리 요인의 세부지표들로는 부패인식지수와 시민의 권리인식이 포함되었다. 부패는 사적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된다.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사회일수록 그 구성원들은 반부패규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식 수준이다. 가정, 학교 그리고 또래집단에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민의식 중 하나인 권리의식은 부패인식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며, 시민들의 높은 권리의식 수준은 질 높은 시민사회의 초석이 된다(Campbell et al., 1960). 요약하면, 시민의 권리의식 수준과 부패행위를 거부하는 의지와 노력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공공영역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 향상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Choi, 2009; Heilbrunn, 2005).

민주주의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과 심의과정에 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 참여를 보장해줘야 하는 포용(inclusion)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배제(exclusion)가 불가피하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

비영리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시민사회는 이익집단들과 달리 다수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며, 자원봉사도 자기 자신과 가족을 초월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공익 지향적이다(주성수, 2005).

9)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설치 이후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등록 성인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매년 17% 이상 증가하여 '10년 12월 현재 20세 이상 성인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4,634,597명이다. 또한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05년 4.5 → '06년 5.7 → '07년 6.9 → '08년 8.7 → '09년 10.2 → '10년 11.9%), 전반적인 수준은 저조한 편이다(행정안전부, 2010). (이희길, 2010).

국적에 따른 참정권 제한 원칙만큼은 근대 국민 주권 개념과 결합하여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라 시민권의 근본적 속성이 변화할 것인지, 시민권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에 대한 관용과 수용성은 보다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및 정치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많지 않지만,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로 이민에 대한 태도를 선정하였다.

사회자본으로 자주 회자되는 신뢰는 시민사회가 정부와 시장과의 맷는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될 때 생성되는 사회적 역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Putnam, 1993). 신뢰의 구축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참여적 활동의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강철희, 2007). 특히, 정부 또는 제도 신뢰는 시민이 정부기관과 그 정책실행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정부 효과성도 높아진다(Evan, 1996). 이미 많은 연구들은 제도 신뢰가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발전 (Maloney, 2000), 정부의 경쟁력 강화(La Porta et. al., 1997)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Zak and Knack, 2001)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 신뢰는 한 사회의 제도적 버팀목이 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어 시민사회의 실현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7) 환경

### (1) 개요

생태계와 자연자원을 포함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악화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세기 후반 이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10여 년 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150여 개 국가의 환경지속가능성(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및 환경성과(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지수를 산출하여 2년마다 국가별 등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성하는 3대 축(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의 하나로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경제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티글리츠 보고서(2009)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내용은 환경이 인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환경 조건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경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대기 및 수질 오염, 위해 물질과 소음), 간접적(기후 변화, 탄소 및 수질 사이클의 변환,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건강을 위협하는 자연 재해)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람들은 물, 자연과 같은 환경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점점 더 인정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실제 선택(예: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기후 변화와 가뭄 또는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재산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을 도와 시하고 성장 일변도의 압축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심각한 환경파괴를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온산공단의 대기오염 문제나 낙동강 폐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은 환경문제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왔다.

이렇듯 환경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매우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영역을 가장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화된 중분류 범주를 먼저 설정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18>에서 제시한 “에너지,” “대기,” “물,” “폐기물,” “기후변화,” “환경의 질” 등 6개의 중분류는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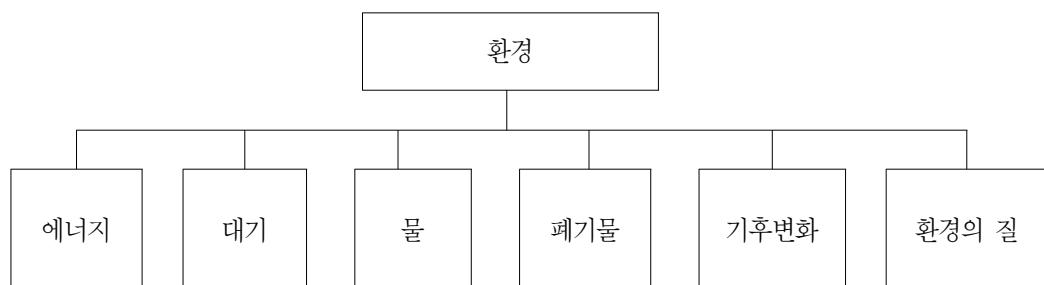
에너지 소비는 우리나라에 있어 화석연료의 소비 및 원자력 발전소 설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기와 물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 범주로서 호흡기 질환이나 상수도 수질과 같이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주라고 볼 수 있다. 폐기물 역시 위생 처리 여부에 따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범주이다. 나아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영향 만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 생태계 변화 측면에서 현 세대의 삶의 질에도 점차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범주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공원이나 국립공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연습지나 갯벌과 같은 환경의 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체감만족도와 환경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 등 주관적 지표 또한 포함하였다.

환경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중분류 범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또한 각각의 중분류를 평가할 수 있는 소분류 지표들은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1] 환경 영역 체계도



## (2) 세부 지표의 설명

<표 18> 삶의 질 세부지표: 환경

중분류	객/주관적 지표	지표명	지표 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에너지	객관지표	신재생 에너지 비율	+	- 총1차 에너지 공급중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등)가 차지하는 비중	IEA OECD
		에너지 빈곤층 비율	-	- 정의 (외국 기준): 적정 난방수준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경상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대기	객관지표	미세먼지 농도	-	-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인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써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지표임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주거지역에서 인구가중평균연간농도 (micrograms/cubic meter)	World Bank, OECD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	-	- 연간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총 횟수 · 오존주의보: 1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 오존경보: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환경부, 환경통계
물	객관지표	수질 오염도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측정 · 낙동강 하류(물금)의 BOD 수치	환경부, 환경통계
		상수도보급률 지역별 격차	-	- 162개 상수도 사업자 중 상위10%와 하위 10%간 보급률 % 차이	환경부 상수도통계
폐기물	객관지표	폐기물 재활용 비율	+	- 각 항목별(폐지, 고철, 금속캔, 폐타이어, 유리)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 *(재활용/발생폐기물)×100	환경부, 환경통계
기후 변화	객관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감축대상으로 지정됨 * 국제기준(IPCC Guideline)에 따른 6개 온실가스: CO <sub>2</sub> , N <sub>2</sub> O, CH <sub>4</sub> , HFCs, PFCs, SF <sub>6</sub>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작성체계 연구
환경의 질	객관지표	1인당 도시공원/녹지면적	+	-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 면적 · 도시지역 공원과 녹지면적/도시지역의 총인구 * 공원: 시민의 건강, 휴양을 위한 휴식 공간 * 녹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체감 환경 만족도	+	- 1년전과 비교하여 좋아졌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15세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1년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의 5가지 영역별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변화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지표	환경문제 불안도	+	-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15세 이상) ◦귀하는환경변화와 관련된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어느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 가뭄, 홍수 등)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약간 불안    ⑤ 매우 불안    (역코딩)	통계청 사회조사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환경 영역은 총 6개 중분류 범주에 14개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들은 최대한 방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지표체계에서는 에너지빈곤층 비율이나 상수도 보급률 지역별 격차와 같은 형평성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 통계청 연구(2009)는 전체 환경 영역에서 총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본 지표체계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OECD 연구(2010)에서는 OCED 국가들은 물론, 남미, 중동, BRIICS 등 다양한 경제 여건과 삶의 질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기에 환경 영역은 역시 총 7개의 지표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대기질(SOx, NOx, PM)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에너지 범주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믹스(mix)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적절한 에너지원의 확보와 에너지 소비 방식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나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IEA 및 OECD의 자료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에너지 측면에서 불평등에 대한 지표인 에너지빈곤층은 가계지출 대비 광열비 지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로 통상 정의된다. 이러한 지표는 최근 빈곤층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표로서 포함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보는 현재 한국에서는 확보할 수 없으며 향후 통계자료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

대기 범주에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최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시켰다. 이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주거지역에서 인구가중 평균 연간농도로 계산되며 세계은행과 OECD의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도시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존 피해를 오존주의보 및 오전경보 발령 횟수를 통해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의보 및 경보는 기준 농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즉각 발령되기 때문에 오존 농도 지표에 비해 자료 획득이 용이하고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장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의 환경 통계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

물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하천환경을 보호하며 맑은 물을 모든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물 범주에서는 전자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수질 오염도를, 그리고 후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수도 보급률 지역별 격차를 제시하였다. 우리 하천의 수질 확보는 환경

당국의 가장 큰 정책 목표의 하나로서 환경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이기도 하다. 수질 오염도는 환경부의 환경통계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상수도 보급률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으나, 일부 면 단위 혹은 도서, 산간 지역에는 보급률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수도 보급의 경우 평균 보급률보다는 일부 지역의 낮은 보급률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간 보급률 격차를 지표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상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는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폐기물 정책에 있어 지난 90년대 이래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이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는 우리 국민의 삶의 일부로서 사실상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얼마나 폐기물 재활용이 실질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재활용률이 높아질수록 일정 정도의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매립과 소각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비율은 발생폐기물 대비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백분율로 계산되며 환경부의 환경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다. 기타 폐기물 수거 횟수나 청소 장비 구비 정도는 산출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후변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된 환경문제로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2010년 환경성과지수(EPI) 지표체계에도 처음으로 포함된 중요한 범주이다. 각국별 기후변화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교토의정서에 합의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따라 6개 온실가스( $\text{CO}_2$ ,  $\text{N}_2\text{O}$ ,  $\text{CH}_4$ , HFCs, PFCs,  $\text{SF}_6$ )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 작성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연녹지나 자연생태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성장과 대규모 개발이 동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총량이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립공원과 도심 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과 갯벌이나 습지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된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국민 1인당 도시공원과 녹지 면적을 대표 지표로서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현황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

## 8) 안전

### (1) 개요

안전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반(basi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넓게는 국방에서 좁게는 도로 안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 보고서(2009)는 안전을 “신체적 불안”으로 표현하면서 “각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위험에 빠트리는 모든 외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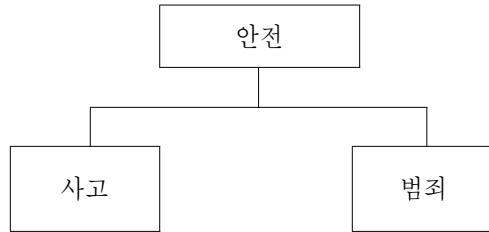
전통적으로 안전 영역은 대부분 범죄와 사법체계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식품 위생, 직장 업무 등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독립된 중분류 범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 영역은 “사고,” “범죄”의 두 가지 중분류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총 13개의 하위 세부지표들을 가지고 있다. 안전영역 지표체계는 기존 통계청 연구에서 적용한 지표들을 대부분 포함하였으며, 이를 일부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 비교조사(2011)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23개국 중에서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현저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필요시 개별 중분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OCED 연구(2010)에서는 안전 영역과 관련하여 *feeling of insecurity*(신체적 위협, 강도 등 위험에 따른 불안감)와 같은 주관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주요 지표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어린이 학대(성폭행 포함)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본 지표체계에도 포함하였다.

안전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중분류 범주를 간략히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또한 각각의 중분류를 평가할 수 있는 소분류 지표들은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2] 안전 영역 체계도



<표 19> 삶의 질 세부지표: 안전

중분류	객주관 적 지표	지표명	지표 방향	지표설명	자료출처
범죄	객관 지표	강력범죄 발생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안전 중 범죄안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범죄 중 피해나 두려움 정도가 가장 높은 강력범죄의 인구수 대비 발생건수로 집계</li> <li>· (강력범죄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li> <li>* 강력범죄 : 흉악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체포, 유인 등)</li> </ul>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피해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li> <li>◦ 지난1년 동안 귀댁에서는 집이나 밖(직장, 가게, 거리등)에서 절도(소매치기, 들치기, 날치기 포함), 사기, 강도, 폭행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li> </ul>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 지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사회안전영역에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15세 이상)</li> <li>◦ 귀하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① 매우 안전    ② 비교적 안전    ③ 보통</li> <li>④ 비교적 불안    ⑤ 매우 불안</li> </ul> <p>(역코딩)</p>	통계청 사회조사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15세 이상)</li> <li>◦ 집 근처에는 야간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li> </ul>	통계청 사회조사
사고	객관 지표	도로 사망률	-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4세 이하 연령의 사고사망률</li> <li>· (14세 이하 사고사망자 수 / 14세 이하 연령인구)×100,000</li> <li>* 안전사고 : 운수사고,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중독, 기타</li> </ul>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아동 학대 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 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 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 건수</li> <li>*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빌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li> </ul>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재해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측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안전측면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li> <li>* (재해자수/상시근로자 X100)</li> </ul>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 생현황
		화재발생건수	-	-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써 화재예방을 위한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전체 화재 발생건수 집계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

## (2) 세부지표의 설명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안전 영역은 총 2개 중분류 범주에 9개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들은 최대한 방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지표체계에서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이나 아동 학대 건수와 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비중을 높여 이를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고 범주는 안전 영역에 속해 있는 중분류 범주 중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범주의 경우 사고 발생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보행자, 화재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도로 사망률이나 보행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이나 거리 보행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 교통사고통계로부터 확보 가능하다. 또한 화재와 산업재해는 직장과 가정을 망라해서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연보 및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발생현황 자료를 활용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 관련 안전사고 및 아동에 대한 학대(성폭력 포함)가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표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및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확보 가능하다.

범죄는 가장 대표적으로 안전 영역을 평가하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해외의 삶의 질 관련 연구에서도 범죄는 안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 범죄 발생 건수와 같은 산출 지표를 포함하였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흉악범죄 및 폭행, 상해, 협박, 체포, 유인 등의 폭력 범죄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으로부터 확보 가능하다. 또한 범죄피해가구의 비율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1년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다.

객관적 지표와 아울러 범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혹은 반대로 안전)하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를 주관적 지표로 포함하였다. 이들 모두에 대한 정보는 통

계청 사회조사에서 확보 가능하다.

## 9) 주관적 만족

### (1) 개요

주관적 만족은 삶의 질 특히 개인 수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삶을 좀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나 경제적인 활동의 구조와 추세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경제지표(economic indicators)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좋은 삶”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들의 합으로만 요약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부분의 합과 전체가 다를 수 있듯이 객관적인 조건들의 합은 개인이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수용하여, 올해 OECD와 같은 국제 기관에서 발표한 ‘Well-Being Indicators’ 보고서에도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요인을 포함시켰다. 우선 객관적 지표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과, 그것을 주관적인 측정치들이 어떻게 보완해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사회/경제 지표의 한계와 주관적 측정치의 필요성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한계점은 항목 설정을 결정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지표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제외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권을쥔 사람의 가치가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사람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지표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가치와 이해를 대표하는 목록을 만들기가 힘들다. 하지만 주관적 측정치들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관적 측정치는 전체 구성원들의 관점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대다수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지표는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완벽한’ 객관적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에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에 따라 각각의 요소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치는 다양한 영역들간의 중요도를 비교 할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원을 늘리는 데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편리한 대중 교통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두고 정책 결정자는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영역간의 중요도를 직접 비교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비교 단위(metric)가 없다. 이 때 영역간 만족감이라는 주관적 경험을 측정하여 두 영역에서 기대되는 상대적 상승효과를 추론 해 볼 수 있다.

경제적 활동의 추세와 구조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사회적인 지표에 대안적인 객관적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사회지표와 마찬가지로 경제지표에서도 지표에 어떤 지수가 들어가고 어떤 지수가 제외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안녕감을 파악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지표만으로 충분한가의 문제가 있다. Diener와 Seligman (2004)는 사랑, 사회적 자산, 환경오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치체제, 미덕과 영성과 같은 것들은 경제적 이해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제 활동은 수질/오염등과 같은 이차적 외부 효과(externalities)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경제지표의 향상 자체만으로는 그 원인이 긍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범죄의 증가로 감옥이 늘어난 경우에도 GDP와 같은 경제지표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눈에 의해 관찰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적 수준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그것은 삶의 부분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삶을 바라보는 개인의 포괄적인 관점은 반영되지 않는다. 동일한 사건이나 환경도 개인과 문화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게 평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열악한 중미와 남미 국가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한국/일본 보다 높다는 사실이 극명한 예가 될 수 있다.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지표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객관적인 측정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을 담아주는 중요한 보완적인 측정 장치이다.

### (3) 지표 :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의 주관적 영역의 대표적인 측정치는 주관적 안녕감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뉜다(Diener, Suh, Lucas 와 Smith, 1999). 우선

일상의 정서적 경험에 포함되는데, 긍정적 정서(기쁨, 사랑 등)와 부정적 정서(불안감, 슬픔 등)를 따로 측정한다. 그 이유는 긍정/부정 정서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과 역할이 뚜렷이 다르다는 사실이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긍정적 정서는 ‘행동 촉진 시스템’(Behavioral Facilitation System)에 의해 촉발되며, 그 기능은 유기체로 하여금 생존에 유용한 자원(음식, 짹짓기 상대 등)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정서는 행동 억제 시스템(Behavioral Inhibition System)과 관련되어 있으며, 유기체를 위협이나 고통 등의 해로부터 피신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부정적 정서는 제동 장치, 긍정적 정서는 추진 장치인 셈이다. 긍정/부정 정서는 둘 다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역할이나 성향은 다르다.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감이다. 객관적 사회지표 접근에서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항목내용에 대해 개인이 평가를 하도록 하지만, 주관적 만족감은 개인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 전체 혹은 영역별(사회적 관계, 일 등) 만족감을 평가하도록 한다.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만족감 평가는 정서적 경험과 구분되는 특성들이 나타나다. 결국,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경험적 반응을 세 가지 요인(만족감, 긍정 정서, 부정 정서)으로 집약하여 측정한다.

### 주관적 안녕감 측정도구: 단축형 행복 척도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서양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서양 피험자들에 의해 타당화된 문항들이다. 2010년 한국 심리학회 사업으로 한국 문화의 특수성(emic)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연구와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행복 측정 척도가 개발되었다. 문항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예비 조사를 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1,500명의 한국인을 인구비례 할당 표집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기존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견고하게 나오는 3 요인(삶의 만족, 긍정/부정 정서 빈도) 구조를 유지하되, 각 요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한국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각성 수준이 높은 정서 문항(예, 희열)으로 편중되었던 기존의 서구식 문항에 한국인들이 빈번하게 느끼고 있는 중/저 각성 정서 문항(예, 편안한)들을 포함시켰다. 단축형 행복 척도는 비교적 간결하지만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였고,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가 반영 될 수 있는 척도 개발 과정을 거친 측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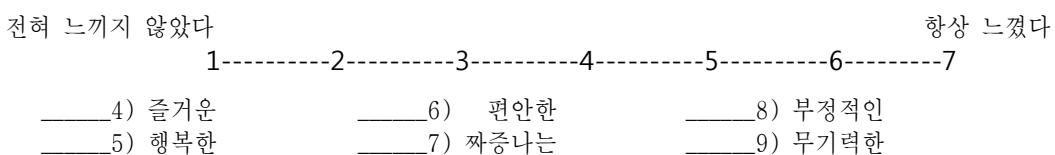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서은국, 구재선, 2011)<sup>10)</sup>

▶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보기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측면(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측면(주위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직장,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한 달 동안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에서부터 ‘항상 느꼈다(7점)’까지의 보기 중에서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점수 계산

만족감 총점: 문항 1+2+3

금정정서 총점: 문항 4+5+6

부전저서 출판: 무학 7+8+9

최종 행복 점수 = 만족감 총점 + 긍정정서 총점 - 부정정서 총점

10) 참고 자료: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96-113.

## 참고문헌

- 김계연 · 윤강재(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9(1).
- 김혜영 · 변화순 · 윤홍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63.
- 서은국 ·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25(1), pp96-114.
-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길, 심수진(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학회」, 5(1), pp.1-14.

- Allardt, Erik. (1976). "Dimensions of welfare in a comparative Scandinavian study." *Acta Sociologica* 19:227-239.
- Baker DA, Palmer RJ (2006) Examining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community and recreation participation on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395-418
- Bauer, Raymond A. Ed.(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ss./London: The M.I.T. Press.
- Braun, A. A., (2009). Gross National Happiness in Bhutan: A Living Example of an Alternative Approach to Prog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 Brock, W. (1993). "Pathways to Randomness in the Economy: Emergent Nonlinearity and Chaos in Economics and Finance." *Estudios Economicos*, 8(1).
- Campbell, Angus. (1972). "Aspiration,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Pp. 441-446 in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edited by A. Campbell and P. Convers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1974). Quality of life as a psychological phenomenon. In: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ed. B. Strumpel, pp. 9–0.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Cobb, C., W. (2000). Measurement Tools and the Quality of Life. Redefining Progress ([http://www.rprogress.org/publications/2000/measure\\_qol.pdf#search=%22measurementtool%22](http://www.rprogress.org/publications/2000/measure_qol.pdf#search=%22measurementtool%22)).
- Costanza, R., R. d'Arge, R. de Groot, S. Farber, M. Grasso, B. Hannon, K. Limburg, S. Naeem, R.V. O'Neill, J. Paruelo, R. G. Raskin, P. Sutton, M. van den Belt.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6230):255.
- Cummins, R.A. (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 interactive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42(1), 55-72.
- Delors, J., Mufti, I., Amagi, I., Carneiro, R., Chung, F., Geremek, B.,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Paris, France: UNESCO Publishing.
- Diener, Ed and Suh, Eunkook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Diener, E, RE Lucas, U Schimmack and JF Helliwell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Doherty, G. (1997). Zero to six: The basis for school readiness. Hull, QB: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Erikson, Robert. (1974). "Welfare as a planning goal." *Acta Sociologica* 17:273-288.

- \_\_\_\_\_. (1993). "Descriptions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Pp. 67-83 in The quality of life, edited by M. Nussbaum and A. 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llowfield, Lesley. (1990). The quality of life. London: Souvenir.
- Gardner, H. (2004).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NY: Basic Books.
- Gerson, E.M. (1976). On quality of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793-806.
- Hagerty, M. R., R. A. Cummins, A. L. Ferriss, K. Land, A. C. Michalos, M. Peterson, A. Sharpe, J. Sirgy and J. Vogel(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pp.1-96.
- Harvey, A.S., and A.K. Mukhopadhyay.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1): 57 - 7.
- Hayward, K., Pannozzo, L., Colman, R., & Hayward, V. (2007). Canadian Index of Wellbeing: Educated Populace indicator report. Toronto, ON: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 Mishan, E. J. (1967). The Cost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F. A. Praeger.
- Noll, Heinz-Hervert(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 O'Neill, J. (2006). Citizenship,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Epicurus or Aristotle? *Analyse & Kritik* 28, 2006: 158-172.
- Osberg, L. and Sharpe, A. (2002).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Blackwell Publishing, vol. 48(3), pages 291-316.
- Pigou, A.C. (1929). The monetary theory of the trade cycle. *Economic Journal*, 39 (154): 183-94.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 297-305.
- Sen, Amartya. (1985). Well-being, Agency and Freedom: the Dewey Lectures., *Journal of Philosophy*, 82(4), 169.221.
- \_\_\_\_\_.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Pp. 30-53 in The quality of life, edited by M. Nussbaum and A. 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Trewin, D.(2001). *Measuring Wellbeing*.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Veenhoven, Ruut.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9.
- \_\_\_\_\_.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pp.33-45.
- Vesan, P. and Bizzotto, G. (2011). Quality of life Europe: conceptual approaches and empirical definitions.
- Walker, A. and Maeson, L. van der, eds. (2003).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Netherlands., Cited in Phillips and Berman.
- Wallace, C., and Abbott, P. (2009). The consequences for health of system disintegration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Paper given at the Europ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Lisbon, September.
- Zapf, Wolfgang. (1984). "Individuelle Wohlfahrt: Lebensbedingungen und wahrgenommene Lebensqualität [Individual welfare: Living conditions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Lebensqualität in der Bundesrepublik. Objektive Lebensbedingungen und subjektives Wohlbefinden*, edited by W. Glatzer and W. Zapf. Frankfurt: Campus.

## <부록1> 해외사례 검토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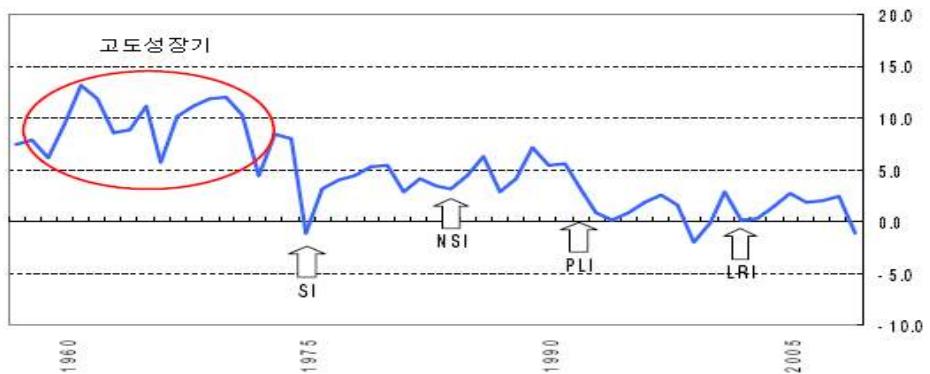
### I. 일본 사회지표의 변천 및 현황

#### 1. 일본 사회지표 작성의 배경 및 변천과정

일본에서 사회지표의 작성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통계적 지표로서 GDP가 지난 양적 단일경제지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생활의 다면적이고 풍부한 질적 측면을 측정하여 사회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정책이 고도경제성장만이 아닌 사회발전에도 관심을 돌리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서구에서의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지표체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경제기획청 산하 국민생활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1970년 이래 연구 작업이 본격화되어 1974년 처음으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SI)의 추산이 이루어졌다. 이후 사회지표는 1986년 신사회지표(new social indicators: NSI), 1992년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PLI) 그리고 2002년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LRI) 등으로 이름과 체계, 추산방법 등이 바뀌면서 이어졌다.

아래 그림은 일본의 GDP 성장률의 변화추이 속에서 각 사회지표가 등장한 시점을 표시하고 있다. 최초의 사회지표는 고도성장기가 지속되던 1970년에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처음 등장한 1974년은 오일쇼크 이후 경제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졌던 시점이었다. 한편 신사회지표가 등장한 1986년은 버블경제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으며, 신국민생활지표가 시작된 1992년은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이었다. 이후 잦은 1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가 지나고 2002년 새로운 구조개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생활개혁지수가 등장하였다.

[그림 1] 일본의 GDP 성장률과 사회지표의 등장



사회지표는 이미 언급한대로 계량적 경제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풍부한 인간의 욕구와 문화의 다양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배경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역시 매우 중요하다. 1974년의 사회지표는 경제적 발전만으로 파악되지 않은 국민의 복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1960년대 고도성장 속에서 등장한 일본의 극심한 사회갈등을 배경으로 하기도 한다. 신사회지표를 공표한 1986년에는 개인주의를 내세우며 기성세대의 윤리와 규범을 거부하고 혁신적 사고를 하는 신인류 세대가 일본 사회에서 유행어를 만들며 사회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 두 지표가 발표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지속적 호황을 누리며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이른바 “일억총중류”的 시대였다. 그에 비해 신국민생활지표가 발표된 1992년부터 생활개혁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사이에는 일본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1990년대가 있다. 1990년대는 무엇보다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격차사회”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불평등과 계층간 격차 심화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시기 동안에는 급속한 일본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활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안정을 배경으로 등장한 정책과제가 바로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시키고 살기 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1992년의 신국민생활지표이고, 2002년의 생활개혁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지표들의 특성과 내용 요약

### 1)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 1974년)

- 작성기관: 국민생활심의회 조사본부
- 개시시기: 1970년 12월  
(국민생활심의회와 다른 조직인 사회복지지표연구회가 개시)
- 공표시기: 1974년 9월
- 배경: 공해 및 인구집중 등 고도성장의 부정적 효과가 분명해지면서 화폐적 지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전환할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음
- 목적: (1) 복지수준의 측정, (2) 상세한 사회목표체계(10개의 목표분야)의 작성, (3) 지표의 선택과 그 시산
- 유형: 복지수준 측정형(총합지표)<sup>11)</sup>
- 사회목표분야의 설정: 목표분야(social goal) 10개-건강, 교육학습활동, 고용과 노동생활의 질, 여가, 소득과 소비, 물적환경, 범죄와 법의 집행, 가족, 계층과 사회이동 등. 복지의 주구성요소(fundamental social concern) 27개, 하위구성요소(sub-concern) 77개, 상세구성요소(sub-sub-concern) 188개, 지표(indicator) 261개(1979년에 368개로 변경)
- 지표의 종류: output 지표체계의 작성을 시도하였으나, (1) output 지표설정의 곤란성(교육, 여가), (2) 적극적으로 input 지표를 이용하기 위해(병원, 공원, 도서관 등) 일부 input 지표를 사용하였음
- 규범적 의미: 지표의 값이 커지는 것은 복지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봄. 이를 위해 마이너스 지표는 역수를 취하여 계산함. 다만 지표의 대소가 복지수준의 고저의 평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님
- 지수화: 1960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고, 1965년, 1970년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
- 종합화·가중치부여: (1) 10개 목표분야를 하나의 수치로 종합화한 것은 없음, (2) 목표분야 등으로의 상위로의 종합화는 있음. 지수의 단수평균을 이용함
- 의식조사와의 관계: 지표(indicator)에는 사용하지 않음. 분석에는 사용하고 있음. 관심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음

11) 일본의 사회지표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伊藤 薫(2005)는 시계열 혹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 생활수준과 풍요를 측정하려는 생활수준·복지수준측정형과 각종 통계데이터를 다수 배열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계열 혹은 지역간 비교는 하지 않는 생활수준표시형, 그리고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되 시계열 혹은 지역간 비교도 가능케 한 특정목적형을 구분한다.

## 2) 국민생활지표 NSI (new social indicator, 1986)

- 작성기관: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본부 조사위원회
- 개시시기: 1984년 7월
- 공표시기: 1986년 3월
- 배경: 고도성장기의 종료와 함께 높은 생활수준과 가치관 변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다양화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 목적: 국민생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체계의 수립
- 유형: 과제발견형
- 생활영역 등의 설정: (1) 생활영역의 구분은 8개(하위분류는 없음) - 건강, 환경과 안전, 경제적 안정, 가족생활, 근로생활, 학교생활, 지역과 사회활동, 학습과 문화활동, (2) 생활영역지표는 국제비교지표 (지표수 33개)와 시계열지표 (지표수 51개)로 이루어짐, (3) 주관적 의식지표 (지표수 11개), (4) 관심영역별 지표 (지표수 53개)는 6개의 관심영역 - 국제화와 생활, 정보화와 생활, 고령화와 생활, 도시화와 생활, 국민생활과 격차, 가정 사회의 병리 - 으로 이루어짐, (5) 각 지표는 생활영역 8개로 표시됨
- 지표의 종류: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지표에 추가하여 구조변화지표, 국제비교지표, 주관적 의식 지표, 국내격차지표를 광범하게 채용하였음
- 규범적 의미: 8개의 생활영역별 지표의 종합화가 규범적 지표만을 이용하여 이루어짐. 즉 종합화지표는 규범적 의미를 지님
- 지수화: 1971년부터 198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 10년간의 각 년의 변화율이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여, 기준년 (1981년)이 100이 되도록 지수화 하였음. 이를 변화율표준화지수라고 부름. 이처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종합화 지수의 변동이 주로 변화율이 큰 지표의 움직임에 좌우되고 변화율이 작은 지표의 움직임은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종합화.가중치 부여: (1) 8개 생활영역별 지표를 하나의 수치는 없음, (2) 생활 영역별 지표 각각의 종합화는 있음. 지수의 단순평균을 이용함
- 의식조사와의 관계: 주관적 의식지표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

### 3) 신국민생활지표 PLI (people's life index)

- 작성기관: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본부 조사위원회
- 개시시기: 1991년 7월
- 공표시기: 1992년 5월. 1999년까지 공표를 계속하였으나 2000년부터 중단
- 배경: 80년대 후반 사람들이 풍요를 요구하게 되어 이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경으로 인구집중이 나타나면서 지역간의 차이를 측정할 필요가 나타남
- 목적: 생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수준, 풍요를 측정하기 위해 만듦
- 유형: 생활수준 측정형 (종합지표, 지역별 지표 등)
- 생활영역 등의 설정: (1) 생활지표로서의 활동영역별지표. 8개의 활동영역--살다, 소비하다, 일하다, 기르다, 치료하다, 놀다, 배우다, 사귀다--을 설정. 각각에 대해 4개의 평가축--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을 설정, (2) 구조변화지표
- 지역별지표: 사회지표로서는 처음으로 지역별 시산을 했음
- 지표의 종류: 활동영역별 지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위한 규범적 지표임. 구조변화지표는 말 그대로 구조변화지표임
- 규범적 의미: 8개의 활동영역별 지표는 규범적 의미를 지님
- 지표수: 살다 20개, 소비하다 20개 등 153개, 구조변화지표는 79개
- 지수화: (1) 시계열 자료: NSI와 마찬가지로 변화율표준화지수를 사용.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음.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의 각 년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여, 기준년(1981년)이 100이 되도록 지수화 하였음, (2) 지역별시산: 각 지표를 전국평균 50으로 하여 편차값으로 바꾸어 지표간의 종합화가 되도록 지표의 표준화를 하였음. 매 활동영역마다 지표의 수가 다른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지표수로 지표의 편차값을 나누었음. 이렇게 하여 얻은 각지표의 편차값에 대해 국민생활선호도조사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함
- 종합화.가중치 부여: (1) 8개의 활동영역별 지표의 하나의 수치로의 종합화가 있음, (2) 지역별시산의 종합화가 있음. 지수의 단순평균을 이용
- 의식조사와의 관계: 국민생활선호도조사의 needs득점을 가중치 부여에 사용. 조사결과는 직접사용하지 않음

#### 4) 생활(暮らし)개혁지수 LRI (life reform index)

- 작성기관: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본부 조사위원회 (담당부서는 내각부 국민생활국 총무과 조사실)
- 개시시기: 2002년 11월 (제1회 검토)
- 공표시기: 2002년 12월
- 배경: 풍요를 실현한 국민의 시점에 서서 구조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목적: 구조개혁의 성과를 국민생활의 시점에서 여유와 안심 등의 비화폐적 측면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생활개혁의 진척의 정도를 분명히 하기 위함
- 유형: 특정목적의 생활수준 측정형 (종합지수 있음)
- 생활영역 등의 설정: 구조개혁의 여러 정책 중에서 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리를 하여, 구조개혁이 목표로 하는 9개 측면-거주하기 좋은 사회, 일하기 좋은 사회, 배우기 좋은 사회, 자녀 키우기 좋은 사회,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 사회, 고령자가 활기 있는 사회, 정보와 사람이 교류하기 좋은 사회, 환경이 좋은 사회,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 걸쳐 정리하였음 (PLI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를 (1) 1990년 기준(1990년부터 2001년까지) 및 (2) 1980년 기준(1980년부터 2001년까지)으로 계산하여 새로운 활동영역별 PLI를 종합화한 생활종합지수로 공표하고 있음
- 지역별 지표: 없음
- 지표의 종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지표임
- 규범적 의미: 9개 측면별 지표는 규범적 의미를 지님
- 개별지표수: 거주하기 편한 사회 4개, 일하기 편한 사회 5개를 필두로, 환경이 좋은 사회 4개까지 총 41개.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신국민생활지표 (PLI) 생활평가축의 안전, 안심을 활용하여 지표수는 총 61개
- 지수화: PLI와 마찬가지로 변화율표준화지수를 사용. 1990년부터 2001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의 각 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여 기준년(1990년)이 100이 되도록 지수화함
- 종합화.가중치 부여: 9개 측면별 지표를 하나의 수치로 종합화하지는 않음. 안신할 수 있는 사회를 제외한 8개 측면 각각에 대해서 개별지표의 표준화지수

를 단순평균하여 측면지표를 작성함.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PLI 방식으로 함(개별지표의 가중평균)

- 의식조사와의 관계: 생활의 안심감에 대해서 내각부 정부공보실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생활의 만족감이 국민생활선호도의 충족도를 기초로 PLI의 8개 활동영역에 대하여 추계하여 검토하고 있음

### 3. 신국민생활지표(PLI)의 특성과 생활개혁지수(LRI)의 특성 비교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작성되었던 신국민생활지표는 과거의 사회지표나 신사회지표와 비교해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지표들이 사회전체의 관점을 취했던 것에 비해 신국민생활지표는 개인의 관점에서 생활의 여러 모습들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영역 구분도 개인의 활동들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활동은 살고, 소비하고, 일하고, 기른다는 기초 활동에 덧붙여 놀고, 배우고, 사귄다는 높은 수준의 활동까지 포괄하여 구성된다. 하지만 PLI에는 동시에 개인의 활동영역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국민생활 자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구조변화지표도 포함되는데 그 영역은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화, 클린화라는 다섯 가지이다.

둘째, 규범적 평가를 위해 이들 활동에 대한 지표들은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하나로 단일화시키지 않고 다양한 가치들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치들은 개인 욕구의 기본적 축으로서 안전과 안심과 아울러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공정,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자유, 기분 좋게 생활 할 수 있는 쾌적 등이다. 이처럼 평가기준이 다양하다보니 동일한 지표가 다른 지표에서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혼율은 안전과 안심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그리고 자유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일본사회에 대해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풍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시기별로 다양한 영역별로 다양한 기준에서의 풍요의 정도를 비교하는 동시에 지역별로도 비교를 하였다. 시기별 비교에서는 베를 시기에 비해 1990년대 걸쳐 향상된 영역(치료하다, 배우다, 살다)보다 침체되거나(기르다, 사귀다) 답보상태인(일하다, 소비하다, 놀다) 영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비교는 1998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넷째, 지표의 종합화 과정은 우선 개별 지표에 대해서 변화율에 따른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그것은 극심한 변동을 보이는 지표가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표준화된 지표값을 갖고 여덟 개의 영역별 종합화는 지표들의 값을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또한 네 개의 생활평가 축별 종합화는 <국민생활 선호도조사>에서 항목별로 주관적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부여하여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역별 혹은 평가축별 종합화 외에 전체적인 종합화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관적 지표는 가중치 부여에는 포함되지만 항목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국민생활지표는 1999년까지만 작성이 되고 이후에는 작성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1974년 사회지표의 작성부터 계속 삶의 질 지표의 작성은 주도했던 국민생활심의회--애초에는 경제기획청 소속이었으나 이후 내각부 소속으로 바뀌어 총리 자문기구가 됨--에서는 2002년부터 다시 생활(暮らし)개혁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생활개혁 지수는 신국민생활지표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신국민생활지표가 풍요를 다양하게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려 했던 것에 비해 생활개혁지수는 개혁이라는 정책적 과제의 방향들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신국민생활지표에서 살기(거주하기), 일하기, 기르기, 배우기, 소비하기, 놀기, 치유하기, 사귀기 등 여덟 개의 활동영역과 안심과 안전, 공정, 자유, 쾌적이라는 네 개의 평가축을 교차시켰던 것에 비해 생활개혁지수는 이를 활동에 곧바로 규범적 평가를 결합시켜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나타낸다.

둘째, 정책과 직결된 지표이다 보니 정책이 목표로 하는 인구집단을 직접 겨냥한 측면도 나타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여성, 고령자 등이 개혁의 대상집단이며, 2003년 개정된 생활개혁지수에서는 젊은이 역시 대상집단으로 추가되었다. 이처럼 특정 인구집단과 관련된 정책의 측면들은 주로 신국민생활지표에서 공정이라는 평가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표를 작성하는데 포함된 항목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1974년 사회지표가 200~300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1986년 신사회지표가 136개의 지표를 사용하며, 1992년의 신국민생활지표가 170개의 지표를 사용한 반면, 2002년 작성된 생활개혁지수에는 41개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대폭 지표의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신국민생활지표에서는 주관적 만족도 등 주관적 지표를 평가축별 종합화를

위한 가중치 부여에만 활용하였으나, 생활개혁지수에서는 주관적 측정치를 그대로 활용하여 생활의 안심감(혹은 반대로 불안감)과 만족감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안심감은 <국민생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번뇌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뺀 차이지수(difference index)로 측정되었으며, 만족감은 신국민생활조사의 8개 활동영역별로 만족감을 질문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한 <국민생활선호도조사>의 결과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결과이다.

다섯째, 생활개혁지수 역시 과거의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지표에 대해 연도별 변화율의 총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제외한 8개의 각 측면별로 표준화된 개별지표의 단순평균을 취하여 분야별 지수를 계산하였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과거 신국민생활지표의 평가축을 구한 방법대로 개별 지표를 가중평균하였다.

#### 4. 생활개혁지수의 작성과정 및 결과

##### 1) 구조개혁 측면의 추출논리

생활개혁지수는 국민생활의 관점에서 당시 추진되고 있던 구조개혁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진전의 정도를 비화폐적인 면을 포함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구조개혁의 여러 측면들을 추출해야 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첫째는 국민생활선호도조사에 기초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의 실시이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어떤 측면들을 중요시하는가라는 주관적 평가의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선호도조사에서 60개의 질문항목들에 대해 각각 중요도, 충족도 그리고 필요도(needs) 측면에 걸쳐 응답한 결과를 주성분 분석한 결과 중요도에서 10개의 주성분(누적기여율 59.1%)이, 충족도에서 13개의 주성분(누적기여율 61.3%)이 그리고 필요도에서 11개의 주성분(누적기여율 60.3%)이 추출되었다.

둘째로 이전의 신국민생활지표에서 사용한 8개의 활동영역과의 정합성을 기초로 여러 측면들이 추출되었다. 아래 표는 2002년도 작성된 생활개혁지수의 구조개혁의 9개 측면과 신국민생활지표의 8개 활동영역을 연결시킨 것이다. 구조개혁의 9개 측

면 중에서 마지막인 안심 할 수 있는 사회는 신국민생활지표의 평가축 가운데 첫 번째인 안심 및 안전과 직결된다.

활동영역 이외에도 여성이나 고령자와 같은 인구집단의 속성과 교류, 환경, 안심 등과 같은 평가의 관점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구조개혁의 9개 측면이 추출되었다.

<표 1> 일본의 생활개혁지수(2002년)

구조개혁의 9개의 측면	PLI의 8개의 활동영역
거주하기 좋은 사회	거주하다
일하기 좋은 사회	일하다
배우기 좋은 사회	배우다(기르다와 일하다, 사귀다 관련정책 포함)
애 키우기 좋은 사회	기르다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일하다, 기르다 (소비하다, 사귀다 관련정책 포함)
고령자가 활기 있는 사회	치유하다 (일하다, 사귀다 관련정책 포함)
정보와 사람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	사귀다(기르다, 배우다, 거주하다, 소비하다 관련정책 포함)
환경이 좋은 사회	거주하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거주하다, 소비하다, 치유하다

이처럼 2002년 지표 작성 당시 추출된 9개의 구조개혁의 측면들에 2003년에는 짚은이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라는 또 하나의 측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4년 생활개혁지수의 작성은 이전의 지표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등 전체 7개의 측면으로 전폭적으로 재조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구조개혁의 측면들에 대한 구분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서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2002년에 포함되었던 자녀 키우기 좋은 사회의 내용은 2004년에 누락되었으며, 대신 2004년에는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와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가 추가되었다.

<표 2> 일본의 생활개혁지수(2004년)

2004년도 구조개혁의 측면들	2002년도 구조개혁의 측면들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거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이 좋은 사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일하기 좋은 사회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 사회, 고령자가 활기 넘치는 사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정보와 사람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배우기 좋은 사회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애기우기 좋은 사회

## 2) 영역별 개별지표의 선정

<표 3> 2002년 생활개혁지수의 개별지표

구조개혁측면	관련정책(평가포인트)	개별 지표
거주하기 좋은 사회	주택시장의 정비 집과 직장의 근접 주택취득	중고주택유통량(+) 통근통학평균시간(-) 신축주택1호당면적(+) 연수입대비주택구입비율(-)
일하기 좋은 사회	취업 다양화 유연화 창업지원 여유 안정망 고용환경	재량노동제채택기업비율(+) 대학에서 시작한 벤처수(+) 주5일근무제채택기업비율(+) 공공직업안정소개소취직건수(유효구직자천명당: +) 실업률(-)
배우기 좋은 사회	교육력의 향상 자조노력지원 평생학습의 확충 교원의 다양화 교육환경	교원1인당아동, 학생수(-) 육영회장학생수(학생수에서 점하는%: +) 사회인특별선발입학자수(대학, 대학원 입학자만명당: +) 특별비상근강사수(초중고교원만명당: +) 초중학교장기결석아동, 학생수(아동, 학생만명당: -)
애기우기 좋은 사회	애기우는 가정지원	페밀리서포트센터수(+) 보육원아동수(0~5세인구만명 대비: +) 유치원재적율(3~5세인구만명 대비: +) 아동관수(3~11세인구만명 대비: +) 아동학대상담처리건수(-)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 사회	맞벌이 가정지원  여성의 취업지원  여성의 사회진출	보육원아동수(0~5세인구만명 대비: +) 연장보육실시시설수(대상천세대당: +) 방과후아동학급설치수(6~10세인구만명 대비: +) 여성고용취업율(+) 여성관리직비율(+)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
고령자가 활기 넘치는 사회	고령자의 취업지원  시설의 확충  개호서비스의 충실 사회참여의 촉진	65세이상취업율(+) 실버인재센터등록자수(+) 특별요양노인홈정원수(65세이상인구만명당: +) 경비노인홈정원수(65세이상인구만명 대비: +) 주간서비스시설수(65세이상인구만명 대비: +)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시간(+)
정보와 사람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	IT를 통한 편리의 향수  IT교육 시민참여	휴대전화누적가입수(+) 인터넷세대이용율(+) 소비지출에서통신비의비율(+) 학교의 PC설치대수(+) 사회적활동시간(+) 자원봉사단체수(+)
환경이 좋은 사회	환경	일인당쓰레기배출량(-) 재활용율(+) 쓰레기위생처리율(+) 민생부문(가정)에서 CO2 배출량(-)
안심 가능 사회	생활의 불안, 만족	신국민생활지표(PLI)의 생활평가축의 안전, 안심을 활용

<표 4> 2004년 생활개혁지수의 개별지표

구조 개혁의 측면	개별 지표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 일인당쓰레기배출량(-) 위험시설의화재사고발생건수(-) 일인당공원면적(+) 일간당재해피해액(-) 형법범검거율(+) 시큐리티관리소프트출하라이센스수(+) 일인당거주실의면적수(+)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플렉스타임제(변동노동제)채용기업비율(+) 자발적실업자수(실업자수대비: -) 경영상의이유로인한이직자비율(-) 이직자중에서전직자의비율(+) 공민직업소개기관에의한취업건수(실업자수대비+) 쟁의행위를동반한노동손실일수(-) 유급휴가소화율(+)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저축제로세대비율(-) 소비자물가지수의절대변화율(-) 실질연간수입(전세대+) 공적연금납부율(+) 파트타임노동자의단위시간당임금(+) 탈세처리건수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관리직 전문직 취업자비율(+) 고졸임금신장율(+) 여성관리직비율(+) 여성단위노동당임금(+) 징애자실고용율(+) 고령자(60~69세)취업율(+)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교육위원회에서사회교육학급,강좌수(+) 공민관에서여러집회의실시건수(+) 사회적활동시간(+) 관광여행인수(++) 체육시설의이용자수(+)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교원일인당아동학생수(+) 특별비상근강사수(고교교원만명당+) 해외체재하는유학생,연구자,교사수(+) 연장보육실시시설수(대상세대천가구당+)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식료품소비자위험정보건수(-) 소비자행정담당직원수(+) 기분장애실진료일수(-) 체력조사평균득점(19~54세제외+) 최고재판소에서의료관계소송신규건수(-) 건강진단을받은사람수(인구만명당+) 보험의료비지출비율(35세이상-)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2002년과 2004년의 생활개혁지수의 개별 지표들은 구조 개혁 정책의 진척 정도를 국민생활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이 지수의 목적을 반영하듯 정책의 결과 즉 output 혹은 outcome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이 두 시점 중간인 2003년의 생활개혁지수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젊은이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라는 구조개혁의 측면이 추가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별 지표들이 활용되었다.

- 완전실업률 (15~34세) (-)
- 대학에서 만들어진 벤처수 (+)
- 관리직·전문직으로의 취업자 비율 (전체 취업자 대비) (+)
- 영펠로우워크 이용자의 취업건수 (+)
- 대졸자격취득자수 (+)
- 인턴쉽 실시학교 (+)

또한 2003년도에는 일하기 좋은 사회 측면에 다음의 개별 지표들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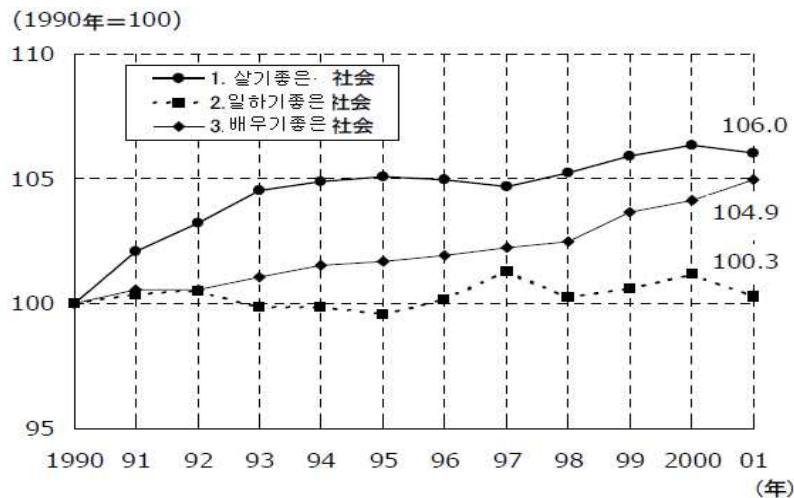
-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 (상용고용자 대비) (+)
- 장애자의 취업건수 비율 (전체 장애자 등록자 대비) (+)

### 3) 생활개혁지수의 추산 결과

2002년도에 처음 시산된 생활개혁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을 100으로 하여 각 구조개혁의 측면별로 지수가 작성되었다. 아래 그림들은 9개의 측면들 중에서 3개씩 지수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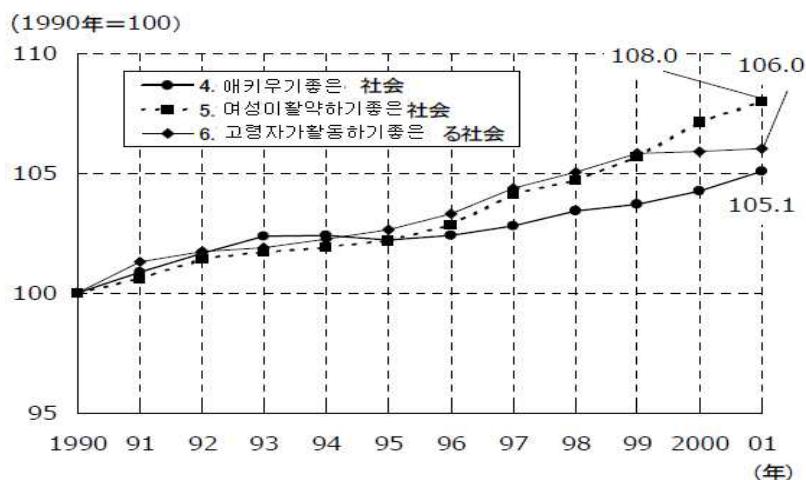
먼저 살기좋은 사회와 일하기 좋은 사회, 배우기 좋은 사회를 비교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버블 붕괴 이후 거주환경 및 주택공급 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며, 교육투자를 통해서 교육 측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성장과 고용불안정 때문에 근로조건 및 환경은 지지부진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아래의 그래프는 보여준다.

[그림 2]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구조개혁의 측면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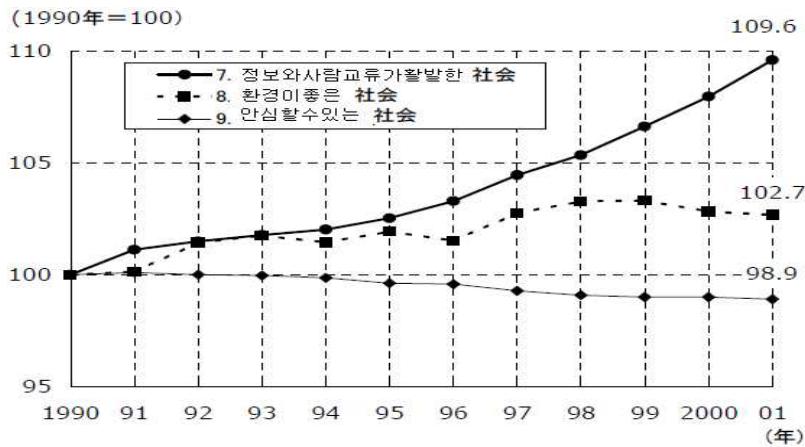
아래의 그래프는 자녀 키우기 좋은 사회,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 사회, 고령자가 활동하기 좋은 사회의 측면에서 생활개혁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90년 이후 대부분의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성과가 향상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구조개혁의 측면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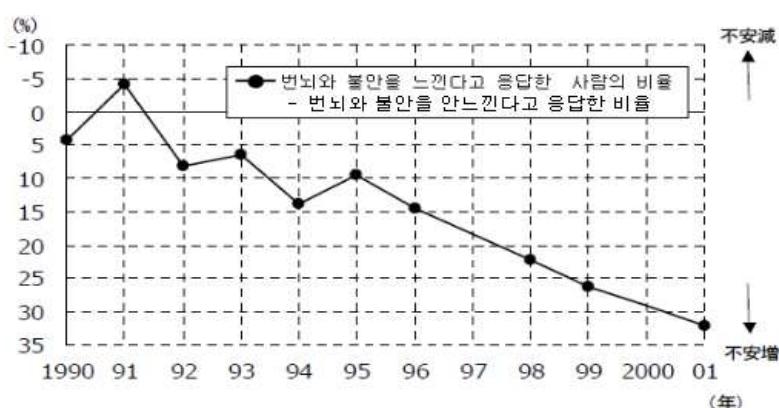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지수 중에서 정보와 사람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 환경이 좋은 사회,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추이를 아래 그래프는 보여준다. 정보와 사람의 교류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다. 한편 환경이 좋은 사회의 면에서는 미약한 개선을 볼 수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측면은 9개의 구조개혁 측면들 중에서 유일하게 악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구조개혁의 측면들 3



객관적 지표 이외에 주관적 지표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은 생활에 대한 안심감 혹은 반대로 불안감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국민생활에 대한 여론조사의 항목 중에서 번뇌와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서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뺀 이 지수는 값이 양(+)의 값으로 커질수록 불안감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래프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 초 이후로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로는 그 격차가 30%를 넘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반대로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의 두 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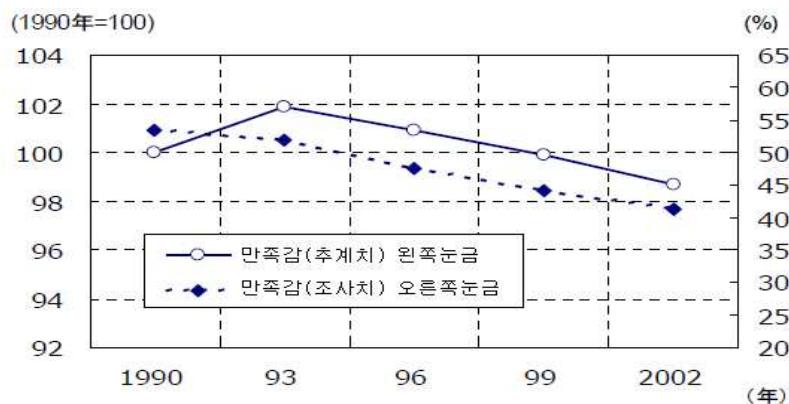
[그림 5]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번뇌와 불안감



또 다른 주관적 측정치로서 만족감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만족감은 1990년대의 신국민생활지표(PLI)의 영역별 만족감을 질문한 국민생활선호도조사의 자료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이다. 객관적 자료를 추계한 값과 주관적 만족도에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한 아래 그래프에서 두 지표 모두 1990년대 초반 이후로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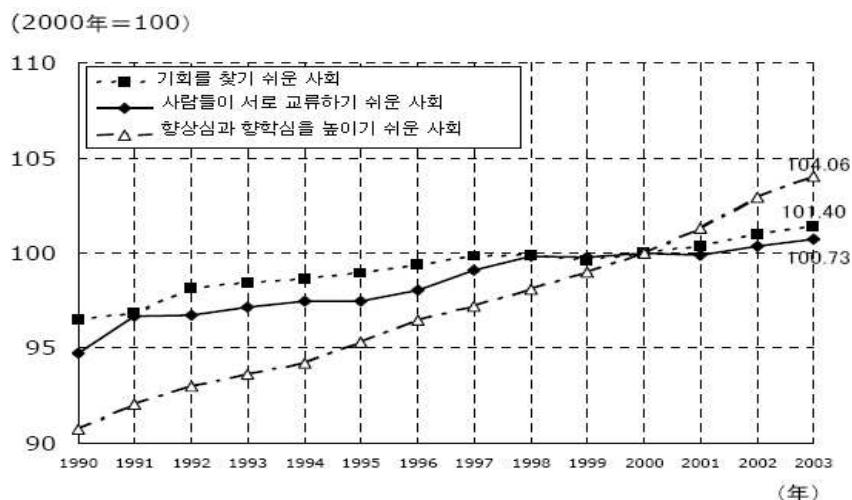
[그림 6]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만족감



2004년도에 대폭 개정된 지표체계로 추산된 결과는 어떠한가 살펴보자. 1990년을 기준인 100으로 설정한 2002년도의 추산 결과와 달리 2004년도에는 2000년도를 기준인 100으로 설정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의 세 측면에서 지수값들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선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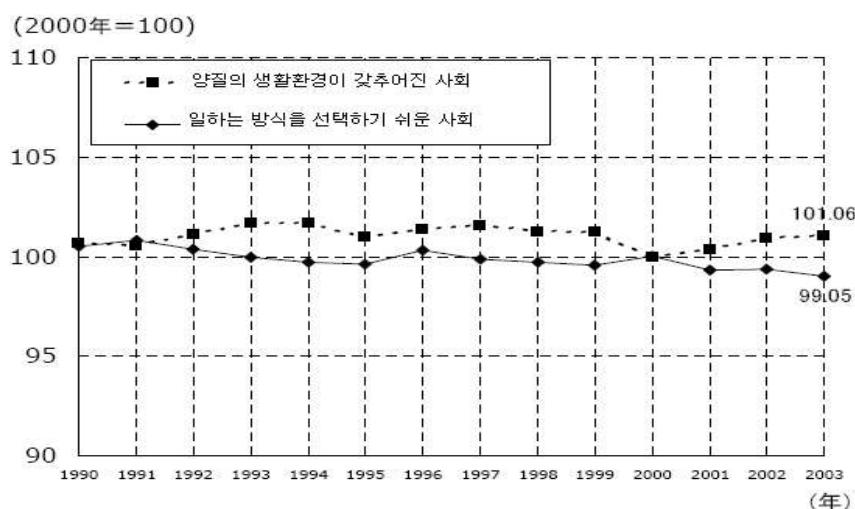
[그림 7]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활동영역 1



그에 비해 아래의 그래프는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및 일하는 방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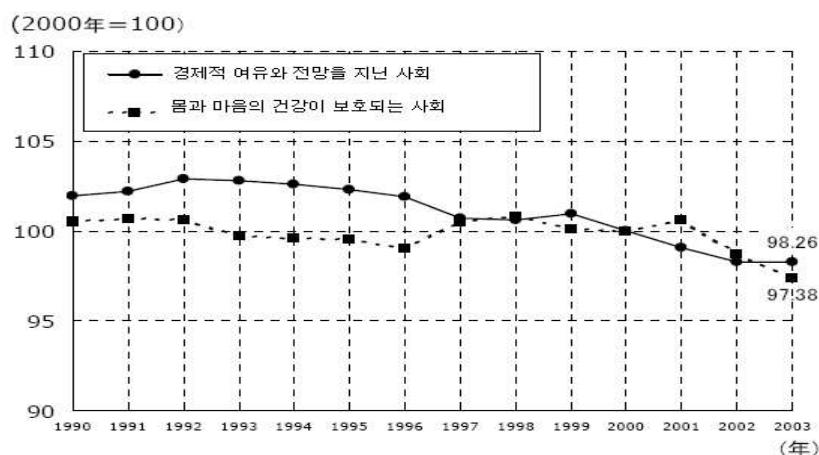
선택하기 쉬운 사회의 측면에서 지표가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 상태임을 보여준다. 지표체계가 바뀌기 이전인 2002년에는 거주하기 좋은 사회와 환경이 좋은 사회의 측면에서 모두 약간씩의 개선이 있었는데 이를 두 측면을 합친 양질의 생활환경을 갖춘 사회의 지표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 측면에 포함된 개별지표가 바뀐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2002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및 환경의 면에서는 경제의 전반적 저성장과 고용의 불안정 및 고용의 질 악화 등으로 인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활동영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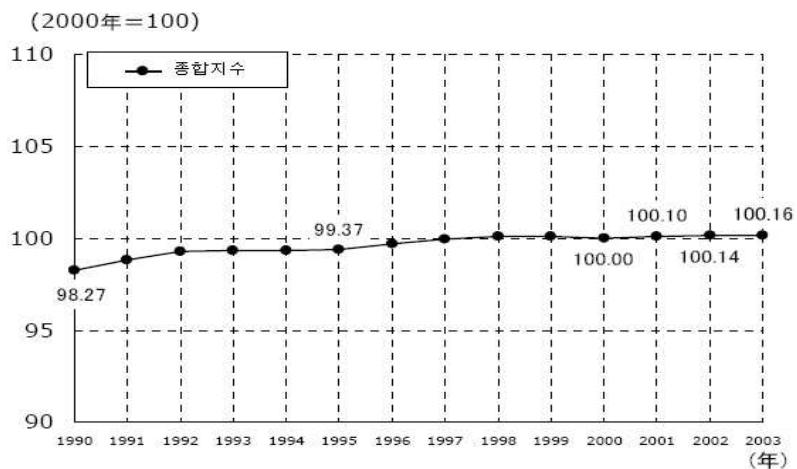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아래의 그래프는 새로 추가된 영역인 경제적 여유와 전망 및 몸과 마음의 건강 두 측면에서 모두 2000년대 들어와서 지표가 하락하는 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삶의 질의 중요한 두 측면인 건강과 경제적 상황 면에서 일본이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활동영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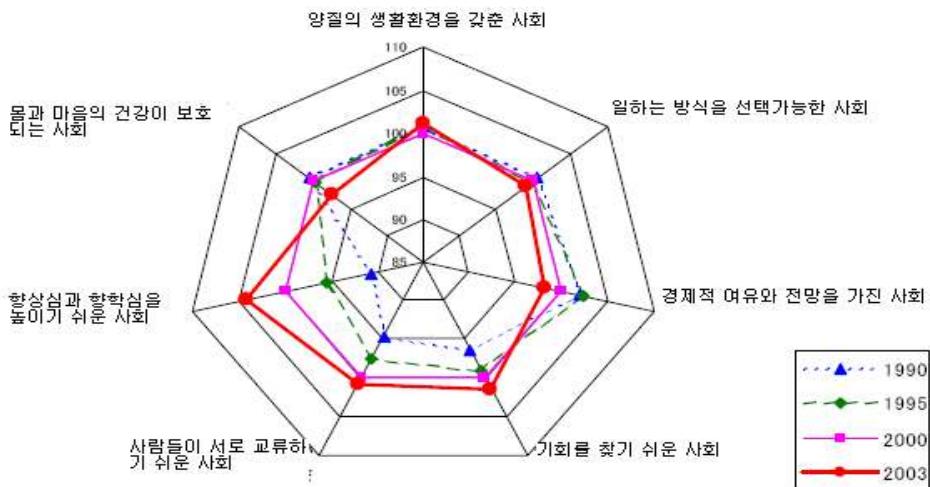


2004년에는 이러한 7개의 측면들을 모두 종합해서 생활개혁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아래 그래프는 이 종합지수가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종합지수



[그림 11]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위의 그래프는 마지막으로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생활개혁지수 값의 변동을 각 측면별로 비교한다. 뚜렷한 개선을 보이는 측면이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라면 악화된 측면은 앞서 보았듯이 경제적 여유 및 전망과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보호이다. 그밖에 사람들 간의 교류나 기회의 부여 측면에서는 완만한 개선을 볼 수 있고 일하기 좋은 측면이나 양질의 생활환경 측면은 거의 변화를 볼 수 없다.

## II. 캐나다 웰빙 지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 웰빙 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건강(Health),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Time Us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다시 수십 개의 변수들로 측정된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Headline indicators)를 구축하고자 한다.

생활수준 영역은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사회 내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건강 영역은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체 활력 영역은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지표로 채워진다. 민주적 참여 영역은 시민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가와 문화 영역은 예술과 관련된 활동이나 여가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간사용 영역은 인간의 웰빙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시간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영역은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역은 웰빙의 기초가 되는 자연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덟 개 영역들의 지표와 지수를 구성하는 접근방법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Top-down 또는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우선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과 결정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세우고 이에 합당한 지표와 지수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둘째, Bottom-up 또는 경험적 접근 방식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가용한 자료들을 탐색한 후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셋째, Bi-directional 또는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개념적 틀의 구성과 자료의 탐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다. CIW는 세 번째 접근 방식인 실용적 방법을 취해 진행되었다.

[그림 1] 웰빙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



[그림 1]은 웰빙의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로 불리며, CIW의 구성 영역들과 그 관계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만다라의 중심을 웰빙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사회와 캐나다인들이 진보하고 있는 양상을 측정하려는 CIW 프로젝트팀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가운데에 있는 웰빙은 세 개의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은 인간이 웰빙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한 가운데에 있는 원에서 첫 번째 원은 웰빙을 위한 개인적 자원 - 인간이 개인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 - 을 나타내는데 건강, 교육, 시간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은 지역공동체에서 전체 사회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 영역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는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을 나타내며 생활수준, 공동체 활력, 여가 및 문화, 민주적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원은 환경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웰빙을 위한 생태체계자원(ecosystem resources)을 나타낸다. 이 세 번째 원은 생태체계자원이 다른 원들과 영역들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기도 하다. 종합해서 보면, 만다라를 구성하는 전체 체계의 모든 구성요소들과 결정요인들을 알 수는 없지만 만다라의 모든 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 1. 생활수준영역(Living Standard Domain)

‘생활수준 영역’은 <표 1>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Osberg and Sharpe(2002)가 제시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들이 제시한 개념적 틀은 소득수준 및 분배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현 생활수준과 개인이 향유하는 부의 크기와 경제적 안정 수준을 통해 측정 가능한 현 소득수준이 생활수준의 주요 측면들을 구성한다.

<표 1> 경제적 웰빙의 차원들

개념	현재	미래
‘전형적 시민’ 또는 ‘행위자’	현 소득/소비의 평균 유동성	생산자산의 총 누적액
전체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의 이질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분포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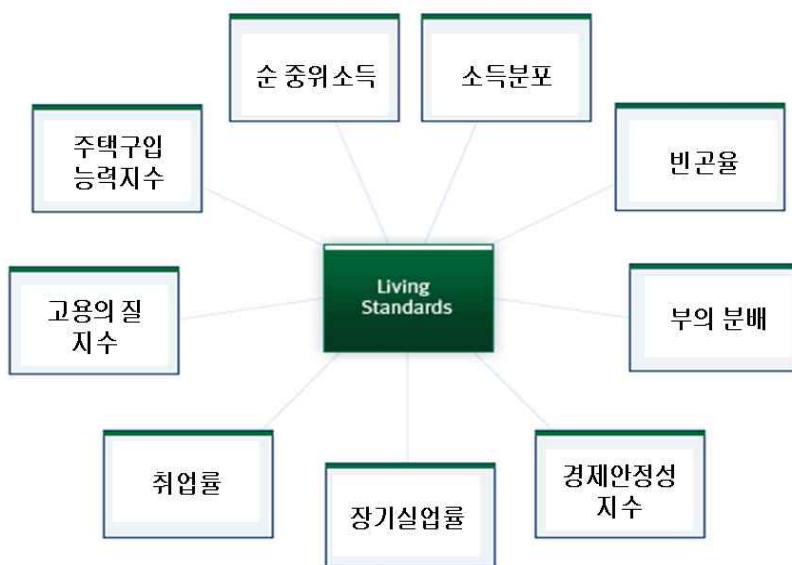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생활수준 영역’ CIW 연구자들은 평균 및 중위 소득과 부와 관련된 지표의 추세, 시기별 소득과 부의 분배 수준, 소득변동 추세, 경제적 안정성의 추세 등과 관련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5개의 주된 결론을 얻게 된다. (1) 캐나다에서 소득과 부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향상되어 왔지만, (2) 그에 못지않게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 증가해 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증가는 빈곤율의 감소를 가져 왔다는 것, 그리고 (4) 전반적인 노동시장 조건의 개선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5)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는 한계가 있다.

<표 2> 생활수준 영역의 11개 지표들과 이용가능연도

지표	이용가능연도
·순(세금공제후) 중위소득	
·소득분포(소득5분위 대 소득1분위의 비)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 LICO) <sup>12)</sup>	1981~2008
·CSLS(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의 경제안정성 지수	
·장기 실업률	
·취업률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CSLS)의 고용 질 지수	1988~2008
·주택구입능력지수	1985~2008
·부의 분배	1984, 1999, 2005
·저임금의 지속성	2000
·식량불안정성	일부 연도만 가능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연구진들은 아래와 같이 ‘생활수준’과 관련된 최초 11개의 지표들을 선정하였다[그림 2]. 그러나 이들 11개 지표들 중에서 9개 지표만이 연차적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저임금지속성과 식량불안정성은 시계열적 비교가 불가), 부의 분배와 관련된 자료는 3개년만(1984년, 1999년, 2005년) 비교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1988년 이후, 주택구입능력지수는 1985년 이후부터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수준과 관련된 핵심지표들은 1988년 이후의 자료에 한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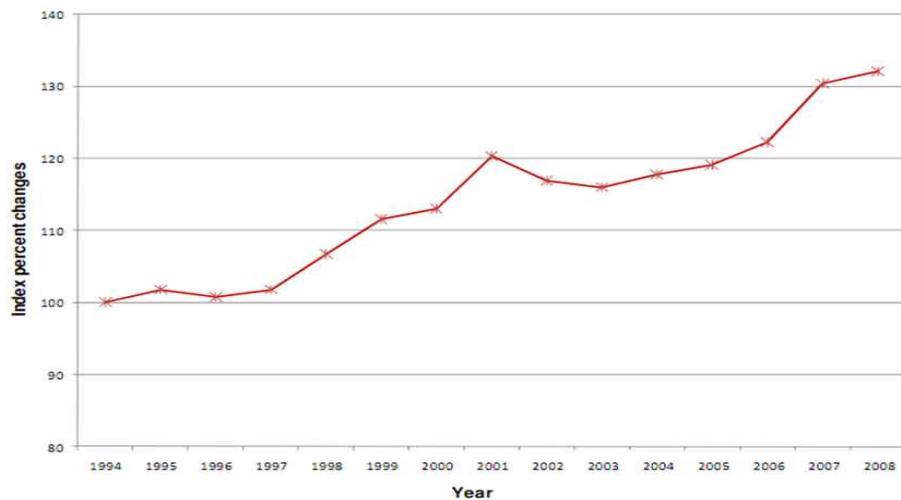
[그림 2] 생활수준 영역의 9개 하위영역



그러나 CIW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1994년을 기준시점으로 한정하였는데, 생활영역의 9개 하위지수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들의 평균값을 산출해 얻은 구성지표들의 분포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의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12) 캐나다는 정부가 규정하는 공식적인 빈곤선은 존재하지 않으나, 1967년 Jenny Poduluk이 개발한 빈곤측정 방식인 LICOs(Low Income Cut-Offs)가 준공식적 빈곤선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LICOs는 과세 전 소득에서 의식주에 대한 소비 비율이 평균가구보다 20% 높은 가구의 소득수준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는 가구규모와 지역규모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된다. 현재 1992년 가구소비자료에 기초한 LICOs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LICOs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갱신하고 있다(여유진 외, 2007).

[그림 3] 생활수준 영역의 연도별 구성지표의 추세(199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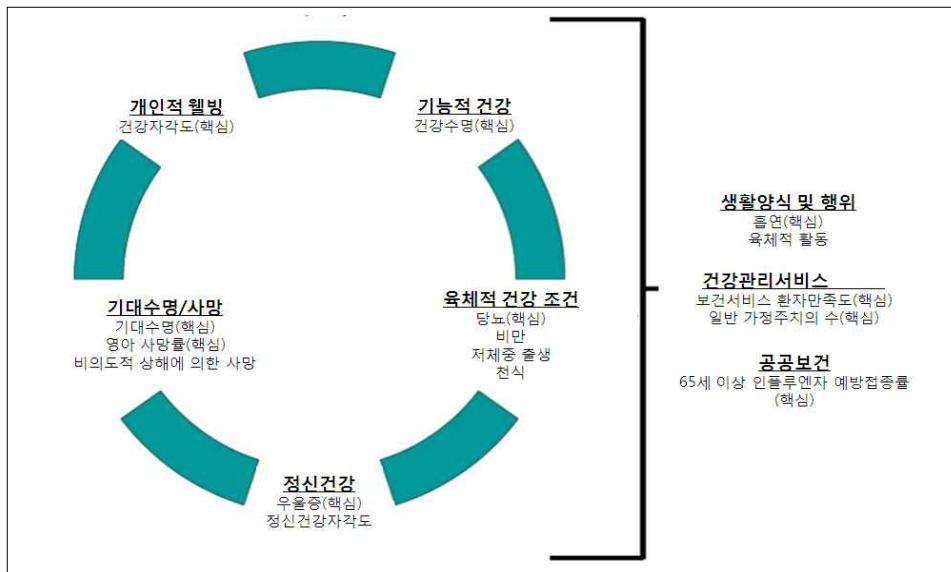


## 2. 건강 영역(Health Population Domain)

### 1) 개념적 틀의 구성

건강은 삶의 질의 기본적 요소로서, 유전적 특질에서부터 환경적 영향과 조건을 포괄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성별, 문화, 생활 및 근로 조건, 물질적 환경, 건강 서비스, 유아기 발달, 사회적 지원, 개인적인 건강 실천 및 대처능력 그리고 생물학적 특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요인들은 CIW 내에서 건강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 포함된 지표들과 중첩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이 요인들과 건강 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발전이 있어 왔지만, 완전한 수준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인구 영역의 개념적 틀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건강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건강의 결과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선정된 하위 영역들과 관련 지표들에 대한 개념적 틀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건강인구 영역의 개념적 틀



먼저, 개인적 웰빙, 기대수명/사망, 육체적 건강 조건들, 기능적 건강 그리고 정신건강 등과 같은 5개의 하위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은 건강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하고 있다. 이 결과들은 CIW의 다른 영역에서 측정되는 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활수준, 학습과 지역사회 참여 등과 같은 웰빙의 다른 측면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면, 다른 영역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며, 건강 결정요인과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3가지 하위영역은 생활양식과 행위, 건강관리 및 공공보건이다.

## 2) 지표의 선정 및 측정

앞서 살펴본 개념틀 틀에 기반하여 '건강인구 영역'의 하위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은 크게 핵심 지표와 이차 지표로 구성되며, 각 하위영역별로 지표들을 선정하고 측정하는 과정은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크게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림 5] 건강인구 영역의 지표선정 과정

과정 (참조)	지표선정 기준 마련	후보 지표 수집		핵심 및 이차 지표 선정
		지표선정기준	외부전문가 자문 · 기준 건강지표	
		· 지표선정기준		

지표선정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지표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들이 적용되었다.

- 자료의 질: 명확히 정의되고, 측정가능하며, 명료하고 입증 가능한 지표들
- 자료의 정확성: 시간에 따른 벤치마킹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로서, 추세분석을 통해 최소 세 시점 동안 시계열적인 또는 반복적인 자료
- 자료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이해 가능하며, 믿을 수 있고, 의미 있음은 물론, 정책개입의 결과로서 변화될 수 있는 정책적 적절성을 가진 지표들
- 자료의 다양성: 건강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들
- 자료의 공간적 민감성: 지역수준에서 비교가능 하도록 국가, 시도 등과 같이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들
- 자료의 사회인구학적 민감성: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별로 분석 가능한 지표들

이러한 기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두 번째 단계는 개별 연구진들이 건강인구 영역에 포함될 예비 지표들을 모으는 작업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수집된 지표들을 각 하위영역별로 앞서 살펴본 지표선택기준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핵심지표와 이차 지표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적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통계청과 캐나다 건강연구원에서 사용된 건강지표체계(Health Indicators Framework, HIF)와 비교하여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림 6]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HIF와 CIW의 ‘건강인구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이들이 구성한 건강인구 영역이 공공정책과 기존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6] 건강지표체계(캐나다 통계청, CIHI)와 CIW 건강인구 영역과의 비교

건강상태(Health Status)			
웰빙	건강조건	건강기능	사망
비의료적 건강결정요인			
건강 행위	생활과 근로 조건	개인적 지원	환경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의 수행성과			
만족도	접근성	적합성	능력
지속성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
지역사회 및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지원들	

앞서 살펴본 과정을 통해 선정된 지표들은 크게 핵심지표와 이차 지표로 구성되며, 객관적 지표들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건강 척도가 주관적 척도보다 반드시 과학적이거나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개인의 인식이나 동의 정도 또는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표 3> 건강인구 영역의 지표 구성

하위영역	지표	핵심/이차 지표 여부
기대수명/사망	기대수명	핵심
	영아사망률	핵심
	비의도적 상해 사망	이차
기능적 건강	건강수명	핵심
개인적 웰빙	건강자각도	핵심
육체적 건강 조건	당뇨	핵심
	비만	이차
	저체중 출생	이차
	천식	이차
정신 건강	우울증	핵심
	정신건강자각도	이차
생활양식 및 행위	흡연	핵심
	육체적 활동	이차
건강관리서비스	환자만족도	핵심
	일반 가정주치의 수	핵심
공공보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핵심

이러한 건강인구 영역을 구성하는 9개의 하위영역들 중에서 핵심지표만을 선별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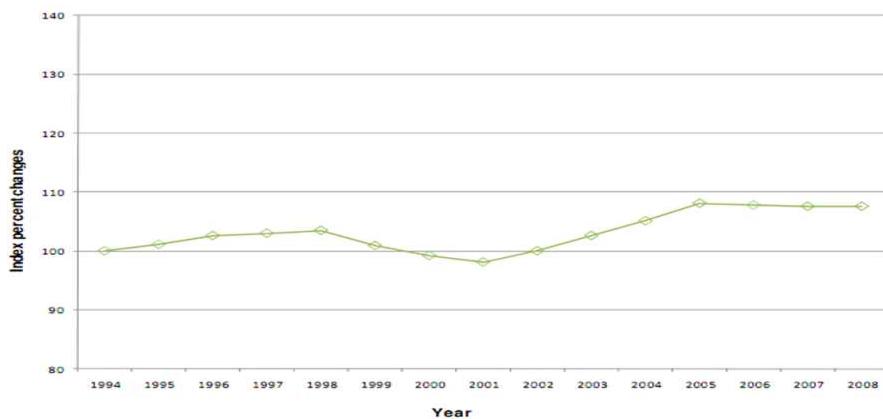
[그림 7] 건강인구 영역의 9개 핵심지표



위에서 밝힌 것처럼, CIW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1994년을 기준시

점으로 한정하였는데, 건강영역의 9개 하위지수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들의 평균값을 산출해 얻은 구성지표들의 분포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의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8] 건강인구 영역의 연도별 구성지표의 추세(199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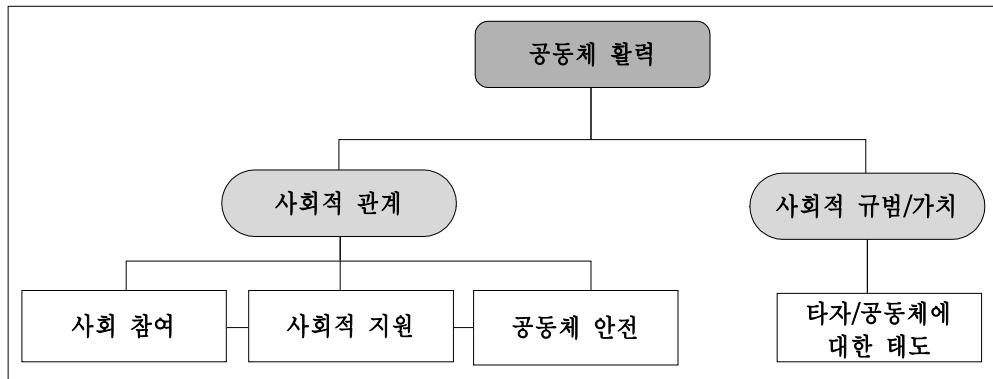
### 3.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Domain) 영역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영역들에 대하여 맥락으로 기능하고 공동체의 사회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CIW의 주요 요소로서 ‘공동체 활력’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연구진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동체 활력 영역 자체가 개인과 사회적 웰빙과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CIW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잘 부합하도록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개념 및 범위, 분석단위의 문제 그리고 측정의 문제 등을 심사숙고해야 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사회활력에 포함된 지표들은 이웃,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관계의 특성과 질을 강조하는 것들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활력을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거주자, 민간부문,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조직 간의 강하고 활동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관련 지표들을 크게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부문과 사회적 규범 및 가치(social norms and values) 부문으로 구분

하고 각 부문별로 하위 영역을 분류하여 [그림 9]에 제시된 바와 같은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9] 공동체 활력 영역의 개념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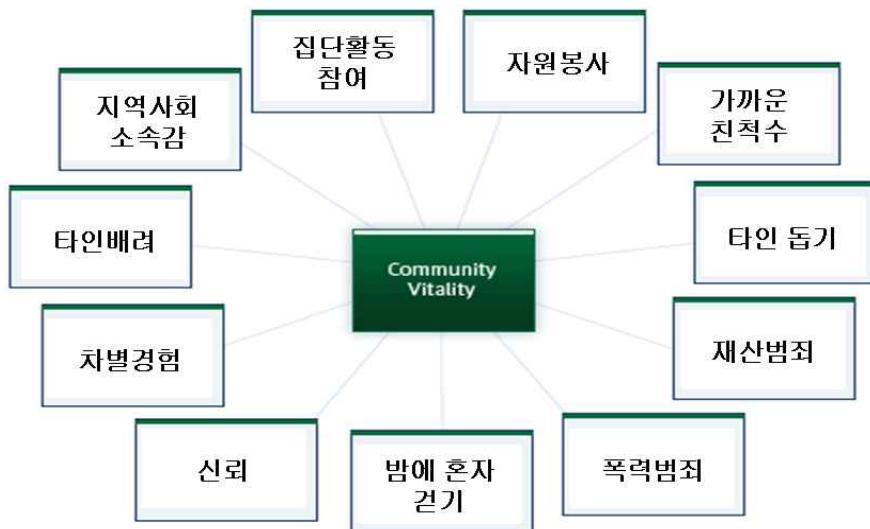
이러한 개념적 모형을 설정한 이후에 연구진들은 선행연구와 공동체 활력과 관련된 다른 지표선정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하위 영역별로 핵심지표와 이차 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4> 공동체 활력 영역의 지표들

구분	개념	지표	핵심/이차 지표 여부
사회 참여	사회 참여	·집단활동 참여	핵심
		·자원봉사	핵심
		·자선기부	이차
	시민 참여	*민주적 참여 영역에 포함	이차
	경제적 참여	*생활수준 영역에 포함	이차
사회적 지원	사회 연결망 규모	·가까운 친척의 수	핵심
		·가까운 친구의 수	이차
		·가까운 이웃의 수	이차
		·독거 여부	이차
	호혜성	·타인 돕기	핵심
		·도움 수혜여부	이차
지역사회 안전	범죄	·재산범죄	핵심
		·폭력범죄	핵심
		·약물범죄	이차
		·성폭력	이차
		·가정폭력	이차
	안전에 대한 인식	·밤에 혼자 걷기	핵심
지역사회 안전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	핵심
	다양성 존중	·연결 유대	이차
		·차별 경험	핵심
	이타주의	·타자에 대한 배려	핵심
	소속감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핵심
		·고립감	이차

이러한 공동체활력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 중에서 11개의 핵심지표만을 선별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공동체 활력 영역의 개념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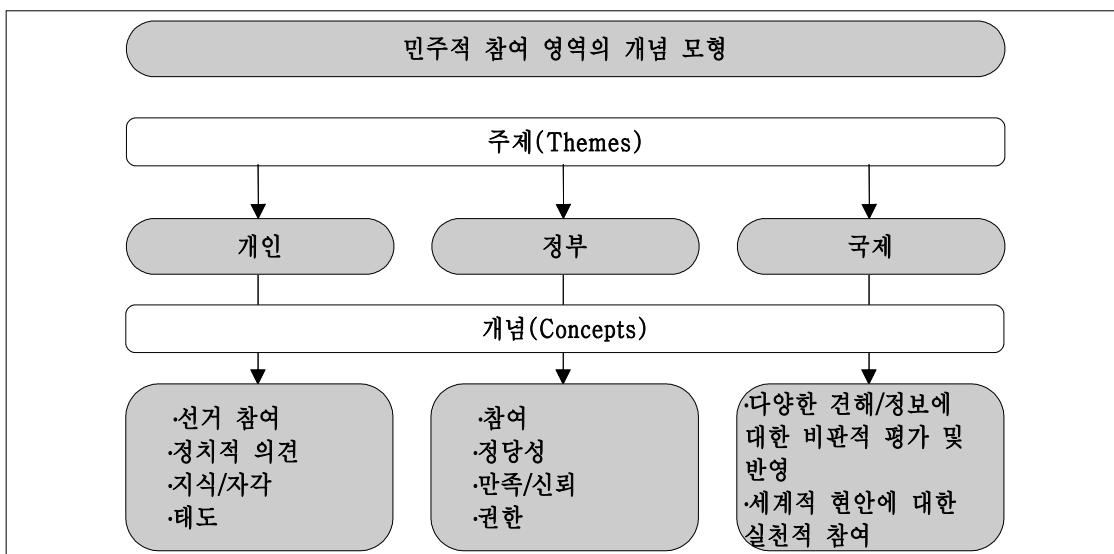
#### 4. 민주적 참여 영역(Democratic Engagement Domain)

‘민주적 참여’ 영역의 담당 연구진들은 CIW의 다른 하위영역의 지표들과 캐나다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동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민주적 참여 영역의 많은 구성요소들이 지역사회 활력, 건강인구 또는 교육 영역에서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영역과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연구진들은 CIW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연계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과는 차별되는 독립적 영역 구성을 위해 (1) 민주적 과정에 대한 개인의 참여, (2) 개방성, 투명성, 효과성, 공정성, 그리고 평등과 접근가능성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기능과 거버넌스, (3) 초국적 맥락에서 캐나다 국민, 정부, 시민사회와 좋은 시민으로써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민주적 참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사실, 정치,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적 참여’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시민참여라는 용어가 많이 이용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O'Neill, 2006). 특히 시민참여는 시민사회에 대한 개인의 참여만을 고려

할 뿐 거버넌스나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IW의 다른 하위 영역인 지역사회활력 영역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민주적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진은 ‘민주적 참여’를 “정치적인 제도, 조직 및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민주적 참여는 시민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적 지식을 습득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들과 관계, 신뢰, 공유된 책임감 및 참여기회를 확립하고, 민주적 가치들이 세계적 수준에서 시민, 정부 및 시민사회에 의해 유지될 때 ‘민주적 참여’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민주적 참여 영역의 개념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민주적 참여 영역의 개념모형



이러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각 개념별로 민주적 참여의 모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자. 먼저, ‘개인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individual democratic engagement)’에 대한 개념모형은 CHI(Civic Health Index)와 시민참여 전국조사(National Civic Engagement Survey, 이하 NCES)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CHI는 9개의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40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치정보 습득, 정치에 대한 이해, 정치 참여,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및 친밀감, 그리고 정치적 견해의 표현 등의 영역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NCES에서는 핵심지표로서 시민 및 정치와 관련된 지표, 정치적 참여 지표, 정치적 주장 지표, 그리고 인지관심

및 지식 지표들을 참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개념적 모델이 선거참여, 정치적 견해, 정치적 지식/자각, 태도 등 4가지 주요 개념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민주적 참여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제정한 선거관리법에 나와 있는 민주적 혁신을 위해 제시된 참여, 정당성, 권한, 만족 및 신뢰 등 5가지의 주요 개념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정치참여조사(Audit of Political Engagement)의 핵심지표인 지식 및 관심, 행위 및 참여, 그리고 효율성 및 만족도의 개념 등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사와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참여, 정당성, 권한, 만족 및 신뢰 등 5가지의 개념으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UN, WVS(World Values Surveys) 등을 고려하여 개념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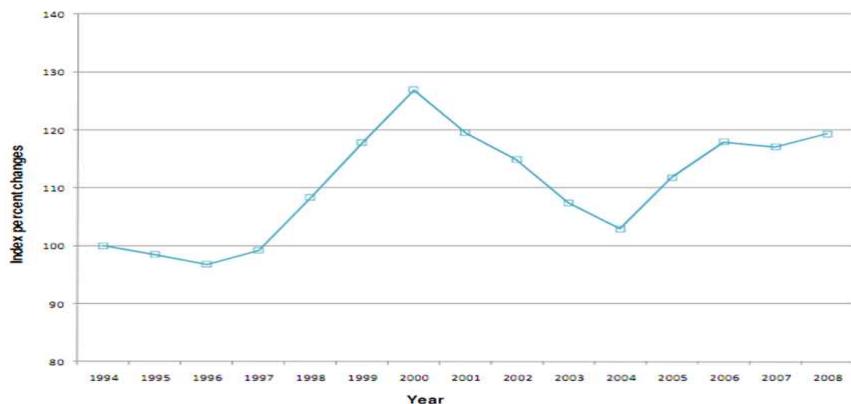
이러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민주적 참여와 관련된 지표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크게 3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연구진별로 선행연구와 기존 지표들을 참조하여 잠재적인 지표들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살펴본 개념모형에 기초하여 각 모형별로 분류되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며, 마지막으로 타당성, 질과 연관성 등과 같은 선정기준을 토대로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지표들을 영역별로 핵심지표와 이차 지표로 구분하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민주적 참여 영역의 지표들

주제	개념	지표	핵심/이차 지표 여부
개인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선거 참여	투표율	핵심
	정치적 견해	정치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율	핵심
	정치적 지식/자각	정치에 대한 관심	핵심
	태도	투표의 중요성	이차
정부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참여	잠재투표자 대 투표등록자의 비율 여성국회의원의 비율	핵심 핵심
	정당성	정부결정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이차 핵심
	만족도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	핵심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이차
		국제의무에 대한 참여정도 GNI 중 국제원조 비율	이차 핵심
국제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민주적 참여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얻은 구성지표들의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민주적 참여 영역의 연도별 구성지표의 추세(1994~2008)



## 5. 여가와 문화 영역(Leisure and Culture Domain)

### 1) 개념적 틀의 구성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여가와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기본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해 대비되는 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여가는 ‘좋은 삶’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으로서 고려되어 왔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향유하는 여가와 문화 활동과 기회는 삶의 질과 웰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에 CIW에서는 웰빙의 한 영역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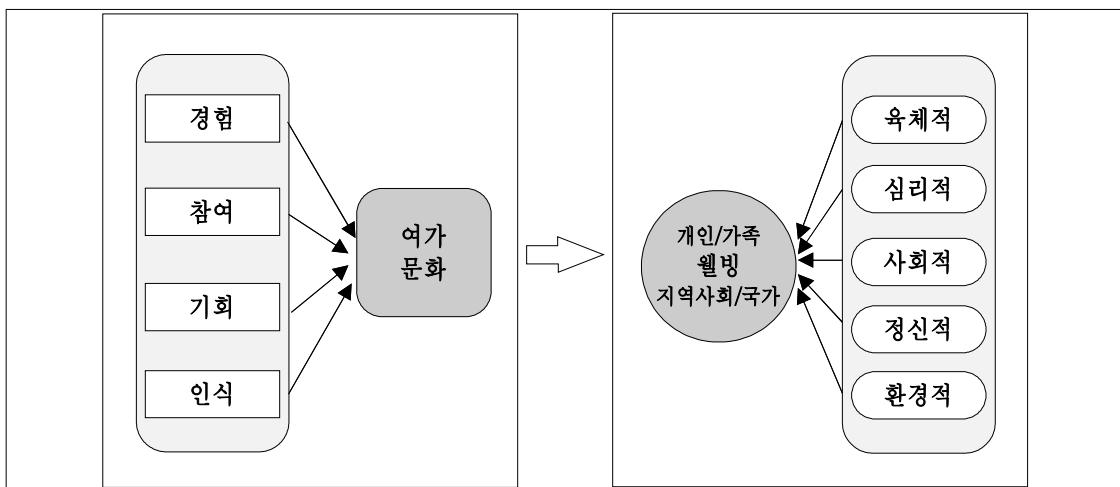
‘여가와 문화’ 영역의 설정과 관련 지표의 선정과 구성은 크게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2008년 3월의 중간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으로, ‘예술’, ‘문화’, ‘레크레이션’, ‘여가’와 같은 단어들과 ‘웰빙’, ‘삶의 질’ 및 ‘건강’과 같은 단어들을 활용하여 과거 10년간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개념적 틀을 세우고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가와 문화’ 영역은 당초 ‘예술, 문화 및 레크레이션’ 영역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에 기초하여 잠재 지표들을 선정, 평가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동 영역은 현재와 같은 ‘여가와 문화’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여가라는 용어가 레크레이션, 연극, 스포츠 등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용어 역시 예술, 시각예술, 미술, 미디어 아트 등의 모든 측면들

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가와 문화에 대한 개념화는 참여(participation), 인식(perceptions), 경험(experience) 그리고 기회(opportunities) 등 4 가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참여는 활동이나 자유시간과 같은 여가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개인의 참여여부, 관여빈도, 강도, 시간 이용 등을 통해 측정된다. 다음으로 인식은 참여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며, 여가의 동거, 여가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인지적 성향뿐만 아니라 만족감, 혜택, 참여에 의한 욕구충족 등과 같이 결과의 측면도 포함한다.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의 특성이나 유형에 관계 없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가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다양한 시설, 개방된 공간, 그리고 예술, 문화,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이용 및 접근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가와 문화 영역’은 웰빙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는 아래의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웰빙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 수준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13]의 도식을 통해 여가와 문화가 다양한 차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레저 및 문화 영역의 개념적 틀



하지만 연구진들은 여가 및 문화와 웰빙과의 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별 관점에 기반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적합하지 못한 척도들은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서, Baker and Palmer(2006)의 연구를 들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남서부 주민 352명을 대상으로

22개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서열척도로 측정하고 4개의 범주로 묶어서 이것 들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각 범주들의 구 분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 레크레이션참여와 삶의 질 인식과는 연 관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들은 경험, 참여, 기회 및 인식 등 주요 관점 내에서 세분화된 범주 들을 구분함으로서 웰빙과의 연관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 지표들을 선정 하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참여와 관련해서는 여가와 문화 활동에 투여한 총시간, 예술·문화·레크레이션 장소 방문 및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문화 활동의 수는 각 활동의 기준시점(일, 월, 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하나의 구성지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은 동기, 만족도, 중요성 또는 가치와 같은 내용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연구진들은 다른 지표들과의 연계성과 그에 따른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자유시간의 이용과 가능성 또는 반대로 시간 스트레스, 시간부족 또는 압박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 주목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술, 문화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측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가·문화의 기회는 지역사회, 지역 또는 국가 등 규모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자료의 이용가능성도 다를 수 있다는 한계로 인해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 회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포괄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 지표의 선정 및 측정

연구진들은 앞서 살펴본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여가 및 문화 영역’의 지표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타당성, 질, 연관성, 실행가능성 등의 기 준들을 고려하였다.

<표 6> 여가 및 문화영역 지표선정을 위한 기준들

수용 기준	관련 기준	주요 내용
타당성	비교가능성	시간, 단위, 기준 및 집단들 간의 비교에 있어서의 타당성
질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부터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지원여부
	명확성	이해의 용이성
연관성	적용가능성	CIW 네트워크나 캐나다 시민들과 같은 주요 목표 청중에 대한 적용가능성 특히 여가·문화 영역 그리고 그것과 웰빙과의 관계에 대한 적용가능성
실행가능성	접근성	실질적이고 상대적으로 자료의 획득과 변환에 있어서의 용이성
	이용가능성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앞으로도 가능한 자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표선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팀의 연구진별로 후보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SS, 캐나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가구소비조사 등 다양한 조사자료들을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들을 구분하였으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총괄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각 지표들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구진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7개의 후보지표들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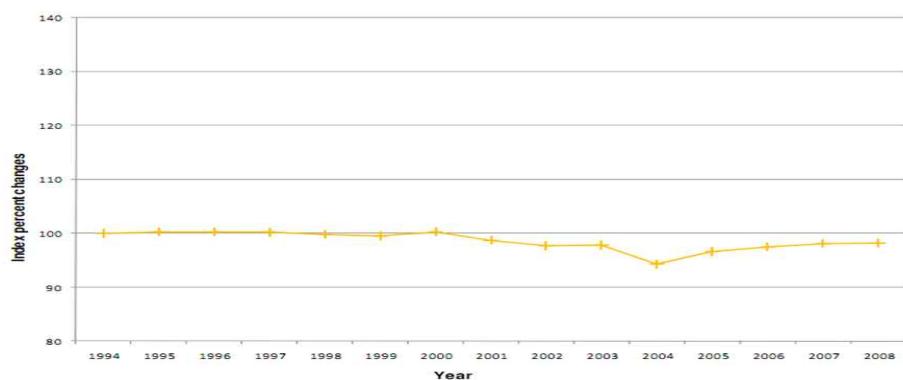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는 각 연구진들이 선정한 후보지표들을 앞서 살펴본 4 가지의 수용성 기준에 맞춰 5점 평가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평균점수별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들은 아래의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레저 및 문화영역의 주요 지표들

구분	지표
시간이용	하루 중 사회 레저활동 참여한 시간의 퍼센트
	하루 중 예술 및 문화활동에 참여한 시간의 퍼센트
	문화 및 레크레이션 조직에 대한 자원봉사한 연평균시간
활동/참여	15분이상 육체활동에 참여한 월평균빈도
	예술공연을 관람한 연평균횟수
	국립공원 및 유적지를 방문한 연평균횟수
	80km이상 떨어진 곳에 휴가를 보낸 연평균일수
지출	전체 가구지출 중 문화 및 레크레이션 지출의 퍼센트

여가 및 문화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얻은 구성지표들의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여가 및 문화 영역의 연도별 구성지표의 추세(199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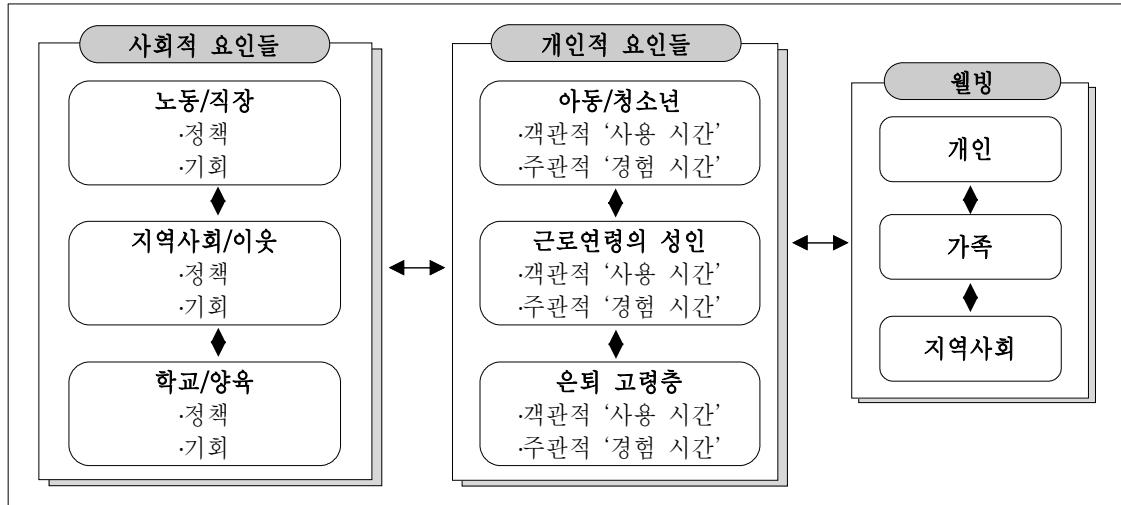
## 6. 시간사용 영역(Time Use Domain)

‘시간사용’ 영역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이용하고 통제하며 이것이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측정한다. 시간사용 영역의 지표들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선정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Harvey and Mukhopadhyay(2007)가 GSS의 시간사용 모듈을 이용하여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IW의 ‘시간사용 영역’ 담당 연구팀이 2008년 시간사용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선행연구 검토를 보완하여 8개의 추가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지표선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개념적 틀의 설정으로, 이는 시간사용을 정의하고 개념화함을 물론 이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주제들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시간사용연구에서 이용되는 시간사용일지(time use diaries)를 웰빙의 측면에서 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이다. 즉, 시간사용기록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은 일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추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웰빙과 관련된 자원봉사나 기부행위와 같은 사건들은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이나 참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시간사용 정도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은 “단순한 질병 또는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닌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의 상태”라는 WHO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다차원적 개념인 웰빙도 정신적, 육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웰빙의 결과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웰빙의 결과는 연령과 생애 주기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지적들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진이 시간사용과 웰빙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적 틀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시간이용과 웰빙 간 관계에 대한 개념적 틀



개인, 가족 및 공동체의 웰빙과 관련된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위의 개념적 틀에 근거로 시간사용을 구성하는 주제들이 정해졌는데, 이것이 시간사용 지표선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잠재 지표들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연령/생애단계별 잠재적 시간이용 지표 및 웰빙과의 연관성

연령/생애단계	유형	웰빙과의 연관성	잠재 시간이용 지표
근로연령의 성인	객관적	-	근로시간
	객관적	-	비정기적 근로시간
	주관적	-	불안정 근무제
	객관적	+	유연근무제
	객관적	-	무급가족노동 시간
	객관적	-	무급 성인부양 시간
	객관적	-	통근시간
	주관적	-	시간압박
	객관적	-	일-가족 갈등
아동/청소년	객관적	+	미취학/취학 아동을 위한 독서시간
	객관적	+	청소년을 위한 숙제도와주기 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TV시청 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비교육적 컴퓨터 이용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특별활동시간
	객관적	-	청소년의 비체계적인 활동시간
	객관적	-	학생의 근로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시간
	객관적	+	부모와 보내는 시간
은퇴 고령층	객관적	+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식사시간
	객관적	-	부모의 근무제(오랜 근무시간)
	객관적	-	부모의 근무제(비정기적 근무시간)
	객관적	+	레저활동시간
	객관적	+	체육활동시간
	객관적	+	자원봉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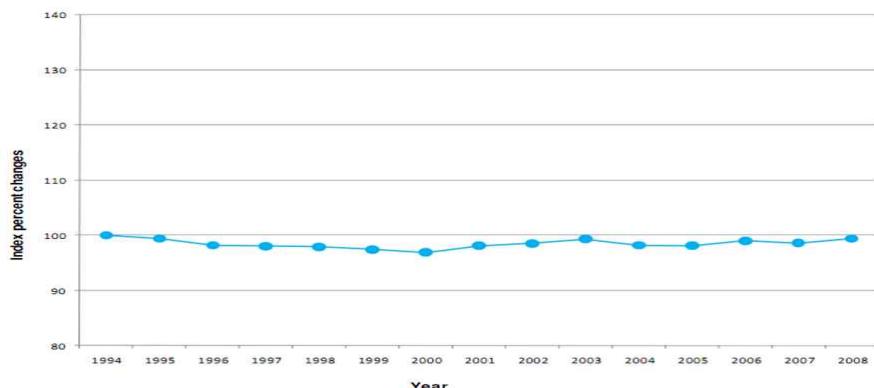
위의 지표들 중에서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지표선택 기준에 맞춰 최종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이다.

<표 9> 시간이용 지표 및 조작적 정의

연령/생애단계	유형	지표 및 조작적 정의
근로연령기 성인	객관적	비정기적 근로시간에 고용된 성인의 비율
	주관적	장기근로시간(초과근무 등)에 고용된 성인의 비율
	주관적	시간압박이 높다고 말하는 근로연령기 성인의 비율
	객관적	고령층 간병해야 하는 근로연령기 성인의 비율
아동/청소년	객관적	시청시간기준을 초과하는 청소년(12~17세)의 비율
	객관적	체계적 특별활동(스포츠포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6~15세) 비율
	객관적	미취학아동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빈도
	객관적	10대(15~17세) 내에서 집에서 부모와 식사하는 빈도
은퇴 고령층	객관적	여가활동시간
	객관적	자원봉사시간

시간이용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얻은 구성지표들의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시간이용 영역의 연도별 구성지표의 추세(199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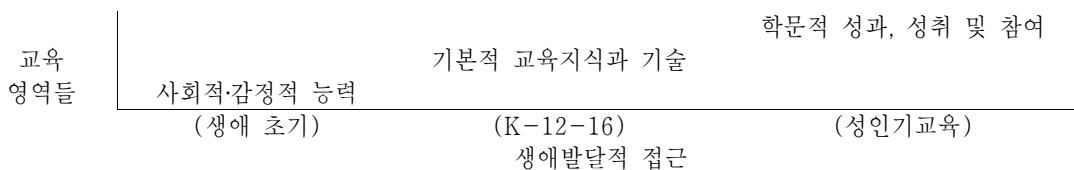
## 7. 교육 영역(Education Domain)

'교육영역'에서는 수용성 기준(acceptability criteria)을 통해 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고 이를 크게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전생애 발달적 접근(lifespan development approach)을 시도하는 것이다. CIW 목표가 '지속가능한 삶의 질(sustainable wellbeing)'에 대한 비전을 명

확히 제시하여 그것을 증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CIW가 사회진보에 대한 총체적 측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접근 역시 일부 영역에 국한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Doherty(1997)가 제시한 생애초기 5가지 교육 발달 영역, Hayward 등(2007)이 제시한 11가지 다중 문해력(multiple literacies), Gardner(2004)의 8가지 다중 지능(multiple intelligences),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되는 12가지의 학문적-비학문적 역량 그리고 캐나다 학습위원회(Canadian Council on Learning)가 채택한 Delors 등(1996)이 구분한 4가지 교육 영역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 이론적 검토 단계로서 기준 이론적 논의들의 부합성과 CIW의 다른 영역들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다른 영역에서 다른 분석들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 교육 하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생애학습 관점에서 살펴보았다[그림 17].

[그림 17] 발달과정에 따른 교육영역



이와 더불어, 교육의 형평과 평등, 교육 참여, 공식적·비공식적 학습,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입, 과정, 결과의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여 1차적인 교육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이후 40여명의 교육전문가 집단과의 회의와 40명의 교육연구자와의 e-mail을 통한 전문가조사 등 전문가 자문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8개의 핵심 주제와 관련 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그것들은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교육영역의 주요 지표들

주요지표	보고빈도
유아 교육 및 보육	3년 주기(1995년 이후)
초등학교 진학률/발달건강	2년 주기(1994년 이후)
학생 대 교사 비율	매년(1997년 이후)
사회적/감성적 기능	2년 주기(1996년 이후)
기초 교육지식 및 기술	TIMSS: 4년 주기(1995년 이후)
평등	PISA: 3년 주기(2000년 이후)
고교졸업률	매년
대학진학률	매년

## 8. 환경 영역(Environment Domain)

'환경' 영역과 관련된 지표를 구성하기에 앞서 연구진은 환경이라는 것이 인간사회의 토대로서 중요하지만, 인간의 웰빙을 유지하는데 있어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의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환경은 자연자원의 한 형태 또는 자산으로서 CIW의 하위 영역에서 인간의 웰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생태경제학자들은 경제는 환경의 하위 체계이며, 생태계가 없다면 경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Costanza et al.(1997)은 지구의 생태계는 연간 33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영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환경적 재화와 서비스의 저량과 유량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어 관련 지표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여기서 경제학적 용어인 저량이라는 것은 비축, 존재량을 말하며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경제조직 등에 존재하는(또는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재화 전체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자연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유량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 조직 내부로 흐르는 양을 의미하는데, 자연자원의 저량이 추가/제거 또는 증가/감소되는 양과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말한다. 이러한 틀을 토대로, 연구진은 캐나다에서 환경의 중요한 5가지 측면들, 다시 말해서 공기, 에너지, 담수, 비재생자원, 그리고 생물자원과 관련된 지표들을 선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하위 영역에서 현재 환경의 상태가 좋지 않은지(poor), 보통인지(moderate) 또는 좋은지(good)를 판단하고, 이것이 과거의 특정 기준시점에 비해 악화되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연구진도 익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저량-유량적 분석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자량의 양과 무관할 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접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과 관련해서는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상태는 아니며, 계속적인 논의 과정에 있으며 특히 구성지수와 관련해서는 2011년 말이나 관련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련된 각 영역별 지표들은 <표 11>

과 같다.

<표 11> 환경영역의 주요 지표들

구분	지표
공기	·지표면 오존량
	·기준 대기 오염 배출지수
	·온실가스 배출지수
에너지	·1차 에너지 생산
	·최종 수요 에너지 사용
답수	·수질 지수
	·캐나다 남부의 물의 양
	·생활용수 사용
비재생 물질	·지속적인 비재생 에너지 보존지수
	·금속 보존 지수
	·폐수처리 및 전용률
생물자원	·살아있는 지구 지수
	·해양영양지수
	·수목 지속성 지수

## III.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 1. 개요

히말라야산맥에 자리 잡은 총인구 60만 명의 부탄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록 가난해도 국민의 행복 수준은 무척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복지수는 국민경제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또 바람직한지를 따지는데, 9개의 핵심 영역을 다룬다. 9개 영역은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태계 △지역사회의 생명력 △생활수준이다. 행복이란 이 9개의 핵심 영역에서 충분한 성취를 이룬 상태를 뜻한다. GNH 지수는 각 영역별로 충족기준선을 설정한 뒤 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경우 0의 값을 갖고, 충족기준선에 미달되면 충족기준선과의 거리를 계산해 산출한다. 9개 영역 중 기준선 미만의 값들을 합산한 뒤 평균을 내면 국민총행복에서 벗어난 정도가 지표로 나타난다. 부탄의 모든 정부 정책과 사업 프로젝트는 이 틀에 의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 정책이 미칠 영향을 국민총행복지수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점수에 못 미치는 정책은 재검토 혹은 중단하는 식이다.<sup>13)</sup>

### 2. 국민총행복지수의 구성 (Gross National Happiness)

#### 1) 개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은 문화적 전통과 환경 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부탄의 국정 운영철학으로 1998년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Sigme Singye Wangchuck) 부탄 국왕이 도입했다. 물질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GNH는 △경제 △문화 △환경 △정부의 4개 항목에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

---

13) '국민총행복지수'로 정책 심사하는 부탄 (2009.11.06.)

태계 △지역사회의 생명력 △생활수준 등 9개의 영역으로 대별하고, 이것을 다시 72 개로 분류한다. 그 중 특히 ‘심리적 복지’ 항목에서는 명상의 빈도·이기심·질투·자살 욕구 등까지 살핀다.

이러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4월, OECD는 국민총행복을 목적으로 따라 평균행복(Average Happiness), 행복수명(Happy Life Years), 행복불평등(Inequality of Happiness), 불평등조정행복(Inequality-Adjusted Happiness)의 4개의 세부 행복지수로 구분하고 각 국가의 GNH 정도를 측정하기도 했다.<sup>14)</sup>

- ① 평균행복(Average Happiness): 국민들의 평균적인 행복지수를 조사할 목적으로 사용
- ② 행복수명(Happy Life Year): 행복의 지속정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평균 행복에 수명을 조합하여 계산
- ③ 행복불평등(Inequality of Happiness): 국민들 사이 행복의 불균형을 줄이고자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표준편차를 통해 계산
- ④ 불평등조정행복(Inequality-Adjusted Happiness): 평균행복과 행복불평등을 조합하여 사용

이러한 국민총행복 계산을 통해, i) 경제적으로 진보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평균행복이 높고(물질적 풍요), ii)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수록 평균행복이 높고, iii) 국민들의 자유(정치적 자유, 개인적인 자유 등)가 높을수록 평균행복이 높고, iv)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이 높고, 차이가 적으며, v) 국민들간 신뢰가 높을수록 평균행복이 높고, vi) 사회적 정의가 높을수록 평균행복이 높고, 사회불평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의 6개 요인들이 전체 평균행복 차이의 83%를, 행복불평등 차이의 71%를, 행복수명 차이의 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민총행복지수의 세부지표<sup>15)</sup>

부탄은 GDP등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가난한 국가이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가평가하는 국민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국민행복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

14)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018>)

15) 윤강재, 김계연 (2010)

로 알려져 있으며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는 행복수준 측정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부탄 국민들을 ‘행복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부탄 왕실과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평가하는 국민총행복지수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영적·종교적 요인이 강조된다.

<표 1>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구성과 세부 지표

영역	세부지표
정신적 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기도문 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karma) 횟수, 자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 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
생태 (ecology)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의 식목상태
건강 (health)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교육 (education)	교육연수, 문자해독률, 지역의 전설에 대한 지식
문화 (culture)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도, 절도에 대한 태도
삶의 수준 (living standard)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옥의 시급한 유지보수
시간활용 (time use)	근로시간, 수면시간
지역사회 활력 (community vitality)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간 이해심, 가족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수, 기부, 사회적 지지
좋은 거버넌스 <sup>16)</sup> (good governance)	정부활동, 자유, 제도의 신뢰도

CBS는 2005년에 처음으로 GNH 예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였다. 표본규모는 350명이었으며, 전체인구를 대표하게 구성되었는데, 약 80%가 농촌지역을 대표하였으며, 50%가 여성이었다. GNH의 첫 번째 공식조사는 2007~2008년에 실시되었는데, 표본규모는 950명이었다. 이들은 성, 지역, 연령, 결혼상태, 고용상태, 지역 등의 측면에서 68만 2천명의 부탄인을 대표한다. 2009년 기준으로 9개의 영역에서 집계된 최근 부탄의 GNH 지수는 0.81이었다<sup>17)</sup>.

16)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

17) Braun(2009)

최초의 GNH에서 발견된 사항은 GNH가 성별로 매우 차이가 크다는 점이었다. 여성은 낮은 심리적 웰빙, 더 많은 근로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수도거주민들이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었지만, 소득이 충분한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낮았다.

### 3) 국민총행복지수 계산방법<sup>18)</sup>

GNH 지수는 각 영역별로 충족기준선을 설정한 뒤 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경우 0의 값을 갖고, 충족기준선에 미달되면 충족기준선과의 거리를 계산해 산출한다. 9개 영역 중 기준선 미만의 값을 합산한 뒤 평균을 내면 국민총행복에서 벗어난 정도가 지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① Apply sufficiency cutoff to obtain insufficiency headcounts

: 다음의 행렬A는 가로는 각 영역의 점수를 의미하며, 세로는 각각의 개인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에서는 9가지의 영역에 4명의 개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 영역별로 충족기준선을 설정한 뒤 기준선 이상을 성취하면 0의 값을 갖도록 한다. 이는 기준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의 양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Matrix A:**

$$\begin{bmatrix} 1 & 3 & 30 & 4 & 3 & 4 & 3 & 1 & 2 \\ 1 & 2 & 30 & 3 & 3 & 10 & 2 & 2 & 2 \\ 1 & 2 & 24 & 3 & 3 & 50 & 2 & 2 & 1 \\ 1 & 3 & 30 & 4 & 3 & 10 & 2 & 2 & 2 \end{bmatrix}$$

각 영역별 충족기준선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러한 기준선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충족기준선은 빈곤선을 이용한 빈곤연구 등에서 흔히 쓰는 기준이다. 그런데 GNH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충족기준선은 당연히 빈곤기준보다는 높지만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서는 최대치로 측정되기도 한다.

$$[3 \quad 3 \quad 26 \quad 3 \quad 3 \quad 11 \quad 2 \quad 2 \quad 2]$$

---

18)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gnhIndex/introductionGNH.aspx>

기준선 이상을 성취하면 0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의 값을 갖도록 하면 Matrix A가 Matrix B가 된다.

**Matrix B:**

$$\begin{bmatrix} 1 & 0 & 0 & 0 & 0 & 1 & 0 & 1 & 0 \\ 1 & 1 & 0 & 0 & 0 & 1 & 0 & 0 & 0 \\ 1 & 1 & 1 & 0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1 & 0 & 0 & 0 \end{bmatrix}$$

### ② Calculation of distance from cutoff

: 자발적인 근로시간이나 기부액과 같이 최소값이 0인 변수는 다음과 같이 거리를 계산한다.

$$(\text{sufficiency cutoff- actual}) / (\text{sufficiency cutoff})$$

최소값이 1인 변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거리를 계산한다.

$$(\text{sufficiency cutoff- actual}) / (\text{sufficiency cutoff}) - (one)$$

충족기준선에 미달된 경우 위의 식으로 계산한 충족기준선과의 거리를 산출하면 Matrix B가 Matrix C가 된다.

**Matrix C:**

$$\begin{bmatrix} 1 & 0 & 0 & 0 & 0 & 0.64 & 0 & 1 & 0 \\ 1 & .50 & 0 & 0 & 0 & 0.09 & 0 & 0 & 0 \\ 1 & .50 & 0.08 & 0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09 & 0 & 0 & 0 \end{bmatrix}$$

### ③ Squaring distance from the cutoff

: 성취도가 낮은 부분에 높은 가중치를 주고 평등의 가치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 거리를 집계하기 전에 거리를 제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Matrix C는 Matrix D가 된다.

**Matrix D:**

$$\begin{bmatrix} 1 & 0 & 0 & 0 & 0 & .40 & 0 & 1 & 0 \\ 1 & .25 & 0 & 0 & 0 & .01 & 0 & 0 & 0 \\ 1 & .25 & .01 & 0 & 0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1 & 0 & 0 & 0 \end{bmatrix}$$

#### ④ Compute the GNH Index

먼저 (1-기준충족선과의 거리제곱)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Matrix E 가 생성된다.

Matrix E:

$$\begin{bmatrix} 0 & 1 & 1 & 1 & 1 & .60 & 1 & 0 & 1 \\ 0 & .75 & 1 & 1 & 1 & .99 & 1 & 1 & 1 \\ 0 & .75 & .99 & 1 & 1 & 0 & 1 & 1 & 0 \\ 0 & 1 & 1 & 1 & 1 & .99 & 1 & 1 & 1 \end{bmatrix}$$

다음으로 GNH지수는 (1-squared distance from cutoff)의 평균 또는 (1 - Average squared distance from cutoff)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는 GNH지수는 다음과 같다.

$$(1+0.75+0.75+1+1+1+0.99+1+1+1+1+1+1+1+1+0.60+0.99+1+0.99+1+1+1+1+1+1+1+1)/36 = 0.808$$

#### ⑤ Break Down by Dimension

예를 들기 위해 Matrix D에서 처음 4개 열은 심리적 웰빙, 나머지 5개는 문화지표라고 하자. 두 개의 영역에 같은 가중치는 주기 위해 처음 4개와 나머지 5개의 지표내에 각각 0.25, 0.2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Matrix D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begin{bmatrix} .25 & 0 & 0 & 0 & 0 & .08 & 0 & .2 & 0 \\ .25 & .0625 & 0 & 0 & 0 & .002 & 0 & 0 & 0 \\ .25 & .0625 & .0025 & 0 & 0 & 0 & 0 & 0 & .2 \\ .25 & 0 & 0 & 0 & 0 & .002 & 0 & 0 & 0 \end{bmatrix}$$

다음으로 각 영역의 개별 지표에 대하여 충족기준선과의 거리제곱 평균을 구한다.

$$[0.25 \quad 0.03125 \quad 0.000625 \quad 0 \quad 0 \quad 0.021 \quad 0 \quad .05 \quad .05]$$

이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대한 GNH지표는 네 개의 심리적 웰빙 지표들에서 (1-충족기준선과의 거리제곱의 합)으로 구한다. 문화지표도 동일하다. 결국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text{심리적 웰빙 관련 행복지표} = 1 - (0.25 + 0.03125 + 0.000625 + 0) = 0.718$$

$$\text{문화 관련 행복지표} = 1 - (0 + 0.021 + 0 + 0.05 + 0.05) = 0.879$$

각 영역이 전체 GNH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 충족기준선으로부터의 거리제곱합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충족기준선과의 거리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한다.

#### 4) 정책에의 활용<sup>19)</sup>

부탄연구소(Center for Bhutan Studies, 이하 CBS)와 GNH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GNH를 사용한다.

먼저 각 지역별로 GNH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둘째, GNH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감소 또는 증가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GNH를 영역별, 항목별(indicator), 성별, 직업별, 연령그룹별로 분해하여 GNH에서 부족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세부단위로 파악한다. 이렇게 분해하면 불행의 정도가 극심한 계층이나 그룹을 찾게 된다.

넷째, 이러한 분해결과를 시계열로 파악하여 각 영역에서 GNH의 감소 또는 증가여부를 판단한다.

다섯째, 충족기준선과의 갭의 변화를 추적한다.

부탄정부는 GNH를 정책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CBS는 GNH의 작성에 집중하고 있고, GNH위원회는 정부의 기획부서로 GNH지수에 기초하여 GNB를 증진시키는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GNH위원회는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나 이슈에 대하여 자원배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GNH지수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정책을 개발한다. 실제로 GNH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이며, 재무성장관이 부위원장장을 맡고 있다. 10명의 장관과 국립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구성원이다.

GNH위원회는 GNH지수뿐만 아니라 GNH정책렌즈도 사용한다. CBS는 실제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에 동 정책이 GNH를 증진시키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GNH정책

---

19) Alejandro Adler Braun(2009), "Gross National Happiness in Bhutan: A Living Example of an Alternative Approach to Progress", UPENN

렌즈(policy lens)를 개발하였다. GNH정책렌즈는 제안된 정책이 GNH를 촉진시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그 영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제안된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모든 영역에서 고려하게 함으로써 정책개발에 있어서 종체적 접근을 하게 한다.
- 정책의 잠재적 효과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부류의 정책시행을 감소시킨다.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GNH정책렌즈는 23개의 질문을 통해 GNH가 연관된 23개의 분야에 대해서 정책 평가를 실시한다. 어떤 정책이 최소한 GNH중립(평균점수가 최소한 3점을 초과하여야 한다)이 될 때까지 정책을 수정보완하며,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된다. 동 23개의 정책영역은 평등, 안전, 물질(부), 오염, 생태계다양성, 자연, 학습, 생산성, 가족, 영적 부분, 여가, 지원(support), 건강, 스트레스, 정보, 참여, 부패, 범죄1, 범죄2, 권리, 문화, 차별, 가치이다. 예를 들면 정책영역 중 평등영역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실시한다.

- 동 정책이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1점)
- 동 정책효과가 다양한 소득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2점)
- 동 정책이 소득분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동 정책이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1점)

## 5) 한계점

부탄의 GNH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탄의 GNH에서는 정신적·영적·종교적 영역이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표의 선택과 가중치 부여 등에 따라 행복수준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탄은 ‘통제’가 쉬운 작은 나라일 뿐 아니라, 외부와도 고립되어 1998년에야 TV 방영이 시작되었고 민간 신문사도 두 곳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무균(無菌) 상태의 행복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 3. GNH Index variables<sup>20)</sup>

#### 1)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General mental health	Mental Health Index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2	Frequency of prayer recitation	Spirituality Index	Do you say/recite prayers?
3	Frequency of meditation	Spirituality Index	Do you practise meditation?
4	Taking account of karma in daily life	Spirituality Index	Do you consider karma in the course of your daily life?
5	Frequency of feeling of selfishness	Emotional Balance Index	How often do you experience selfishness?
6	Frequency of feeling of jealousy	Emotional Balance Index	How often do you experience jealousy?
7	Frequency of feeling of calmness	Emotional Balance Index	How often do you experience calmness?
8	Frequency of feeling of compassion	Emotional Balance Index	How often do you experience compassion?
9	Frequency of feeling of generosity	Emotional Balance Index	How often do you experience of generosity?
10	Frequency of feeling of frustration	Emotional Balance Index	How often do you experience of frustration?
11	Occurrence of suicidal thought	Emotional Balance Index	Have you ever seriously thought of committing suicide?

#### 2) 생태(Ecology)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Pollution of river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dex	Is pollution of rivers/streams an environmental concern in your area?
2	Soil eros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index	Is soil erosion an environmental concern in your area?
3	Method of waste disposal	Environmental degradation index	How do you dispose your household waste?
4	Names and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Ecological knowledge index	Do you know the name of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in your local surrounding?
5	Tree plantations around your farm or house	Afforestation index	Do you plant trees around your farm or houses?

20) 이 자료는 부탄연구소(Center for Bhutan Studies, CBS)의 2007년 자료이다. 동 설문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완성되었으며, 가장 최근 자료는 2007년 자료이며, 9개 영역, 72개 지표, 2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건강(Health)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Self reported health status	Health Index	In general, would you say your health is:
2	Long term disability	Health Index	Do you have any long term disabilities, health/mental problems?
3	# of healthy days in the past 30 days	Health Index	Number of healthy days
4	Body Mass Index	Health Index	What is your height and weight?
5	Knowledge of transmission of HIV/AIDS virus	Health Knowledge Index	Do you know how HIDS/AIDS virus is transmitted?
6	Duration for a child to be breast fed only	Health Knowledge Index	How long should a child be breast fed exclusively?
7	Walking distance to health care centre	Health Barrier Index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you to walk to the nearest health care centre?

### 4) 교육(Education)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Level of education	Education Index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2	Literacy rate	Education Index	Literacy rate
3	Ability to understand lozey	Dzongkha Language Index	If you are an audience to traditional lozey exchange, would you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tents?
4	Historical literacy (Knowledge on local legend and folk stories)	Historical literacy Index	How would you rate y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local legends and folk stories?

### 5) 문화(Culture)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Speaking first language	Dialect Index	How well can you speak your first language now?
2	Frequency of playing traditional games	Traditional Recreational Index	During the past 12 months, how often have you played traditional sports?
3	Zorig chusum skills	Artisan Skill Index	Zorig chusum skills
4	Teaching children importance of discipline	Value Transmission Index	How important is it for children to learn discipline?

5	Teaching children importance of impartiality	Value Transmission Index	How important is it for children to learn to be impartial towards rich, poor, different status, etc.
6	Knowledge of mask and other dances performed in tshechus	Community Festival Index	How would you rate y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mask and other dances performed during national/local tshechu?
7	Importance of reciprocity as a life principle	Reciprocity Index	Please indicate the importance that you assign to reciprocity in life
8	Attitude towards killing	Basic Precept Index	Is killing justifiable?
9	Attitude towards stealing	Basic Precept Index	Is stealing justifiable?

## 6) 삶의 수준(Living Standard)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Household income	Living Standard Index	What was the approximate total cash income for your household during the past 12 months?
2	Income sufficiency to meet everyday needs	Living Standard Index	How well does your total household income meet your family's everyday needs for food, shelter and clothing?
3	Food insecurity	Living Standard Index	In the past 12 months, did you cut the size of your meal or skip meals because there wasn't enough food and money for food?
4	House ownership	Living Standard Index	Is the dwelling in which you live, rented or owned?
5	Room ratio	Living Standard Index	Number of persons per room
6	Purchase of second hand clothes	Hardship Index	In the past 12 months, did you buy second hand clothes instead of new ones to keep costs down?
7	Difficulty in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Festivals	Hardship Index	In the past 12 months, did you have difficulty in contributing to community festivals?
8	Postponement of urgent repairs and maintainance of house	Hardship Index	In the past 12 months, did you postpone urgent repairs and maintainance of your household

## 7) 시간활용(Time Use)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Total working hours	Time Index	Total working hours per day
2	Sleep hours	Time Index	Sleep hours

## 8) 지역사회활용(Community Vitality)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Sense of trust in neighbours	Community Trust Index	How much do you trust your neighbours?
2	Neighbours helping each other in the community	Social Support Index	Would you say this is a neighbourhood where neighbours help one another?
3	Labour exchange with community members	Reciprocity Index	Did you exchange labour with any community members during the past 12 months?
4	Socialising with friends	Socialization Index	In the last month, how often did you socialize with your friends?
5	Members of your family really care about each other	Family Index	Do the members of your family really care about each other?
6	You wish you were not part of your family	Family Index	Do you wish you were not part of your family
7	Members of your family argue too much	Family Index	Do the members of your family argue too much
8	There is a lot of understanding in your family	Family Index	Is there lot of understanding in your family?
9	Your family is a real source of comfort to you	Family Index	Is your family is a real source of comfort to you?
10	No. of relatives living in the same community	Kinship index	Number of relatives living in the same community
11	Victim of crime	Safety Index	Have you been a victim of crime in the last twelve months?
12	Feelings of safety from human harm	Safety Index	How safe do you feel when walking alone in your neighbourhood or village after dark from human harm?
13	Sense of enmity in the community	Safety Index	Did enmity rise in the community during the last twelve months?
14	No. of days volunteered	Reciprocity Index	On an average how many days did you spend during the past 12 months doing voluntary activity on your own?
15	Amount of donation in cash value	Reciprocity Index	Total amount donate in the past 12 months
16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Index	How often is someone there to help you when you have problems?

## 9)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no	Indicators	Indexes	Question
1	Performance of central govt in reducing income gap	Government Performance Index	Rate the performance of central govt in reduc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2	Performance of central govt in fighting corruption	Government Performance Index	Rate the performance of central govt in fighting corruption
3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opinion	Freedom Index	Do you feel that you have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opinion
4	Freedom from discrimination	Freedom Index	Do you feel that you are free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sex, religion, language, politics or other status
5	Trust in central ministries	Institutional Trust Index	To what extent do you trust central ministries?
6	Trust in dzongkhag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Trust Index	To what extent do you trust dzongkhag administration?
7	Trust in media	Institutional Trust Index	To what extend do you trust media?

#### 4. 부탄의 GNH지수 결과<sup>21)</sup>

Sl no.	영역	지표	기준점	미만 인원 수	응답 자수	영역 가중치	평균미 충족률	기준선 과의 평균거리	거리 계급 평균	행복지 수	행복지수에 대한 기여도
1	Psychological wellbeing	General mental health	Normal mental wellbeing	74	560	0.091	0.132	0.026	0.228	0.772	10.7
2		Frequency of prayer recitation	Daily	323	560	0.091	0.577	0.346			
4		Taking account of karma in daily life	Daily	295	560	0.091	0.527	0.27			
5		Frequency of feeling of selfishness	Never	137	560	0.091	0.245	0.134			
6		Frequency of feeling of jealousy	Never	112	560	0.091	0.2	0.106			
7		Frequency of feeling of calmness	Often	465	560	0.091	0.83	0.54			
8		Frequency of feeling of compassion	Often	385	560	0.091	0.688	0.389			
9		Frequency of feeling of generosity	Often	384	560	0.091	0.686	0.387			
10		Frequency of feeling of frustration	Never	331	560	0.091	0.591	0.314			
11		Occurrence of suicidal thought	No	22	560	0.091	0.039	0.038			
12	Ecology	Perception of pollution of rivers	No	333	560	0.2	0.595	0.595	0.287	0.713	9.8
13		Perception of soil erosion	No	305	560	0.2	0.545	0.545			

21) 각 영역이나 지표는 <부록1>과 일치함.

14		Method of waste disposal	Composting and burning or municipal garbage pick up	29	560	0.2	0.052	0.045			
15		Names and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Yes	36	560	0.2	0.064	0.064			
16		Tree plantations around farm and house	Yes	106	560	0.2	0.189	0.189			
17	Health	Self reported health status	Excellent	411	560	0.143	0.734	0.409	0.145	0.855	11.8
18		Long term disability	No	57	560	0.143	0.102	0.102			
19		Number of healthy days in the past 30 days	26	34	560	0.143	0.061	0.088			
20		Body Mass Index	18.5–24.99	166	560	0.143	0.296	0.139			
21		Knowledge of transmission of HIV/AIDS virus	Yes	63	560	0.143	0.113	0.113			
22		Duration for a child to be breast fed only	6 months	300	560	0.143	0.536	0.37			
23		Walking distance to health care centre	60 minutes	226	560	0.143	0.404	0.133			
24	Education	Level of education	Class XII	487	560	0.25	0.87	0.583	0.452	0.548	7.6
25		Literacy rate	Literate in either English or Dzongkha	209	560	0.25	0.373	0.373			
26		Ability to understand lozey	Would understand very well	481	560	0.25	0.859	0.577			
27		Historical literacy (Knowledge on local legend and folk stories)	Good	489	560	0.25	0.873	0.629			
28	Culture	Speaking first language	Very well	46	560	0.083	0.082	0.029	0.148	0.852	11.8
29		Frequency of playing traditional games	Once or twice a month	478	560	0.083	0.854	0.723			
30		Zorig chusum skills	1 skill or more	132	560	0.083	0.236	0.236			
31		Teaching children importance of discipline	Very important	9	560	0.083	0.016	0.009			
32		Teaching children importance of impartiality	Very important	95	560	0.083	0.17	0.112			

33		Knowledge of mask and other dances performed in tshechus	Good	446	560	0.083	0.796	0.552			
34		Importance of reciprocity as a life principle	Very important	133	560	0.083	0.238	0.126			
35		Attitude towards killing	Can never be justified	35	560	0.083	0.063	0.032			
36		Attitude towards stealing	Can never be justified	28	560	0.083	0.05	0.026			
37		Attitude towards lying	Can never be justified	98	560	0.083	0.175	0.088			
38		Attitude towards sexual misconduct	Can never be justified	29	560	0.083	0.052	0.026			
39		No. of days spent in a year attending community festivals	6–12 days	352	560	0.083	0.629	0.339			
40	Living standards	Household income	70,597	438	560	0.125	0.782	0.533	0.186	0.814	11.2
41		Income sufficiency to meet everyday needs	Just enough	69	560	0.125	0.123	0.123			
42		Food insecurity	No	12	560	0.125	0.021	0.021			
43		House ownership	Owned	73	560	0.125	0.13	0.13			
44		Room ratio	2 persons/room	187	560	0.125	0.334	0.119			
45		Purchase of second hand clothes	No	161	560	0.125	0.288	0.288			
46		Occurrence of suicidal thought	No	82	560	0.125	0.146	0.146			
47		Postponement of urgent repairs and maintenance of house	No	180	560	0.125	0.321	0.321			
48	Time use	Total working hours	7 hours	338	560	0.5	0.604	0.162	0.03	0.97	13.4
49		Sleep hours	8 hours	125	560	0.5	0.223	0.03			
50	Community vitality	Sense of trust in neighbours	Trust most of them	329	560	0.063	0.588	0.251	0.162	0.838	11.6
51		Neighbours helping each other in the community	Always	280	560	0.063	0.5	0.181			
52		Labour exchange with community members	Yes	147	560	0.063	0.263	0.263			
53		Socializing with friends	Few times a week	279	560	0.063	0.498	0.245			

54		Members of your family really care about each other	Agree	22	560	0.063	0.039	0.029			
55		You wish you were not part of your family	Disagree	35	560	0.063	0.063	0.042			
56		Members of your family argue too much	Disagree	157	560	0.063	0.28	0.167			
57		There is a lot of understanding in your family	Agree	63	560	0.063	0.113	0.076			
58		Your family is a real source of comfort to you	Agree	33	560	0.063	0.059	0.04			
59		No. of relatives living in the same community	Most	326	560	0.063	0.582	0.345			
60		Victim of crime	No	7	560	0.063	0.013	0.013			
61		Feelings of safety from human harm	Always safe	203	560	0.063	0.363	0.245			
62		Sense of enmity in the community	No	71	560	0.063	0.127	0.127			
63		No. of days volunteered	11 days	387	560	0.063	0.691	0.541			
64		Amount of donation in cash value	10% of your income	392	560	0.063	0.7	0.506			
65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Most of the time	390	560	0.063	0.696	0.404			
66	Good governance	Performance of central government in reducing income gap	Excellent	331	560	0.143	0.591	0.359	0.12	0.88	12.1
67		Performance of central government in fighting corruption	Excellent	292	560	0.143	0.521	0.312			
68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opinion	Yes	43	560	0.143	0.077	0.077			
69		Freedom from discrimination	Yes	68	560	0.143	0.121	0.116			
70		Trust in central ministries	Trust	117	560	0.143	0.209	0.116			
71		Trust in dzongkhag administration	Trust	118	560	0.143	0.211	0.115			
72		Trust in media	Trust	118	560	0.143	0.211	0.114		0.195	0.805
									100		

# IV. Wellbeing in the Netherlands

## -The SCP life situation index since 1974-

### 1974년 이후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LSI)

Jeroen Boelhouwer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CP

2010년 7월 발간

#### 목 차

- |                       |                          |
|-----------------------|--------------------------|
| 1.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LSI) | 5. LSI의 개념틀              |
| 2. 사회지표와 LSI의 역사적 배경  | 6. LSI의 지표항목             |
| 3. '삶의 질'과 기타 개념들     | 7. 30년간 네덜란드의 삶의 질 평가 결과 |
| 4. LSI의 영역과 지표        | 8. 안정성과 민감성              |
|                       | 9. 결론                    |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Life Situation Index, LSI*)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되고 도입, 수정,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시간 순서에 따른 발전과정을 기술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LSI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LSI를 개발한 배경과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 지표항목들의 선택과정을 서술하고, 지표의 안정성과 민감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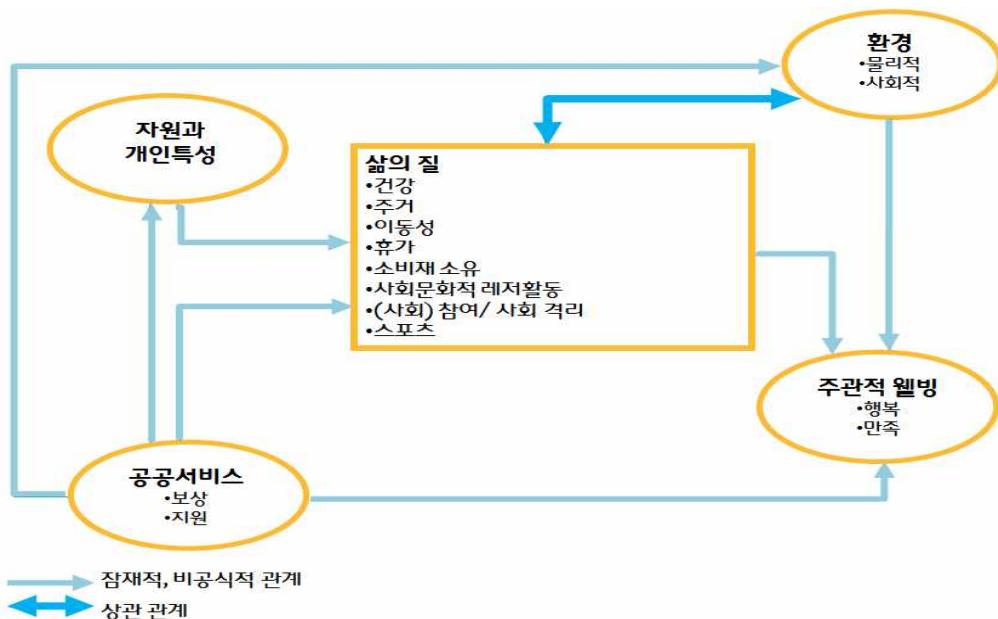
## 1.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Life Situation Index, LSI)

LSI는 네덜란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이는 경제 발전, 소득 증가,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LSI는 1974년 네덜란드의 연구소인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CP)에서 개발한 것이며 국민들이 삶 속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만족의 정도는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제외되어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LSI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 환경, 공공서비스, 주관적 행복 등과 같은 부문들이 개념틀에 포함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5장을 참고).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8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 참여, 스포츠가 포함된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세부 지표항목이 존재하며, 총 19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4절 참고).

[그림 1] 삶의 질에 대한 개념들



이와 같은 개념틀과 영역을 가진 LSI는 설문 조사를 통해 그 자료를 축적하였다.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 CBS)에서 SCP와 협력하여 1974년 '삶의 질 조사(Life Situation Survey)'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89년까지는 네덜란드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여 매 2년마다 실시되었고, 이 후 1993년까지는 매년 실시되었다. 1997년에는 CBS에서 '생활 여건에 대한 상시조사(Permanent Survey on Living Conditions)'를 만들었고 매 2년마다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2년에 중단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사는 SCP가 수행하였다. 따라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혼란이 있어 시계열 분석을 하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에는 조사와 그에 따른 자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으며 몇몇 주목할 만한 변화도 발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7절 참고).

지금까지는 LSI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서술한 것이며, 다음 장부터 구체적으로 LSI를 개발한 배경을 살펴보고, LSI의 영역과 세부지표항목들의 선택과정을 서술하며, 지난 30년 동안 LSI 측정을 통해 삶의 질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표의 안정성과 민감도를 검증한다.

## 2. 사회지표와 삶의 질 지표의 역사적 배경<sup>22)</sup>

사회지표라는 개념은 우리의 가치와 목표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 및 증거라고 정의 된다. 유엔에서는 "사회지표는 조치가 필요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행동과 지출의 우선순위 및 목표를 발전시키고, 프로그램과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해당 사회의 '삶의 질'이나 복지의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도구인 것이다. 삶의 질과 사회지표와의 관계를 보면, 사회지표는 사회전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즉, 삶의 질 혹은 사회의 변화는 측정 대상 개념이고, 사회지표는 측정 도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념과 특징을 가진 사회지표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

---

22) 사회지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희길, 심수진(2009)의 '삶의 질과 사회지표체계 연구'를 참고하였다.

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경제지표만을 가지고 사회를 평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지난 세기 말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국가의 발전이 경제 요인만을 가지고 측정될 수 없고 사회지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면서 사회지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진행되어 유럽 및 국제기구로 확산된 사회지표 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의 결과로 UN, OECD 등 국제기구는 사회지표의 사용을 권고하였고, 197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사회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보고서는 시민들과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의 실태를 정확히 알림으로써 '민주주의 하부구조(democratic infrastructure)'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정치인과 정부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회 자체가 자신의 반성적 성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지표운동으로 사회지표 및 사회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에는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지만 1990년대에 다시 살아났고 그 이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그리고 국가 간 비교에도 초점을 두었으며, 공통적으로 국가 또는 도시의 사회적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 사회지표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나 특별하게 따라야 하는 종합적이며 광범위하게 지지되는 이론이 없으며, 사용되는 용어들, '사회 통합(social cohesion)', '사회 자본(social capital)' 또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도 없는 상태다. 결국 같은 목적을 추구함에도 각각 접근 방식이 다르고 다른 지표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회지표의 적용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삶의 질을 나타낼 변수의 설정, 지표의 선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다.

### 3. '삶의 질'과 기타 개념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의 범위가 넓어 'quality of life', 'level of living', 'welfare', 'wellbeing', 'happiness' 등 다양한 용어들이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life situation'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선택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만큼 개념이 광범위하고 여러 개의 영

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은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요소 모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네덜란드 삶의 질 지표(life situation index, 이하 'LSI')의 목적이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사회 등이 발전되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모든 계층이 누리는지, 일부 계층은 그렇지 않다면, 어느 계층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LSI는 다음 다섯 가지의 이유로 개발, 도입되었다.

첫째, 전반적인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둘째, 긍정적과 부정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셋째, 시계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다.

넷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세부 하위 지표들의 발전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더 넓은 개념들 안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지표에 요구되는 측정가능성과 신뢰성은 LSI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특별히 LSI가 따라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적이어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측정단위는 도시 또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어야 한다.

넷째, 객관적으로 설명, 기술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복실현이라는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기준 중 네 번째에 제시된 객관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영역과 지표 선택과정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비판은 객관적인 지표가 사람들 스스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 대신, 연구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다.

따라서 어떤 규범적인 요소가 불가피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숨어들게 되며, 이로부터 자유로운 지표는 없다.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반박한다면, 응답자들은 '사실적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지표를 객관적 또는 주관적 지표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넓은 정체불명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객관적 지표'를 상황을 기술하는 '설명 지표(descriptive index)'로, '주관적 지표'를 상황을 평가하는 '평가지표(evaluative index)'로 대체하여 서술하였다.

설명지표는 개인의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설명지표 지지자들은 삶의 질 지표가 정책을 유도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하고, 이런 과학적 사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평가 지표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개인이 갖는 욕망의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만약 사람들이 과거보다 현재에 더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어서인지 아니면 그들이 욕망을 조정하여 만족도가 상승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과연 단기적인 감정과 장기적인 환경을 구별할 수 있는지, 감정이 절대적인 값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인지, 행복 또는 다른 감정이 평가된 삶의 질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파악하기 힘들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가지표를 통해 국가 간 행복의 차이는 소득, 민주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개인의 특성, 삶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한 국가 내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차이를 평가지표가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책과정에 왜곡과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이 야기된다.

#### 4. LSI의 영역과 지표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재의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참여, 스포츠라는 8개의 영역과 19개의 지표항목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개념인 '삶의 질'을 파악한다. 8개의 영역은 부분적으로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택되었으며, 국제적인 사회지표운동에서 있었던 논쟁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선택되었다. 동시에

8개 영역의 표면적 타당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지국가에서 삶의 질에 의해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사항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역들이다.

영역 내에 지표를 선택할 때도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그 다음에는 국제적 지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선택하였다. 사실 이러한 벤치마킹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지표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유의 시작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영역을 선택하더라도 평가지표보다 설명지표 사용에 초점을 둔다면 전혀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다. 2004년 이후로 LSI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LSI의 영역과 지표항목

영역	지표
건강	집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여행, 스포츠 와 같은 여가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주거	주택의 종류 소유여부 방의 수 거실의 표면적
이동성	자동차 소유 대중교통 이용권 소유
휴가	지난 12개월 동안 휴가 일수 해외여행 일수
내구재	가정용품의 수 취미용품의 양
레저	취미활동의 수 사회문화 여가 활동의 수 단체, 협회 등 회원가입
사회참여	봉사활동 사회격리(정도)
스포츠	스포츠 활동 횟수(1주) 스포츠 활동의 수

건강과 주거 영역은 삶의 질의 적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식되며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부분이다.

이동성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자동차의 소유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양호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이동성은 사회 참여와 레저 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지표에는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

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자가용 소유를 통한 이동성의 증가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발생하는 가치가 항상 더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쟁으로 LSI에는 대중교통 이용권이 지표로 포함되었다.

휴가는 '적정한 삶의 질'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며, 삶의 질 저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미 1984년 사회문화 보고서(Social and Cultural Report)에서 휴가 항목은 지표로 선택되었는데, 사람들은 소득의 감소를 가져 오는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게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자제되는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휴가이기 때문이다.

사회참여와 레저 활동은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 활동이 사회참여와 접촉 등으로 반드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장이나 박물관에 가는 것은 사회접촉이 거의 없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활동이다.

내구재의 소유는 사람들이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LSI에 포함되었다. 이 영역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구재가 사실은 사치품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같은 소득을 갖고 있을지라도 왜 자동차와 비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는가?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간단히 소득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LSI에서는 소득을 지표로 포함시키지 않고 자원, 즉 삶의 질에 투입되는 입력 정보로 인식하였다. 대조적으로 LSI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산출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또한 소비재는 새로운 형태의 안락과 휴식을 제공하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양에 늘려준다. 또한 소비재는 사람들의 소득 정보를 통해서는 알아내기 힘든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wealth)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 대신에 내구성 소비재를 지표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영역은 건강, 사회참여 등 수많은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스포츠는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휴가는 건강과 내구성 소

비재와 관련이 있고, 다시 내구성 소비재는 이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영역을 합치기가 어렵다. 만약 스포츠를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시키면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지표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은 장기간 동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LSI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받는 제약과 레저 활동 시에 받는 제약으로 구분하였다.

주거는 실제 살고 있는 방식과 관련된 지표로, 자가 소유여부에 따른 주택의 종류, 방의 개수, 거실의 크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앙난방, 단열, 욕실 설비 등을 지표로 고려하였으나, 이 항목들은 네덜란드 주택의 대부분에 보급된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소유여부를 묻는 질문과도 큰 차이가 없다.

내구성 소비재 영역의 지표로 DVD 플레이어, 개인 컴퓨터,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를 선택하였다. 이 소비재들은 '적정한 생활수준'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표들이다.

휴가 영역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지 여부와 함께 해외로 다녀왔는지 아닌지를 지표로 삼았다. 해외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은 사치행위로 인식되는 면이 있지만, 근래에는 '좋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LSI에서 휴가는 '적어도 연속적으로 4박 이상 휴양을 목적으로 집 이외의 곳에서 체류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동성은 자동차와 대중교통 이용권 소유여부로 측정한다. 자동차와 대중교통 이용권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여행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영역은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접촉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 영역의 지표들은 사회적 참여와 사람들의 문화적/개별적 발전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활동들로 해석된다.

- 사회문화적 활동: 이 지표는 클래식 콘서트, 팝 콘서트, 오페라, 연극, 발레, 카바레, 뮤지컬, 영화, 박물관, 댄스 또는 파티의 10개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지표는 이러한 활동들의 합계 점수를 사용한다.
- 협회의 회원: 노래, 음악 또는 연극, 스포츠, 취미, 정치단체, 노동조합, 고용주

또는 노동자 단체, 종교와 관련된 협회, 소수인종을 위한 특정 협회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기타 단체'의 수를 표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포함된다. 이 지표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협회의 개수로 표시된다.

- 취미활동의 수: 이 지표는 다음의 예시 중 현재 하고 있는 취미의 총 숫자를 나타낸다. 악기 연주, 노래, 발레, 연기, 그림, 수공예, DIY 활동, 수집, 컴퓨터,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가 포함된다.

이 영역의 요점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 이지만, 얼마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위와 같이 다소 범위가 넓은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참여 영역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접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지표가 있다.

- 자원봉사 활동: 다음과 같은 단체와 협회가 포함된다. 노래, 음악 또는 연극, 스포츠, 취미, 정치단체, 노동조합, 고용주 또는 노동자 단체, 종교와 관련된 협회, 주간 보육센터(day-care center) 또는 놀이집단, 이웃/장애인/노인 봉사,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 주민 협의회 또는 주민 센터, 소수인종을 위한 특정 협회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기타 단체'의 수를 표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포함된다. 이 지표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개수로 표시된다.

- 사회 격리 정도: 6가지 항목으로 측정하며, 합계 점수로 나타낸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 떨어진 생각이 듣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많은 친구들 중에 하나이다.

나는 표면적인 사회 접촉만 있다.

사회격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접촉의 강도이다. 즉,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접촉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삶의 질에 관한 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접촉의 강도는 단순히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가족의 장례식에서나 보고 지내는 것보다 더 강한 사회접촉을 의미한다. 사회적 격리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한 척도는 University of California의 Loneliness Scale에서 추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영역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지 여부, 한다면 몇 가지의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는지로 측정된다.

영역별로 제시된 지표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표들이 엄밀하게 개별적인 특성(3장에서 제시한 LSI가 따라야 할 기준 참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가구(household)의 전체적인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 자동차 소유, 내구재 소유 등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속한 한 가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표들이 포함된 이유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들이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편익을 공동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LSI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된 지표 또는 영역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 직업의 경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한다. 또한 평가지표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에 설명지표는 LSI에 포함되어 있다.

## 5. LSI의 개념틀

LSI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더 넓은 틀을 가진 전반적인 사항 안에 삶의 질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며,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개념틀을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 중의 하나는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원칙적으로 개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민주적 구조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거시적 수준의 지표들은 국제비교연구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삶의 지표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제외된다. 다만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미시적 수준의 개인과 거시적 수준의 사회를 조정하는 요소이며, 더 넓은 틀에서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많은 지표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LSI 도입 초기에는 '설명모델(explanatory model)'이 구축되었지만, 그리 유용하지 않았고 2001년이 되어서야 앞서 말한 영역과 항목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이 구축되었다. 이 개념틀은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인 더 넓은 틀에서 삶의 질을 정의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3장의 그림 1 참고).

개념틀은 LSI로 측정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의 특성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본 보고

서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자원으로 나타내었고, 교육, 소득, 직업 그리고 건강으로 구별하였다. 자원과 삶의 질을 구별한다는 것은 삶의 질이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사용가능한 자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구별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기회를 얼마나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자원을 지표로 포함시킨다면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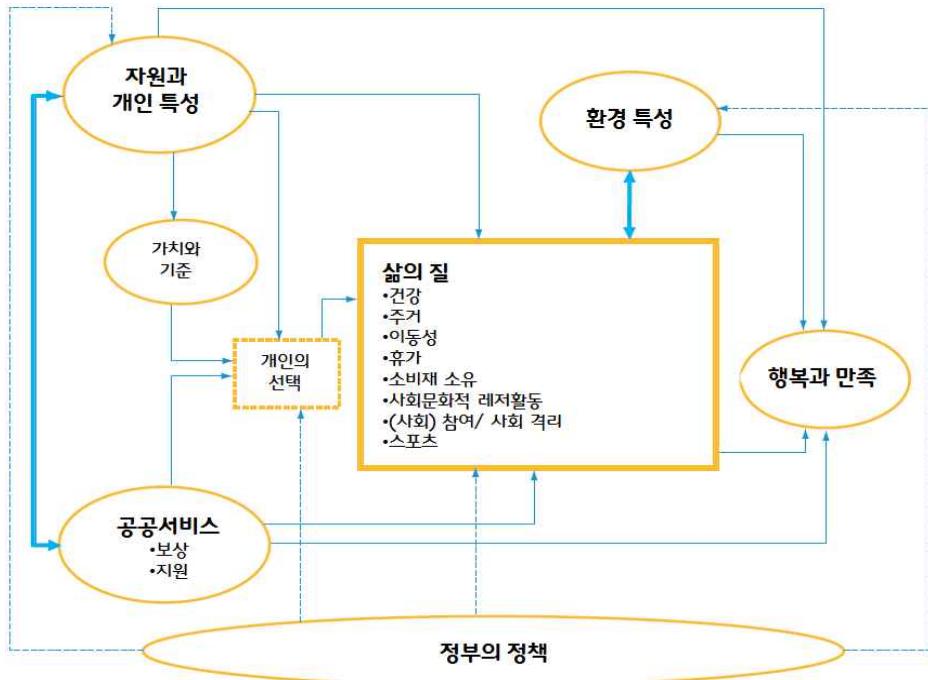
개인 특성과 자원 이외에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환경은 물리적 요소(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와 주변지역은 어디인지, 이웃은 어떠한지, 안전한지 등을 평가)와 사회적 요소(주변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로 구성된다.

실제 삶의 질은 LSI로 측정한 값과 같지 않고, 심지어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지표이지만, LSI에는 이러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사람들의 LSI가 그들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고,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7절에서 확인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개념틀에 공공서비스의 이용을 포함시켰다. 이유는 정부는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LSI와 개념틀은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그러나 복지국가 네덜란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지난 30년 동안 변하였고, 복지국가를 이루어내었다. 이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과 선택의 자유를 늘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LSI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국민의 진보와 행복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에서 개인들의 삶의 질을 추구함과 동시에 책임도 질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능력(skill)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념틀의 자원부문에 자립(self-reliance)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수정된 개념틀



개념틀과 관련된 논쟁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개념틀을 설명하면서 자원과 같은 입력부문과 삶의 질이라는 산출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입력부문과 산출부문을 구분하는 것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강은 자원에도 속하지만 지표부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이 삶의 질 부문과 자원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결정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고 정책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다.

둘째, 삶의 질은 단계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념틀은 정태적인(static) 윤곽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인생의 단계를 하나씩 올라갈 때 갖게 되는 삶의 질의 변화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을 때, 아이가 있는 부부와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의 삶의 질에는 차이가 있다.

셋째, 개념틀에는 누락된 연결고리가 있다. LSI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은 사람들의 선택과도 관련되어 있으나, 개념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LSI 값이 작을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을 모두 다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기준과 가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념틀에서 자원과 삶의

질 사이에 기준과 가치를 위치시킬 수 있지만,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틀에 사람들의 선택을 표시하고 기호와 가치, 기준을 연결시키면, 그림 2와 같이 수정된 개념틀로 향후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 6. LSI의 지표항목

LSI는 지표들이 어떤 임계값의 영향을 받는 집계자료(aggregate data)가 아닌 영향을 받지 않는 미시자료(micro data)에 근거한 지수이다. 지표에는 지표들 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지표들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양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가중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있다. 즉 긍정적 요소는 부정적 요소에 의한 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중치는 지표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다른 지표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지표가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 지표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중치를 설정하는데에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SPSS에서 Overals로 불리는 비선형 정준상관분석(Nonlinear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선형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개별 지표들에 대한 공통 기저집합(common basis)을 결정하였고, 가중치도 산정하였다. 공통 기저집합은 비선형 정준상관분석의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 실질적으로 1차원 해석방법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원 해석이라 함은 지표가 기대값을 따르며, '스포츠 활동을 한다'와 같은 긍정적 항목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스포츠 활동을 안 한다'와 같은 부정적 항목은 음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균은 0이 되고, 표준편차는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중치는 회귀계수로 산출되며 각 변수가 해당 영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두 지표 중에 어느 것을 살펴보고 있는가에 따라 조금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레저 활동의 다양성 지표와 휴가행위 지표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가중치가 높은 편이며, 대중교통 이용권 지표와 취미활동의 다양성 지표는 덜 중요한 지표로 가중치가 낮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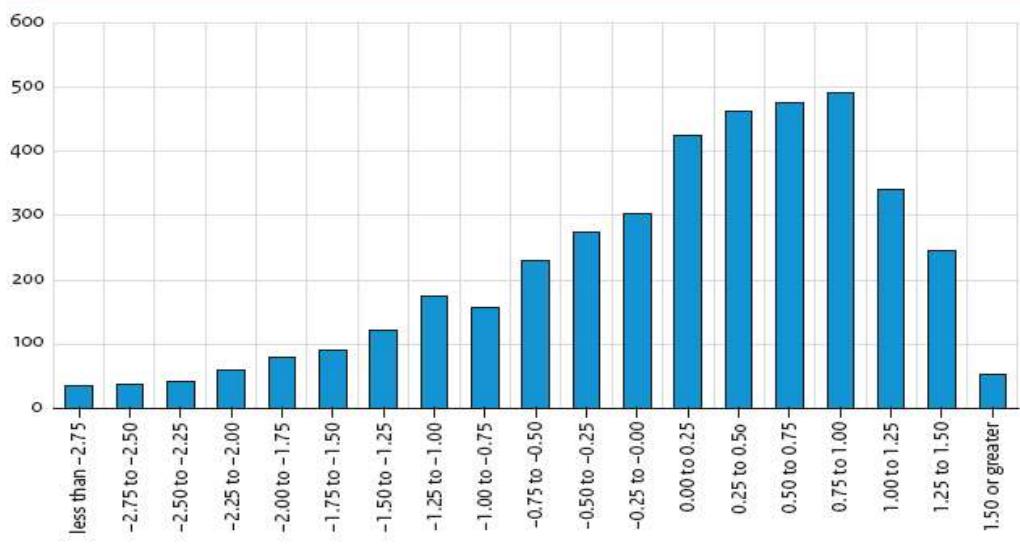
indicators	<표 2> LSI를 구성하는 19개 지표별 가중치(2006)	
	weights	component loadings
type of home	0.25	0.26
surface area of living room	0.23	0.40
number of rooms	0.20	0.42
owner-occupied or not	0.34	0.51
hobby activities	0.12	0.30
socio-cultural leisure activities	0.54	0.66
membership of societies	0.31	0.51
voluntary work	0.31	0.35
social isolation	0.36	0.39
number of times doing sports per week	0.34	0.58
number of different sports	0.26	0.57
holiday	0.52	0.67
foreign holidays	0.23	0.58
household articles	0.33	0.52
hobby equipment	0.51	0.63
possession of a public transport season ticket	0.22	0.11
possession of a car	0.58	0.54
hindered in carrying out daily activities at home	0.36	0.47
hindered in carrying out leisure-time activities	0.18	0.41

이렇게 해서 LSI의 고유값(eigenvalue)은 0.39이며, 이 값은 LSI와 8개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를 보여준다(표 3). 8개의 영역 중 레저 활동이 LSI에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 영역은 가장 작은 기여도를 갖는다. 이는 레저 활동 지표가 다른 지표들과 가장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건강 지표는 가장 약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domains	<표 3> LSI와 8개 영역 간의 관계(2006)	
	fit per set	relationship with the latent life situation (Pearson's correlation)
housing	0.48	0.67
socio-cultural leisure activities	0.52	0.73
social participation	0.34	0.52
sports	0.33	0.59
holidays	0.44	0.68
ownership of durable consumer goods	0.43	0.68
mobility	0.32	0.58
health	0.24	0.49
mean loss	0.61	
eigenvalue	0.39	

집단 간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지표 값은 숫자로 표시되기 이전에 선형 변환(transformation)을 거친다. 예전의 지표는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삶의 질을 나타내었지만, 1997년부터, 삶의 질은 '실제' 숫자로 표시되었다. 이때부터 네덜란드의 삶의 질 평균은 표준편차 15를 가지며, 1997년을 기준년도 설정하고 100이라는 값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럼 3과 같이 원점수(raw scores)가 높을수록 LSI값도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림 3] LSI에 대한 원점수(raw scores)의 분포도(2004–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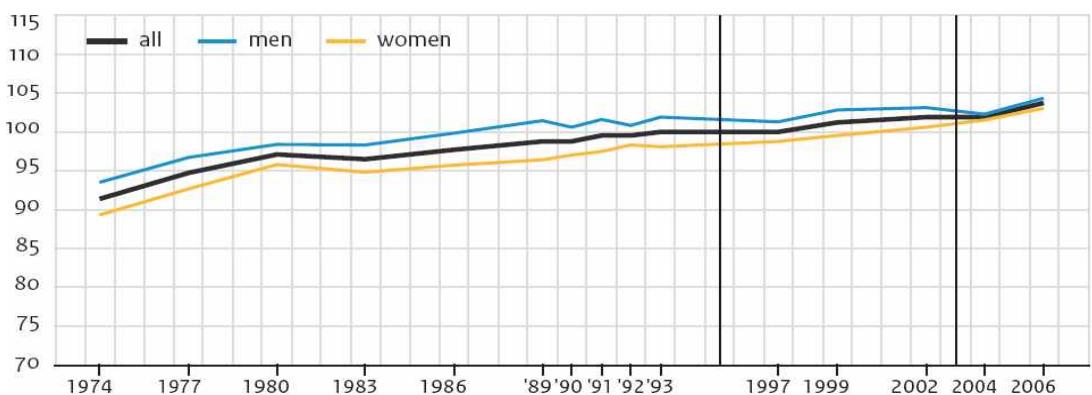
원칙적으로 지표는 이용 가능한 연도 모두를 포함한 자료집합을 근거하여 산출된다. 어느 한 연도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이 비선형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가중치를 다시 설정한다. 표2와 표3에서 제시된 값들은 2006년에 산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LSI는 가중치가 적용된 19개의 지표로 병합된 하나의 종합적인 지수이다. 이와 같이 사회지표들을 종합적인 지수로 병합하는 것은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주며, 누적된 결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영역 사이의 상호 보완 작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7. 30년간 네덜란드의 삶의 질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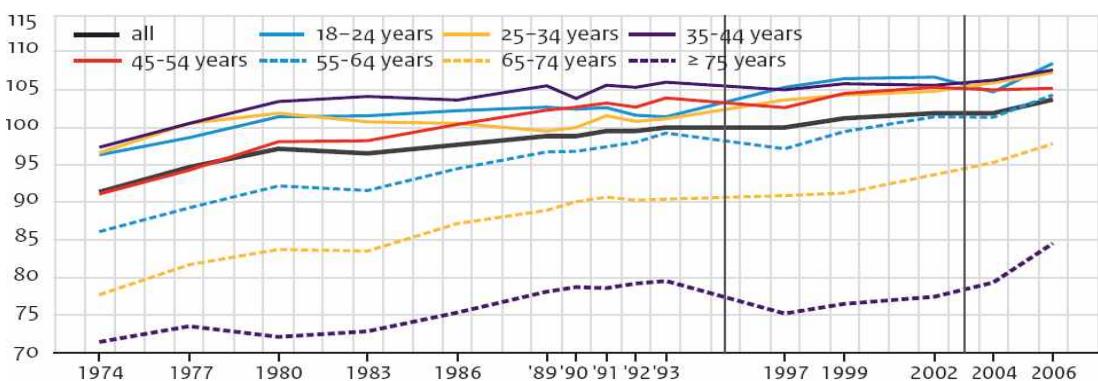
네덜란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니, 1974년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6년의 삶의 질은 1974년 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그림 4). 지난 30년 동안 네덜란드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된 것이다.

[그림 4] 삶의 질의 향상(1974–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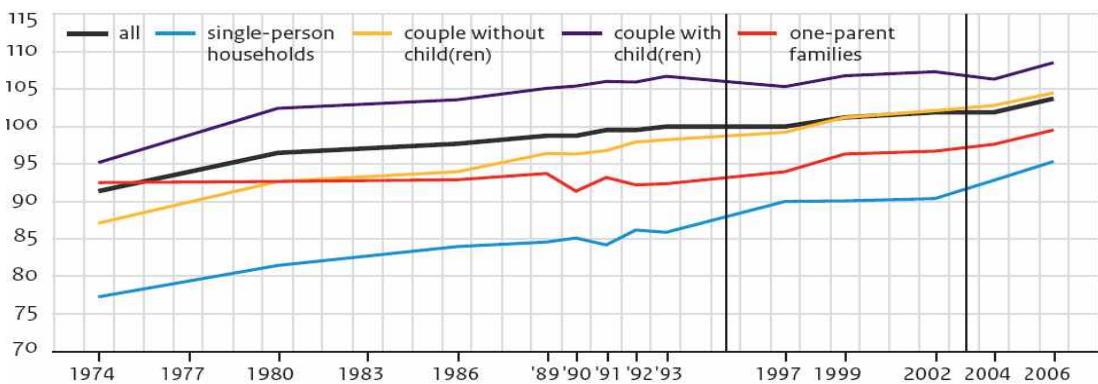


모든 사회계층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같은 크기는 아니었다. 55세부터 74세 연령대(그림 5), 더 나은 교육수준, 자가 소유의 주택에 거주, 아이가 없는 부부의 삶의 질(그림 6)이 평균보다 더 많이 향상된 반면에, 25세부터 34세 사이의 연령대(그림 5),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 한 부모 가정(그림 6)에 속한 경우 평균보다 삶의 질의 향상 정도가 낮았다.

[그림 5] 연령대별 삶의 질 변화 추이(1974–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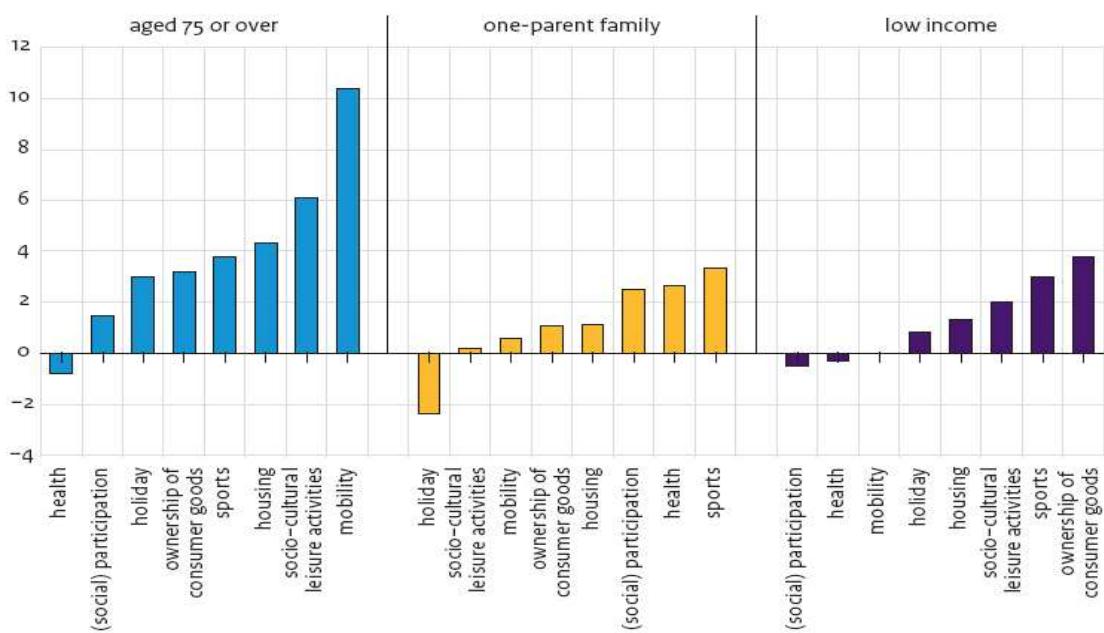


[그림 6] 가구 구성형태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추이(1974~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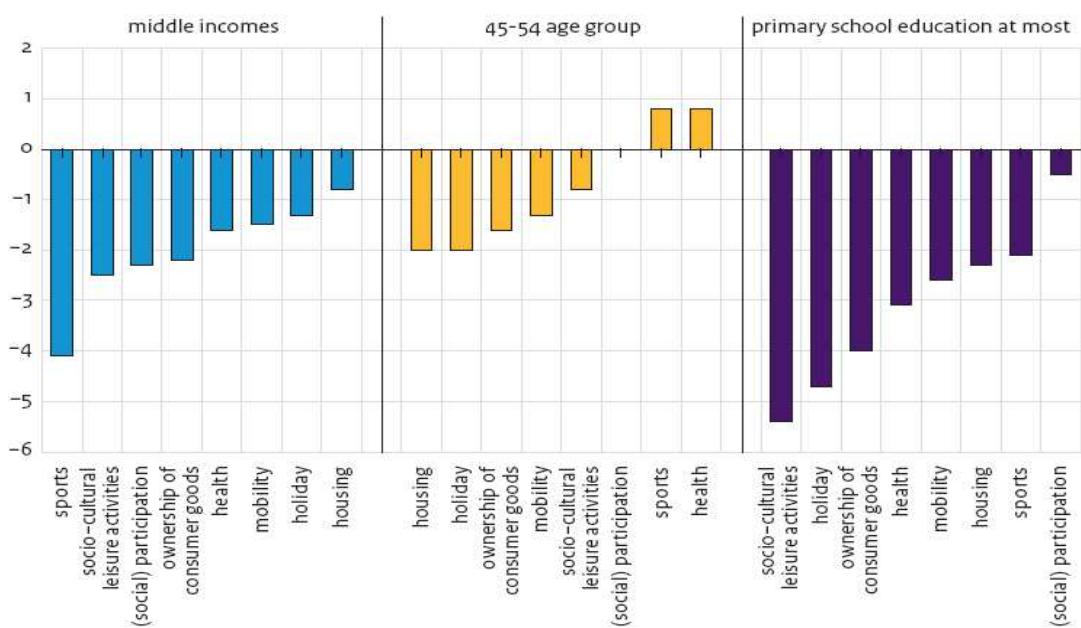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 세 계층(75세 이상, 한 부모 가정, 저소득)의 영역별 지표 값을 살펴보았다(그림 7).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향상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75세 이상 연령 계층에서는 이동성이 훨씬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직접 운행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반면 건강 영역은 다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이 가진 휴가일수와 저소득층의 건강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 삶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 계층의 영역별 지수 값의 차이(1997년과 2006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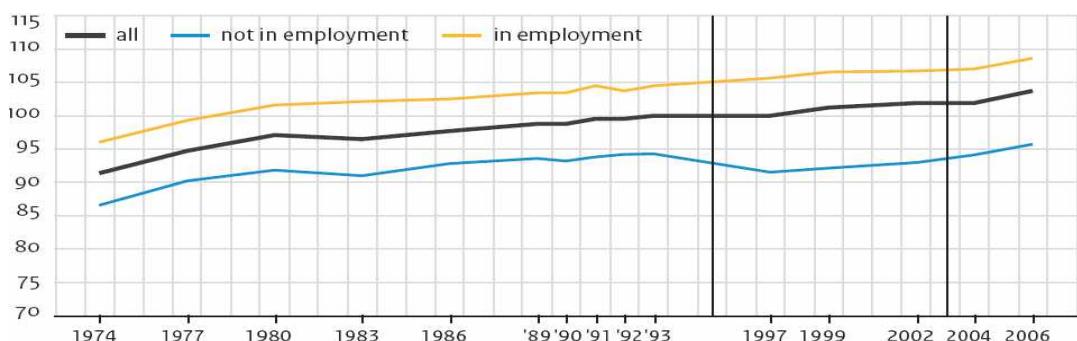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세 계층(45-54세, 중간소득층, 초등학교 졸업)의 영역별 지표 값도 살펴보았다(그림 8). 중간소득층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저하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스포츠 영역의 점수가 낮았다. 반면 45-54세 연령층은 스포츠, 건강영역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은 삶의 질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고,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졌지만, 특히 여가활동 시 간의 감소와 휴가일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림 8]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된 계층의 영역별 지수 값의 차이(1997년과 2006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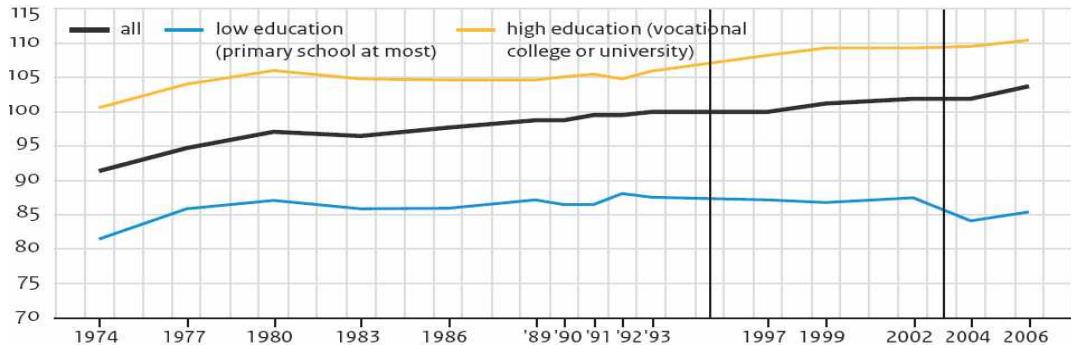


직업, 소득, 교육과 같은 자원부문에서는 높은 소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평균 보다 높았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경우 평균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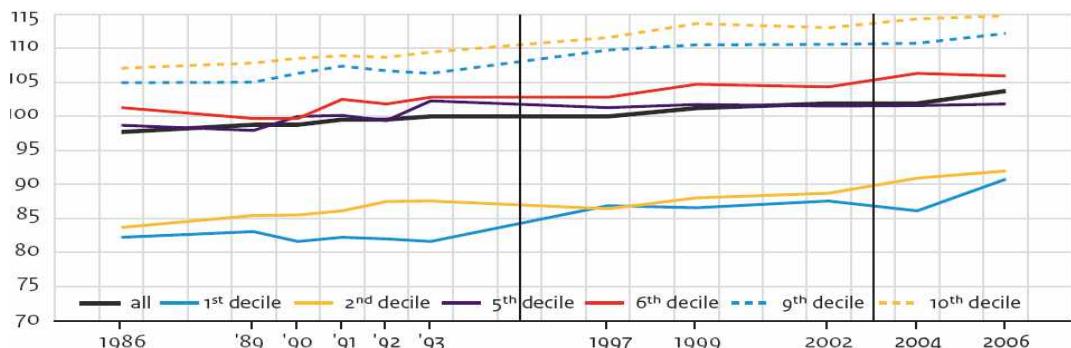
[그림 9] 직업여부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추이(1974–2006)



[그림 10]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추이(1974–2006)



[그림 11] 소득계층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추이(1974–2006)



이 두 계층의 차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2006년에 이 두 계층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의 차이가 1974년보다 더 크다. 이 세 가지 항목은 국민 계층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령, 가족구성과 같은 개인 특성과 함께 이 세 가지 항목은 2006년 삶의 질 차이의 54%에 해당하였고, 1974년에는 45%에 해당하였다(표 4).

<표 4> 자원과 기타 기본적인 사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1974–2006)

	1974	1980	1986	1993	1999	excluding health	including health	including health and ethnicity	2006
age <sup>a</sup>	0.25*	0.27*	0.25*	0.20*	0.26*	0.25*	0.22*	0.24*	0.21*
income <sup>b</sup>	0.27*	0.23*	0.23*	0.24*	0.32*	0.34*	0.33*	0.31*	0.37*
employment									
market position <sup>c</sup>	0.03**	0.02	0.01	0.05*	0.10*	0.08*	0.07*	0.07*	0.06**
education <sup>d</sup>	0.21*	0.22*	0.26*	0.21*	0.27*	0.29*	0.27*	0.27*	0.24*
household composition <sup>e</sup>	0.14*	0.24*	0.21*	0.25*	0.09*	0.08*	0.07*	0.08*	0.08*
source of income <sup>f</sup>	0.11*	0.07*	0.12*	0.10*	0.06*	0.13*	0.13*	0.12*	0.12*
health <sup>g</sup>							0.14*	0.15*	0.19*
ethnicity <sup>h</sup>								0.10*	
R <sup>2</sup>	45%	48%	48%	47%	57%	58%	59%	60%	54%

유의도: \* p < .01 \*\* p < .05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 또는 더 큰 도시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 사회네트워크 이용여부와 삶의 질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SI의 중요한 특징인 설명지표를 사용한 것이 개인이 느끼는 실제 행복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도 살펴보았다. 좋은 삶의 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삶의 질과 평가된 삶의 질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표 5> 일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에 따른 삶의 질 지표의 평균 값(1974~2006)

	1977	1980	1986	1993	1999	2004	2006
<b>happiness</b>							
very happy	98	100*	101	104*	106*	108**	109
happy	95	98*	98***	100*	102*	103*	105*
not happy / not unhappy	89	92**	93	92	92	95**	96***
not so happy / unhappy	81	81	82	86**	84	88	90

유의도: \* p<.01 \*\* p<.05 \*\*\*p<.10 (매년 계층 별 변동 값)

매년 각 계층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음(p<.05).

## 8. 안정성과 민감성

LSI가 과연 좋은 지표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즉 지표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특정 계층에 대한 지수 산정의 결과 다른지, 가중치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가중치가 필요한지, 지수의 세부항목이 바뀌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계층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8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2004년 자료를 가지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 비선형 정준산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응답자 또는 일부 특정 계층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몇몇 지표는 어떤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표 6). 이는 지수가 안정적임을 의미하며, 계층별로 지수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사회계층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개별 지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와 부여하지 않은 경우 간의 상관관계수가 0.91로 상당히 높았다(표 7).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표를 합산하는 것의 장점은 단순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명목 지표들의 경우 올바른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둘째, 하나 또는 둘, 그리고 둘 또는 셋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간차가 같은지, 순차적인 상황 안에서의 시간적 거리가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활동이 항상 더 높은 삶의 질을 갖는 것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닌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회귀'로 인해 줄어드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는 필요한 것이다.

<표 7> 18개 집단별 LSI 측정 결과의 차이

	index scores based on weights obtained after analysis of		
	everyone	females	18-24 years old
one-person households	-0.60	-0.56	-0.59
single-parent families	-0.28	-0.28	-0.25
couples without children	0.06	0.06	0.03
couples with children	0.29	0.28	0.31
other	-0.28	-0.27	-0.24
no education, or only very basic	-1.17	-1.11	-0.98
lbo (form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0.35	-0.33	-0.29
mavo (form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0.13	-0.12	-0.04
mbo, havo, vwo (forms of upper secondary education)	0.16	0.15	0.12
hbo (university-level education), university	0.51	0.48	0.41
males	0.03	0.03	0.02
females	-0.03	-0.03	-0.01
18-24 years	0.18	0.16	0.14
25-34 years	0.26	0.25	0.19
35-44 years	0.29	0.28	0.28
45-54 years	0.21	0.20	0.20
55-64 years	-0.02	-0.02	0.00
65-74 years	-0.42	-0.40	-0.40
75 years or older	-1.51	-1.42	-1.28

<표 8> 가중치 부여한 경우와 가중치 없는 LSI 비교

	life situation index with Overals weights	life situation index without weights
life situation index with Overals weights	1.00	0.91
life situation index without weights	0.91	1.00
domains		
housing	0.67	0.58
socio-cultural leisure activities	0.72	0.72
(social) participation	0.47	0.56
sports	0.57	0.62
holidays	0.66	0.54
ownership of durable consumer goods	0.68	0.52
mobility	0.58	0.42
health	0.48	0.44

다면량 통계분석은 선택된 지표들 간에 상호관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간단히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중치와 요소들의 값은 작아질 것이다. 만약 이론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지표를 선택하고 합친다면 이러한 점검은 이루어질 수 없다. 어느 지표와 영역이 포함되는가에 문제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비선형 정준상관분석(Overals)이다.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에 다른 통계분석 방법도 유용하지만, 비선형 정준상관분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지표와 응답항목에 동시적으로 가중치를 할당할 수 있고 명목 지표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실증적으로 영역을 구별할 수 있다.

## 9.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삶의 질 지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맥락에서 어떻게 설계되고 개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삶의 질을 더 잘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LSI와 개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념틀 안에 사람들의 선택, 기호, 가치 그리고 기준이 갖는 역할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기준과 가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자원 부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립(self-reliance)"를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s)을 이용하여 전체 모델을 검증해야 한다. 자원부문 내의 요소들의 잠재적 관계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외부의 전반적인 특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된 개념들(그림 2 참고)을 사용하면 삶의 질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의 선정과 병합과정과 관련하여 LSI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 없이 논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논쟁은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관심,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진보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에 대한 관심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LSI의 선택이 그러한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